

2014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

- Ⅰ 일시 _ 2014년 7월 5일(토) 오후 1시 30분 ~ 6일(일) 오후 12시
- Ⅰ 장소 _ 충남대학교 인문관 문원강당
- Ⅰ 주관 _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 Ⅰ 주최 _ 한국한문교육학회
- Ⅰ 후원 _ 충남대학교, (재) 국제교류진흥회

2014年度 韓國漢文教育學會 夏季學術大會

□ 대회 개요

- 일시: 2014년 7월 5일(토) 13:30 ~ 6일(일) 12:00
- 장소: 충남대학교 인문관 문원강당
- 주제: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 주관: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 주최: 한국한문교육학회
- 후원: 충남대학교, (재) 국제교류진흥회

□ 행사 일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5일 (토) 13:30 ~ 18:30	13:30 ~13:50	개회사(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환영사(충남대학교 총장)	진행 사회자 : 이향배(충남대)
	13:50 ~15:20	제1부 기획주제 발표 (인문관 문원강당) 발표① 언어생활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발표자: 김성중(계명대) 토론자: 강민구(경북대) 발표② 思考力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 탐색 발표자: 김영주(성균관대) 토론자: 윤재근(단국대) 발표③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발표자: 이동재(공주대) 토론자: 김창호(원광대)	
	15:20 ~15:40	휴식	
	15:40 ~16:40	제2부 기획주제 발표 (인문관 문원강당) 발표④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발표자: 안세현(강원대) 토론자: 신두환(안동대) 발표⑤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육현장 인성교육 방안 발표자: 김은정(서울 대진고) 토론자: 허연구(늘푸른고)	
	16:40 ~16:50	휴식	

	16:50 ~18:00	종합토론	종합토론 좌장: 진재교(성균관대)
	18:00 ~18:30	정기총회	
6일 (일) 09:30 ~ 12:00	09:30 ~11:00	제3부 자유주제 발표 (인문관 문원강당) 발표① 漢文 텍스트 易讀性 要因 分析을 통한 易讀性 公式 開發 研究 발표자: 김왕규(한국교원대)·박상우(한국교원대) 토론자: 김연수(단국대) 발표② 중등학교 경전교수학습에 대한 일고 발표자: 함영대(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토론자: 김용재(성신여대) 발표③ 益齋 李齊賢의 歷史意識과 詠史·懷古詩 발표자: 김용창(단국대) 토론자: 이재숙(충남대)	진행 사회자 : 백광호(전주대)
	11:00 ~11:10	휴식	
	11:10 ~12:00	종합토론	종합토론 좌장: 한연석(공주대)

목 차

제1부 기획주제 발표

언어생활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중학교를 중심으로-(김성중)	1
思考力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 탐색 -사고력 신장 접근법과 한문교육에 대한 이론 검토를 중심으로-(김영주)	13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이동재)	27

제2부 기획주제 발표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안세현)	49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육현장 인성교육 방안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김은정)	69

제3부 자유주제 발표

漢文 텍스트 易讀性 要因 分析을 통한 易讀性 公式 開發 研究 -易讀性 關聯 期待 要因 檢討를 중심으로-(김왕규·박상우)	95
중등학교 경전교수학습에 대한 일고 -교육현장의 실제와 학습요소 분석을 중심으로-(함영대)	131
益齋 李齊賢의 歷史意識과 詠史·懷古詩(김웅창)	151

제1부 기획주제 발표

언어생활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방안

- 중학교를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김 성 중

언어생활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방안 -중학교를 중심으로-

김성중(계명대)

-
1. 머리말
 2.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언어생활 한자 어휘 제시
양상 분석
 3. ‘한자 생활’ 단위 구성 방향
 4. 결론
-

1. 머리말

언어생활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은 원론적으로는 의문을 던질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한문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언어생활의 한자 어휘¹⁾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확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 한문 교과서의 시수 문제, 수능에서의 반영 문제 등 외부적인 요인이 중요 원인이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는 별개로 한문 교과 내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서술 목적이다. 좀더 직설적으로 자문한다면, 한문 교과서의 단위 순서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체계적인 언어생활 한자 어휘 학습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이 기존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이동재·허철(2012)에서 이를 집약시킨 바 있다. 한자와 한자어의 연계성 고려 문제, 국어사전의 풀이 방식을 따르는 한자어의 뜻풀이 문제, 본문에서 수용하지 못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소화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한자어의 문제, 한문교육계

1) 참고 논저에 따라 ‘한자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한자 어휘 군을 언어 생활의 한자 어휘와 한문의 한자 어휘로 구분하는 것은 송병렬(2013)을 따른다.

에서의 말뭉치 구비 문제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마지막 과제는 “한자나 어휘의 선정과 정리 등은 개인 연구가 아닌 학회나 연구소 등과 같은 집단 차원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종래 여러 차례 어휘를 정리하고 어휘표를 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때마다 어려움에 부딪친 것은 바로 이러한 기초 연구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있었다”²⁾라는 언변에서 알 수 있듯 해결이 급박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말뭉치 구비가 여러 이유로 인해 한문교육계 자체 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면 다른 학계의 성과를 우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세 가지 사전을 거론하면, 첫째는 「연세 한국어 사전」³⁾(이하 ‘연세’로 약칭), 둘째는 전광진(2010/2012),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이하 ‘속뜻’으로 약칭), 셋째는 국립국어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한국어 기초사전〉⁴⁾(이하 ‘기초’로 약칭)이다. 각 사전의 수록 어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수록 어휘
연세	5만 2천
속뜻	28,243
기초	5만

‘속뜻’에서 고유어는 9045, 한자어는 18026, 외래어는 1172개라고 하였으니, 추후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⁵⁾ ‘연세’와 ‘기초’의 한자어는 그 배가 될 것이므로 이 정도의 말뭉치면 활용의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⁶⁾ 문제는 선정된 한자 어휘들을 어떻게 교과서에 배치하여 언어생활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언어생활 한자 어휘 제시 양상 분석

2009개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 14종을 일별하면 한자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한 집필진의 고민을 잘 알 수 있다. ‘부수 → 한자 → 한자 어휘’의 구성을 통해 의미의 연계를 익히게 하고,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및 관련 한자 어휘, 뜻이 비슷한 어휘, 뜻이 상대되는 어휘 등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려 했다. 일부 교과서의 경우이지만, 사물에 대한 이해 혹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추가하기도 했으며, 국어·사회·수학·과학 등 교과 어휘를 제시한 경우도 있고, 인터넷·학교·버스와 지하철

2) 이동재·허철(2012), 41면.

3) http://kordic.britannica.co.kr/sear_frame.asp?keyword=%20&keykind=all&sear_type=part,

4) <http://krdic.korean.go.kr/mainAction>

5) 사석에서 두 사전의 편찬에 참여했던 연구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통계 수치가 아직 없다고 한다.

6) 교과서에 수록된 언어생활 한자 어휘들의 효용성을 점검하는 데도 이 사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들에는 ‘植栽’, ‘春柳’, ‘花片’ 같은 어휘들이 실려 있다. 이 중 ‘植栽’은 ‘연세’에만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두 사전에는 없으며, ‘春柳’, ‘花片’은 세 사전에 모두 없다. 이들 어휘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본문에서 수용하지 못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소화하려는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등의 장면을 염두한 어휘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를 통해 한자 어휘를 익히는 방법도 사용했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휘장(lexical field)의 방법도 도입되었다. 한자의 뜻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사고할 수 있게끔 한 교과서도 있었고 한자 어휘를 문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문을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가 다시 새로운 각도의 접근을 모색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언어생활 한자 어휘와 본문 한문 글감과의 연계성 문제이다. 연계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 한 대표적인 교과서는 ‘천재교과서’, ‘장원’이다.⁷⁾ 각 예를 들어본다.

‘천재교과서’ 26단원

26 효도와 공경을 시작으로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 하나니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 인제, “논어” 학이

今之孝者는 是謂能養이니 至於犬馬 하여도

皆能有養이니 不敬이면 何以別乎 리오? “논어” 위정

㉔ 어휘의 활용

자공이 공자에게 政治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먹을 게 充足하고, 國防이 튼튼하면, 百姓이 믿을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셋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于先 버려야 하나?” 공자가 말했다. “군대를 버려라.” 자공이 다시 물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나?” 공자가 말했다. “식량을 버려라,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천재교과서’의 경우, 단원명과 관련된 본문 글감을 『논어』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동 단원 ‘어휘의 활용’에서 『논어』 번역문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성을 유지하였다.

‘장원’ 14단원

14. 벼를 사귀는 방법

近墨者는 黑하고 近朱者는 赤이다. “자자소학”

사람은 살면서 벼를 가려 사귀지 않을 수 없다. 벼이란 내가 어진 성품을 기르도록 나를 일깨우고 또 내가 너그러워지도록 나를 도와주는 存在이기 때문이다. 有 益한 벗과 지내면 배움이 날로 進步하고 행실도 날로 발전한다. 하지만 그 반대면 나의 이들도 절로 낮아지고 몸가짐도 절로 비루해진다. 비유하자면 개끼리 만나 서로 냄새나는 땀냄으로 이끌려 가며, 돼지끼리 만나 서로 더러운 우리 안으로 이끌려 가는 것과 같다. “부동자당론”

아래와 글상 친하고 진실한 우정은 곧세와 이인을 초월합니다. 참다운 벗은 좋은 벗을 찾는 데 있어 나보다, 어려울 때는 부르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欲與第一流로 友면 當先使己로 爲第一人이니라. “장훈교”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도 으뜸가는 사람과 朋友가 되지 못한다면 선비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으뜸이 되어야 그런 친구도 만날 수 있으니 으뜸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自身이 우선 으뜸이 되어야 한다.

우듬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文章으로 으뜸이 될 수도 있고, 재주로 으뜸이 될 수도 있고, 기술로 으뜸이 될 수도 있고, 외모로 으뜸이 될 수도 있고, 언변으로 으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으뜸은 마음씨가 으뜸인 것과 배움이 으뜸인 것이다. “장훈교”

아래와 글상 친구는 내 부름에 대한 대가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7) 교과서는 출판사명을 쓰는 것으로 약칭한다. ‘적극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는 특정 단원에서 일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단원에서 그러한 틀을 견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는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장원’은 본문 글감의 주제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한문 문장 혹은 본문 글감 발체 부분 외의 여타 부분을, 번역문 형태로 제시하고 번역문 속에서 한자 어휘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과서 각 단원과 전체 구성을 하나의 서사로 된 이야기 형태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문 원전 텍스트가 본문 내부의 이야기의 한 소재로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동 단원 내의 구성 요소인 본문 글감과 한자 어휘가 별개의 교수·학습으로 구안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다소 이질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교과서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 했다. 다만 한문 문장과 언어생활 한자 어휘를 일원화 한 교과서 체제로 인해 한자 어휘를 제시한 글감이 한문 글감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한자 어휘 제시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언어생활 한자 어휘와 본문 한문 글감과의 연계성이 희박한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 등은 현 교과서 체제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기학습 한자를 이용한 학습 어휘의 확장 문제이다. 현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생활 한자 어휘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수용 때문에 신습 한자의 사용에 중점이 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학습 한자와 신습 한자가 결합된 다양한 관련어의 제시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기학습 한자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글감이 제시될 수 있는 틀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구성을 갖춘 ‘단락’(즉 문단) 같은 것이다. ‘단락’에서는 기학습 한자와 기학습 한자로 조합된 어휘를 제시함으로써, 개별 한자의 의미로 한자 어휘의 뜻을 유추하는 교수·학습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교과서 체제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자유롭게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⁹⁾

셋째, 언어생활 한자 어휘의 체계적인 배치와 활용이다. 교과서 한문 글감들은 한문 독해 능력 증진이라는 한문교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언어생활 한자 어휘는 한문 글감에 종속적이거나 혹은 느슨한 연관 속에 교육용 기초한자를 소화하기 위해 각 단원의 구성 요소로 자리잡은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언어생활의 측면에서 일정한 구성을 갖춘 단원들이 있는 교과서로 ‘YBM’을 거론할 수 있다. ‘YBM’은 총 7개의 단원에서 일상생활 어휘와 주요 교과 어휘를 제시하였다.

대단원Ⅱ 생활 속의 한자	6. 인터넷에서 7. 학교에서 8. 버스와 지하철에서
대단원Ⅱ 실력을 키우는 한자	9. 말과 글에 담긴 의미(국어 교과) 10.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사회 교과) 11. 수와 도형의 세계(수학 교과) 12. 신비한 자연의 이치(과학 교과)

8) 진재교(2008). 참조. 서사를 통한 본문의 확장과 재구조화는 본래 기초한자 900자의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언어생활 한자 어휘의 교육과도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일부 교과서에서 단원 끝에 문화, 상식 등에 관한 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체계적인 언어생활 한자 어휘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YBM’도 기학습 한자를 이용한 어휘의 확장과 이를 통한 각 단원 간의 한자 어휘의 연계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이 역시 교과서의 전체적인 체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생활 한자어 단원을 독립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병렬(2006)에서 제안한 바 있고,¹⁰⁾ 이병주(2013)는 현장 교사들이 ‘교과서 학습을 통해 이루려는 교육목표 중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생활에 필요한 한자어(성어 포함)의 활용 능력임을 언급하며 한문 교과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가칭 ‘한자 생활’¹¹⁾이라는 대단원을 독립 구성해서, 교과서의 이원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문은 한문대로, 언어생활 한자 어휘는 한자 어휘대로 체계적인 교수·학습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아래에서는 ‘한자 생활’ 단원의 구성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 ‘한자 생활’ 단원 구성 방향

언어생활 한자 어휘의 교육은 상향식 학습(bottom-up)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한자 → 한자 어휘 → 문장 → 단락(즉, 문단)’¹²⁾이다. 따라서 학습 대상 한자 어휘의 선정에 있어서 빈도수, 기초 어휘와 함께 투명도¹³⁾를 반드시 고려하여, 한자의 뜻을 익힌 다음, 한자 어휘 의미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한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⁴⁾ 또한 한문교과의 특수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자 어휘를 제시한 뒤 뜻풀이를 해야 하는데 뜻풀이 방식은 개괄하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국어사전식 풀이(즉, 정의식 풀이). 둘째, 국어사전의 풀이를 보다 쉽고 간명하게 한 풀이. 셋째, 이른바 속뜻학습법에 의한 풀이이다. 첫 번째 방식은 ‘어휘’보다 ‘풀이’가 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보다 이해가 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당 어휘가 무슨 뜻인지만 알 수 있지 왜 그런 뜻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세 번째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광진의 다음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국어사전에서는 한자어의 풀이가 정의(definition)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형태소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자 복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정

10) 송병렬(2006)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체계 또한 언어생활 한자어를 독립 구성 해야 한다고 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1) 이 명칭은 김왕규 외(2006)에서 가져왔다.

12) 여기서의 ‘문장’, ‘단락’은 문법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단원 내에 여러 개의 문장(sentence)과 단락(paragraph)이 제시될 수 있다.

13) 한자어의 ‘투명도’에 대해서는 김왕규(2005), 참조.

14) 원론적인 선정 기준이기는 하지만 서상규(2009)에서 제시한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기준 3가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언어 기술적 관점에서 어휘 선정은 사용빈도나 사용범위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언어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②언어 규범적 관점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 맞게 어휘를 선정하여 해당 언어 사회나 시대가 요구하는 어휘 수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계량 기술적 관점에서 어휘 자료를 처리하고 계량하는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의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와 사고라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암기를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의 전형으로 학습 효율이 매우 낮은 단점을 지닌다.¹⁵⁾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한자의 뜻을 통해 한자 어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없거나 혹은 유추하기 어렵다면, 한자를 노출한 한자 어휘의 학습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증가시켜 ‘숙제’를 남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9개정 교과서에서 속뜻풀이 방식을 택한 다음의 예는 주목을 요한다.

어·휘·력·키·우·기

※ 한자의 뜻을 보고,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여 써 보자.

1. 步: 걸음 보
行: 다닐 행
보행: _____



2. 平: 평평할 평
地: 땅 지
평지: _____



3. 交: 사귄 교
友: 벗 우
교우: _____



4. 通: 통할 통
路: 길 로
통로: _____



‘YBM’ 136면.

‘문장’과 ‘단락’은 당연히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언어생활 한자 어휘 교육도 한문교과의 목표 아래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활’이 아닌 ‘사상’, ‘문화’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⁶⁾ 내용 및 해당 내용과 관련된 어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글감을 찾거나,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듯하다.

사랑하는 男女가 만나 結婚하여 夫婦가 되고,

子女를 낳고 慈愛로운 父母가 된다.

兄弟姊妹들은 우애를 나누며 자라나고,

어느새 성인이 되어

평생 함께할 짝을 만나 또 다른 多情한

家族을 이룬다.



▲ 結婚



▲ 父母

‘천재교육’ 51면

15) 전광진(2007/2011), 2067면 및 2074면. 참조.

16) 2009개정 교육과정의 다음 서술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언어생활의 일상 언어 속에는 개념적,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 어휘가 많이 있다. 한자 학습을 통하여 한자 어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단원명은 ‘가족 이야기’였는데 ‘友愛’, ‘成人’, ‘平生’ 등의 어휘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글감은 내용과 어휘라는 두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소 작위적으로 작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글감과 달리 ‘단락’ 글감은 가능한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추어진, 완전한 한 편의 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되새길 수 있는 글감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자 어휘력 증진뿐만 아니라 독해와 작문 역량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지문에서 중학교용 기초한자를 중심으로 언어생활 한자 어휘를 제시해 본다.

君子가 되기도 어려울 텐데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람다운 사람’은 果然 어떤 사람일까? 孔子는 『論語』의 「里仁」篇에서 오직 사람다운 사람만이 정말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예수가 “너희들 中 罪 없는 者, 이 女人을 돌로 쳐라.”라고 한 말과 비슷하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自身の 私利私慾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좋아하거나 미워하더라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또 사람다운 사람은 반드시 勇氣가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사람다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람다운 사람의 용기는 참 용기이다. ‘眞正한 용기란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西洋 俗談이 있다. 보통 우리는 分明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겪는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은 정말 그 일을 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處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할 자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참다운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은 맞설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이다.

공자는 구차하게 살기 爲해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몸을 죽여서라도 사람다움을 이룬다고 했다. 참된 용기를 지닌 사람은 一生에 딱 한 번 죽을 뿐이다. 그의 숨이 끊어지는 날이 정말 죽는 날이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은 일생 동안 두고두고 죽는다. 그가 사람답기를 포기할 때마다 그의 存在 意味는 없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다움이란 個人에게는 자신의 존재 理由이다. 이처럼 仁을 실천하는 일, 卽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일이 重要하기 때문에 공자가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일에서는 스승에게도 讓步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김교빈 · 이현구¹⁷⁾

‘문장’ 글감도 그렇지만 ‘단락’ 글감을 꼭 현대문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옛 글감을 번역문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교과서 집필자가 의도적인 작문을 할 수도 있다. ‘단락’ 글감은 학교 현장에서 한자 어휘 학습 외에도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글감의 경우, 역문으로 제시된 『論語』 구절을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보게 할 수도 있고, 각 구절에 대해 동서양의 비교, 현대적 가치 등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문 교과의 목표도 일정 정도 달

17) 김교빈 · 이현구(1993), 『동약 철학 에세이』, 동녘.(이삼형 외(2012/2014), 244면에서 전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락’에서의 한자 어휘 제시 기준은 교과서 집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 기준을 시론적으로 제안해 본다.

첫째, 투명도가 낮은 것은 제외한다. ‘次元’은 모두 중학교용 한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투명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투명도를 판단할 때, 한자의 훈 설정과 직해의 정도가 문제인데¹⁸⁾ 의미항목의 선정은 ‘대학서림’의 부록에 있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근거로 하였고 한자의 뜻과 어휘의 의미 연계는 ‘속뜻’을 참고하였다.

둘째, 한문 교과와 특수성을 고려한다. ‘君子’의 경우 투명도는 낮지만, 한문 교과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또 중요한 용어이므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서명인 ‘論語’의 경우도 같다. ‘里仁’의 경우는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된다.

셋째, 중학교용 기초한자를 넘는 한자가 조합된 한자 어휘는 선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私利私慾’의 ‘慾’과 ‘境遇’의 ‘境’은 모두 중학교용이 아닌데 전자는 제시했고 후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私利私慾’에서 ‘慾’을 제외한 3글자가 중학교용이고, 투명도도 높으며, ‘欲’이 중학교용 기초한자이므로 이를 통해 ‘慾’을 설명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었다. ‘境遇’는 투명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되어 제시하지 않았다.

상기 ‘단락’ 글감에서 제시한 한자 수는 총 48자(중복 한자 제외)인데 이 가운데 기학습 한자도 있게 될 것이다. ‘문장’ ‘단락’ 글감에서 제시하는 신습 한자의 총수는 차이가 크겠지만 상황에 따라 글감의 숫자, 편폭 등을 조절하면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를 소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및 관련 한자 어휘, 뜻이 비슷한 어휘, 뜻이 상대되는 어휘’¹⁹⁾ 등에서 제시된, 한문에서의 한자 어휘와는 관련이 희박한 어휘들이, 한문 글감 단원이 아닌 ‘한자 생활’의 소단원들에 제시됨으로써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여론

‘한자 생활’의 전체적인 편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주제 중심, 상황·장면 중심, 어휘장 중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한문 글감 단원과 주제의 측면에서 일정한 연계를 갖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국어 수학 등 교과 어휘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언어생활 한자 어휘 영역을 독립시키고 그 체계에 맞게 교수·학습하는 것은 언어생활 한자 어휘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생활 한자 어휘까지 포섭함으로 인해 적잖은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문’ 글감 서술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학교 현장에서 ‘한문’ 글감이 아닌 ‘한자 생활’의 교수·학습만 이루어질 경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가 있지만, 학교 현장은 어렵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는 거칠기만 하다.

18) 김왕규(2005), 200면. 참조.

19) 한문 교과서에 실린 이러한 어휘들이 ‘언어생활에서의 한자 어휘’적 성격이 강한 것은 김성중(2013)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09개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

김성중(2013), 「학습 요소로서의 多義語 한자 선정 및 그 의미항목과 한문 용례-2007 개정 교육과정 한문 I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3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왕규(2005), 「한자 字訓 이해와 한자어 의미 이해의 상관도」, 『청람어문교육』 30, 충북(한국), 청람어문교육학회.

김왕규 · 원용석 · 한은수 · 김동규(2006), 「한문과 교과 교육 내용 체계 및 내용 교재 개발」, 『한자한문교육』1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서상규(2009),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 연구원.

송병렬(2006), 「한문과 교과서의 제문제와 바람직한 방안」,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송병렬(2013), 「한자 어휘 교육의 방법 모색과 실행 방안」, 『한자한문교육』3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이동재 · 허철(2012), 「한자 · 어휘 교육의 성과와 과제」, 『한자 어휘 교육론』, 보고서.

이병주(2013), 「한문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의 변화와 미래 전략」, 『한국한자 한문교육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이삼형 외(2012/2014),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II』, 지학사.

전광진(2010/2012),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 LBH교육출판사.

진재교(2008),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교과서 활용 방안」, 『한문교육연구』31, 한국한문교육학회.

「언어생활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방안」
토론문

강민구(경북대)

별지 참조

思考力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 탐색

-사고력 신장 접근법과 한문교육에 대한
이론 검토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김 영 주

思考力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 탐색

-사고력 신장 접근법과 한문교육에 대한 이론 검토를 중심으로-

김영주(성균관대)

-
1. 문제의 제기
 2. 사고력의 본질
 3. 사고력 접근법과 한문교육의 효용성
 4. 맺음말
-

1. 문제의 제기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면 교육의 내용도 따라서 정비되고 새롭게 조직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지식사회, 지식가치 사회, 첨단 지식기반 경제, 정보사회 등의 다양한 명칭과 특징들을 갖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사회에 교육이 발맞추어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와 교육 상황의 괴리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강조되어 온 사회과에서의 ‘探究’라는 말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사라지고 ‘고급사고력(High Order Thinking Skills)의 향상’이 주요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유는, 현대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관계를 사·공간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는 확산적 영역으로 내몰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 입문할 때쯤이면 새로운 기술 문명에 밀려 유용성을 성실해 버리기 때문이었다.(Knowles, 1980) 그러므로 교육의 목표를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내용의 축적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처리할 수 있는 ‘고급사고력(이하 사고력)¹⁾’의 함양에 두어야 함은 자명한 결과라 할 수 있다.²⁾

1) ‘고급사고력’과 ‘사고력’에 대해서는 아래 장에서 논의하기로 함.

교과교육과 관련하여 현재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과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여 교과연구를 진행한 최초의 인물은 朴奉柱(1968)³⁾이다. 그의 연구는 이른 시기에 科學的 思考力을 기른다는 선명한 목표의식 하에 과학적 사고력의 개념, 과학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자연과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의 발달단계,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지도 원리와 실제, 평가 요소로 꼽은 客觀的 思考의 여부·抽象的 思考의 가능성·論理化의 가능성·實證的 사고의 가능성·創意的 思考의 여부, 문제해결능력 텍스트의 시안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사고력 연구에서 다루는 특징적 요소들을 자연과 학습에 활용하여 지도·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하다. 이후 1970년대에 수학·과학·국어 등의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연구되던 교과별 사고력 개발 및 신장 등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문과와 예·체능 교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는 사고력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86)에서는 국제연합아동기금과 함께 지능과 창조력의 계발에 대한 전문서적을 간행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6개년 동안 초·중등학생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착수하여 사고력 연구와 관련된 제반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여 이루어진 이론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초등학교용 사고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연구자료 개발, 교과별 사고력 프로그램 모형의 통합 가능성 탐색에 대한 연구 보고를 통해 초·중등학생 및 교과의 사고력 신장에 대한 발전적 방안들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한문교과의 사고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제1차 교육과정기가 시작된 이래 유지되던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육목표에 대한 오인과 지식 위주의 수업, 입시 위주의 학교 행정 등의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범위 내의 한자와 한문을 적은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습득하려는 것이다’⁴⁾, ‘國民 道義精神 昂揚에 도움’⁵⁾ 등과 같은 일방에 편향된 한문과의 교과목표가 일반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제3차 교육과정(1979)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교육목표가 제기된 사실이 있다. 또 1994년부터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성태제, 1996)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면서 사고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문이 포함된 것은 2005년부터이기에 사실 이 시기까지 한문교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경시는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해와 경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한문과에 적합한 사고력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문교과의 효용성과 가치를 제고하도

2) 이해주(1994), 「고급사고력 신장을 위한 教育方法에 관한 논의」, 『사회와 교육』 vol.18, 한국사회과 교육학회, 25면.

3) 朴奉柱(1968), 『自然科 學習指導; 科學的 思考力을 기르는』, 시청각교육사. ; 그는 創意性의 啓發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1983년에 朴奉柱(1983), 「創意性 啓發을 위한 莞島教育」(『교육전남』, 전라남도교육청)을 보고한 바 있다.

4) 문교부(1955), 『중학교 교육과정』(1차).

5) 문교부(1963), 『중학교 교육과정』(2차).

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문교과 관련 사고력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향후에 한문과 사고력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기존의 사고력 관계 연구 및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의 효용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사고력의 본질

‘思考力(thinking skills)’⁶⁾은 연구자들에 따라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구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여 ‘①문제해결력, ②의사결정력, ③비판적사고력, ④창조적 사고력, ⑤메타인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⁷⁾, ‘지식을 다루는 방법을 숙달하게 하여 장차 제공될 지식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 활동으로 사려 깊고, 규제적이며, 창의적인 판단과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지향적인 것’⁹⁾ 등으로 정의된다.¹⁰⁾ 또 사고력을 구성하는 삼대 요소는 ‘지식(content knowledge), 지적기능(intellectual skills), 성향(dispositions of thoughtfulness)’이다.

위의 ①~⑤를 포함하는 지적기능의 요소들을 유목화 하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력에서는 가설의 설정, 자료의 수집·분석, 결론의 과정이 강조되고, 창조적 사고에서는 자유로운 사고, 융통성, 독창성, 치밀한 연구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비판적 사고에서는 공정한 판단, 순수성과 정확성, 가치성에 대한 평가가 본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 개방적 태도나 어떠한 질문도 가능하게 하는 개방성, 대

6) 원래 한문교육학회에서 본인에게 제시한 연구 주제는 ‘사유능력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활용방안’이었다. 그러나 교육학과 심리학, 철학 등의 관련 연구에서 ‘思惟’보다 ‘思考’의 사용이 보편적이고, 思考(thinking)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에서도 철학 분야의 ‘사유’와 비슷한 말이라고 정리되어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또한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여러 분야의 논문 가운데 ‘사유’를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는 정영수(2008)의 「맹자의 도덕적 자기수양-사유 능력(思)을 중심으로-」가 거의 유일하였다. 정영수 역시 영문초록에서 ‘思惟’를 ‘思考’의 영문 표기인 ‘thinking’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사유’를 ‘사고’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사고능력’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허경철 외, 1990. 48면.) 논문 제목 수정에 대한 변명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 ‘思考力’과 ‘高級思考力’의 개념 사용에서도 이를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사고력의 개념을 고급사고력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思考力’의 표기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thinking ability’(한국교육개발원, 1990), ‘thinking faculty’(김영채, 199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Google 미국판을 검색한 결과 이들 표현보다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skills),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skills) 등의 표기에 ‘skills’이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7) 이해주(1994), 25면.

8) 이성잔·김영석 외(1992), 「教育의 質의 高度化를 위한 思考力 增進 方案 研究」, 『教育學研究』 Vol.30 No.4, 137면.

9) 김영채(1998), 『사고력: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8면.

10) 사고력 신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을 표방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조차 ‘사고력’과 ‘고급사고력’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문제해결력·의사결정력·비판적사고력·창조적사고력·메타인지’ 등의 고급사고력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양자를 동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적인 세계관, 모든 문제에 의심을 품어 보는 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Sears & Parsons, 1991, pp.45-68.)

최근에는 학생이 자신의 인지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총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meta cognition)¹¹⁾라 하여 사고력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思考에 관한 思考’로 요약되는데 개인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지기능과 전략 등을 통제하는 정신적인 조작을 의미한다.(Woolver & Scott, 1987, pp.293-299)¹²⁾

위에서 제시한 지적 기능과 성향에 대해 연구자들이 제시한 하위 요소들을 합하면 100개가 훨씬 넘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들이 제시한 항목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특징들은 그대로 교육적인 의도와 노력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유용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사고력 신장을 위한 세 가지 접근법과 한문교육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고력 접근법과 한문교육의 효용성

1) 직접교육 접근법과 한문교육

사고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 접근법은 대체로 세 가지가 이야기 되는데, 그 첫째가 직접교육(direct instruction) 접근이다.¹³⁾ 이것은 사고력이 반드시 교과와는 별개로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Beyer는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①사고기능의 소개, ②기능의 점진적 이해, ③유사한 맥락 속에서의 개별적인 적용, ④전이와 정교화, ⑤새로운 상황에서의 실행, ⑥자율적인 사용’ 등으로 이루어지는 직접교육의 6단계 과정을 제시하였다.(Beyer, 1998, PP.3-4)

Mctighe는 학생의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고를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여 ‘사고를 위한 학습(teaching for thinking), 사고의 학습(teaching of thinking), 사고에 대한 학습(teaching about thinking)’의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사고를 위한 학습은, 학생들이 사고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수전략과 학생들의 활동, 커리큘럼 자료를 등을 포함한다. 사고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분류하기·비교하기·가설 만들기·판단하기·의역하기·순서대로 꿰어 맞추기·요약하기·연역적 추론 방법·귀납적 추론 방법·의사 결정 방법 등과 같은 특정한 사고하는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다. 사고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자기 생각 말해보기와 자기생각 적어보기 등이

11) 메타인지는 학자들에 따라 ‘上位인지’, ‘超인지’ 등으로 번역되어 쓰이기도 한다.

12) 이상의 단락은 이해주(1994)의 24-26면 재인용.


13) 사고력 수업의 접근법에 대하여 연구자에 따라 ①‘교과 특수 내용(subject-specific)입장, 교과 무관(subject-free)입장, 교과와 사고력 프로그램 통합 입장’(한국교육개발원, 1989), ②‘독립적인 접근법(stand-alone, separate), 통합적인 접근법(embedded, infused), 몰입형 접근법(immersed)’(김영채, 2013) 비롯하여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는 있으나 기본적인 속성은 교과내용과 사고력 교육과의 관련 방식에 따른 구분이기에 본고에서는 이해주(1994)의 분류를 수용하여 사고력 신장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정리하였다.

다.(Mctighe, 1985)

우리나라에서 직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은 곽병선(1987)이다. 그는 4가지의 교과 특성을 들어 교과교육만을 강조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접교육을 강조하였다. 먼저, 교과는 주어진 영역 안에서 사고를 요구하기에 그 영역 안에서의 사고의 내용과 방식은 하나의 틀을 형성하여 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의 영역에 우위를 두는 사고방식은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이다. 셋째, 교과 교육은 기존의 지식을 고정된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지식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 사고의 결과로 형성된 체계이다. 넷째, 교과 중심의 교육은 피교육자를 언제나 미성숙한 학습자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상하관계가 성립될 뿐 양자 간에 제대로 사고를 자극하는 기회는 없다.¹⁴⁾

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직접 교육 주장자들은 특정한 내용영역이나 교과에 따라 서로 다른 사고기능, 사고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능력, 사고기능, 사고과정 등을 분석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수한 사고의 존재를 강조할 경우, 인간의 사고 현상을 설명하고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서로 다른 내용 영역간의 사고의 전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생겨난 일반적인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 등의 협력으로 개발된 베네수엘라 문교부의 오딧세이(Odyssey), de Bono의 CoRT(Cognitive of Research Trust), 한국교육개발원의 『배우며 생각하며』 등이다. 『배우며 생각하며』는 1993년에 중학교용 『배우며 생각하며』와 교사용 지도서가 만들어졌고, 1998년에 초등학교 6개 학년 당 각 1권씩 총 6권이 만들어졌다.¹⁵⁾ 대체적인 구성은 정해진 주제별로 실린 이야기를 아이들이 읽고 그 다음의 전개과정과 결말 등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그림] 『배우며 생각하며』 (한국교육개발원, 1993)

<p>8. 임금님께 아웁니다</p> <p>* 사고의 초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진술이나 진술문 속에서 생략된 가정이나 결론을 추론하는 능력을 기른다. 어떤 진술이나 진술문 속에서 결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의미 이외에 달리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찾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농민들의 생활을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p> <p>(1) 흔히 농사 짓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임구는 많고 토지는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가 적은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기의 노력에 비하여 경지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농작물을 너무 드물게 심어, 어떤 곳에서는 포기화 포기 사이가 빈 땅이거나 비워놓기도 있습니다. 산에 있는 밭이나 황폐화한 밭을 비려 두는 것은 아깝다고 여기면서도, 지금 자기의 피땀으로 가꾸고 있는 밭 가운데서 그것도 가꾸려 땅이 높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토지 없는 농민이 남의 땅밭을 빌어서 거기에서 보리를 심는 일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p>
	<p>[생각해 봅시다]</p> <p>1. '농민들의 생활을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은 실학자인 정약종의 임금에게 상소한 글의 일부입니다. 글 중의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p> <p>(1) _____</p> <p>(2) _____</p>

14) 곽병선(1987), 『사고와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23-40면.

15) 한국교육개발원(1998), 『배우며 생각하며 1학년』 ~ 『배우며 생각하며 6학년』.

위의 자료는 중학교 교과서와 별개로 선정된 3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학교용) 배우며 생각하며』 중의 ‘8. 임금님께 아웁니다’를 재구성 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자료는 중학교 교과서와 전혀 관계없는 사고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추론과 함께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의미로 구성되는 언어를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주어진 그림에 적당한 개념을 표현하여 새로운 상황에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충분히 숙고하여 다른 대안을 강조하는 사고력 개발 자료이다.

이 책의 33개의 주제가 제시하는 98개의 사고 목표 중, 77개가 “~ㄴ(는) 능력을 기른다”의 형태였고 그 외 “~ㄴ(는) 태도를 기른다”의 형태가 8개, “~ㄹ(을/를) 인식시킨다”가 3개, “~ㄹ(을/를) 안다”가 3개, “~경험을 한다”, “~이해하게 한다” 등의 순이었다. 제시된 서술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교재의 목적이 주로 다양한 지적 과제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고기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렇다면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한문교육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대답은 불가능하다. 우선 한문교과는 한문 자료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짧은 성어나 문장의 독해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과연 교과서 외의 한문 자료를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한문의 독해를 구절 풀이나 어휘 풀이 등에 의존하여 이해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지적 과제들, 예를 들어 논리적 오류, 주장에 내포된 편견의 파악, 문장 속의 생략된 가정이나 결론을 추론하는 능력 등등의 지적 과제 요구를 학생들이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현실의 제한적인 수업시간 더구나 자유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의 급변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와 별개로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한문교과만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문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모색해야 한다면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간접교육 접근법과 한문교육

간접교육(indirect instruction)은 초기의 미국대학에서 시행되던 사고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즉, 논증의 형식이나 삼단논법, 명제추론 등의 ‘論理’에 기초하는 철학적 틀에 의존하는 구성으로 인하여 교과 내용과 무관한 사고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이유였다.

Hudgins(1978)는 ‘논리적 기능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교과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인지와 적용은 별개의 사실임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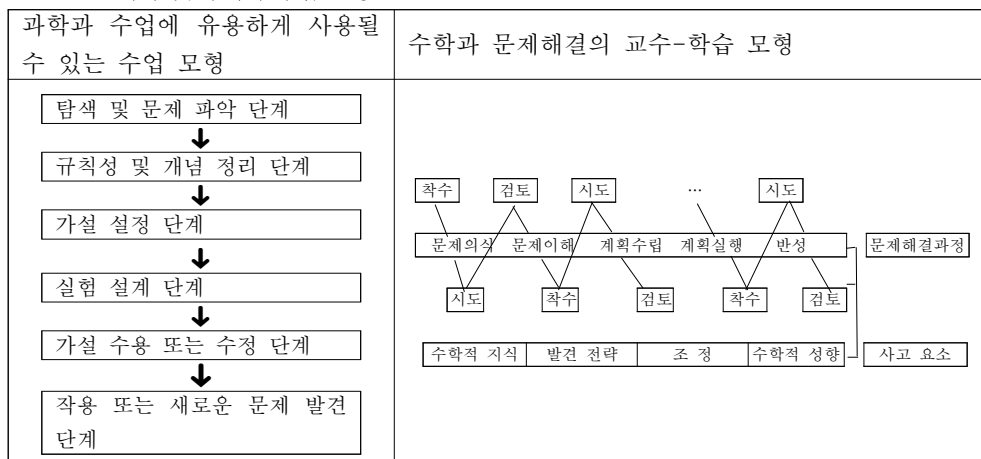
Mcpeck(1981)은 ‘사고란 항상 그 어떤 것에 대한 사고이며 그 어떤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서의 모든 것이 아니라 특수한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하며 비판적 사고력의 핵심요소가 교과에서의 기초적 인지론적 지식이며 비판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교과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16) 차후에 별첨 자료로 첨부.

Clark은 “전통적인 교과와 커리큘럼은 思考力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다.”라고 주장하며 역사·언어·수학·과학 등은 체계화 된 지식체계에기에 체계적인 사고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비록 미국의 12학년제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고력 학습에서의 단계성·점차성·순차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접교육 주장자들은 교과 내용과 사고의 연관성을 중시하여 일반적인 사고의 기능을 경시하였다. 그들은 사고란 반드시 ‘~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과와 분리된 사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사고란 내용 영역별 사고 즉, 각 교과별 사고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교과별로 특수한 사고는 각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길러지며 각 교과를 넘나드는 전이현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능숙한 체스 전문가가 전문영역의 유능한 학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을 예시하였다.(허경철 외, 1990) 이러한 결과 만들어진 자료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별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과, 캐나다 앨버타대학의 ‘효과적인 학습과 사고전략 프로그램(SPELT)’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별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은 국어·사회·과학·수학을 대상으로 교과별 사고력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표] 과학 및 수학과 수업 모형¹⁷⁾



한국교육개발원은 언급한 4개 교과 중 과학과와 수학과와 교과 관련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고력 모형을 설명하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기능에는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교과 관련 사고력 프로그램을 개발한 의도는 학생들의 학습을 내면화 하여 그들 자신의 학습활동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인지적 성취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사고기능이나 사고과정도 영역별 혹은 교과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른 교과나 다른 영역에 걸치는 기본적인거나 일반적인 사고 기능의 활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종합적이거나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분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17) 한국교육개발원(1990), 290·295면.

한 예로, 국어과의 경우는 사고력 신장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유는 문학(문학이론), 언어지식(언어학), 언어기능(수사론)의 3가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는 교과 특성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고력 프로그램은 하나 또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하부 사고 기능과 관련을 맺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와 관련된 또는 교과독립적인 사고력 프로그램에서는 ‘사고능력, 사고기능, 사고과정, 사고전략’ 등으로 구성되는 사고의 일부인 교과 지식을 통한 사고력의 신장을 꾀하려는 것이기에 일반화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시도하면 과부화 된 교과 내용 때문에 사고의 기능이나 방법 보다는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와 주입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면 한문과는 어떨까?

2011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은 ‘독해(읽기·이해), 문화(한자문화,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한문지식(한자, 어휘, 문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2007년 교육과정의 ‘한문’, ‘한문지식’ 영역을 ‘독해’, ‘문화’, ‘한문지식’ 영역으로 수정함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차원의 우리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와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 대해서도 ‘한자문화’와 ‘언어생활과 한자문화’(단, 한문 II의 경우, ‘한문학의 이해’ 추가)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교과적인 것과 교과 외의 일반 언어생활에서의 한자와 한자문화까지 아우르고자 시도한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영역별 내용’을 ‘학교급별 성취 기준(단, 중학교의 경우는 중학교1~3학년군별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 ‘학습내용 성취 기준’ 등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한문교육을 순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한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 구성 내용을 충실히 하려는 자세는 교과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교과 내용의 학습 즉 연습을 통해 사고를 함양할 수 있으며 그것을 고차적인 수준의 인지(meta cognition)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여타 교과와의 전이가 많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어렵다’이다.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한문 교과서는 대단원 아래의 소단원들이 일정한 주제에 연계되어 구성되며 그 체제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고급사고력을 촉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부수적인 읽을거리, 신기하고 재미난 읽을거리 정도로 그 가치가 위축되어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고급화 시킬 뿐만 아니라 한문교과 교육에의 충실을 기하고 여타 교과와의 전이를 높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통합 접근법과 한문교육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은, 근래 인지심리학에서 특수지식분야 내에서의 기능을 가리키는 교과 관련 기능(domain-specific skills)과 초인지기능이나 인지전략 등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영역과 무관한 기능(domain-independent skills)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주목되는 교육법이다.

대표학자인 swartz & perkins는 사고교육이란 보다 미묘한 전략적인 행위이기에,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사고에 대해 이해하거나 사고하려는 태도를 갖거나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인지전략을

18)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교과 내용으로부터 사고를 분리시키는 단순한 접근방법이나 학생들에게 사고하지 않고 단지 사고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방식의 수업도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 전이가 많이 될 수 있는 수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wartz & perkins, 1990, 28-34면. 이해주, 1994, 33면에서 재인용).

Resnick은 인지기능을 전통적인 교과영역에서 가르치려는 노력을 시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그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고 기능들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연적인 지식적 토대와 환경을 제공해 주며 전통적인 교과 영역에서 무엇이 좋은 사고이고, 추론인지를 가르쳐 주는 준거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이가 도달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배우게 한다. 사고력은 특수한 지식에 의존하지만 사고의 다른 많은 면들이 서로 다른 지식의 영역에서 공유된다. 그러므로 사고를 위해서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사고기능(domain-specific skills)과 일반적인 사고기능(domain-independent skills)이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Resnick(1987, 35-46면. 허경철, 1991, 243면에서 재인용).

Clarke는 사고력과 교과 내용을 통합시켜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표상(graphic organizer)의 사용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열거하였다. 즉 감각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의 산만함이 그림표상을 통하여 학생들 상호간의 경험으로 연관된다. 구두로 표현된 단어들은 의미 체계가 부족하여 저장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그림표상은 조직성을 지니기에 내용 관계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림표상은 주관적 사고 과정을 구상화 시키고 객관화 시킨다. 즉 그림표상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들이 제시하는 내용에 관하여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통제력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고급사고력의 신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Clarke, 1990. 이해주, 1994, 34면 재인용).

Clarke - 그림표상을 이용한 교수 모형

1. 주의 집중과 관찰의 단계
• 사고기능: clustering/chunking, 범주화, technique의 탐색, 표집, 도표화
• 교수기법: 자유롭게 써보기, 자유롭게 그려보기, 거미집모형, 연대표 만들기, 도표 만들기
↓
2. 범주와 개념과의 단계
• 사고기능: 특징분석, 개념의 명료화, 비교, 대조, 유추, 변증법적 논리
• 교수기법: 원형도(circle diagram), lapped circle.
↓
3. 명제화 또는 일반화의 단계
• 사고기능: 外傳(abduction), 추론, 일반화, 가정, 오류 검증, 예견
• 사고기법: 귀납적 탑 만들기(inductive tower)

그렇다면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한문교육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2011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중학교의 경우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기초능력과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고 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학습과 생활에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태도,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을 설명하는 중에 ‘단순 암기력 보다는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도구를 개발·활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육이론적인 관점에서

서 풀이한다면 교과 내용에 관한 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교과 외적인 즉 일반 영역과 무관한 고급정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목표라는 말이다. 2011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에서도 단편적인 한문지식 보다는 ‘독해’와 ‘문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영역으로 수정함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차원의 우리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와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문II의 경우, ‘한문학의 이해’가 추가되어 한자에서부터 수준 높은 한문학을 학습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랜 기간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차적이고 순차적인 학습을 통한 사고력 획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높은 학습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상호간의 경험 공유, 내용 관계에 대한 빠른 이해, 교수 내용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사고를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수업 방법을 통해 고급사고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법의 활용이 유효하다 할 수 있다.

4. 맺음말

참고문헌

정재철(2013), 「한문교육과 창의,인성교육 -이론적 기반의 모색」, 『한문교육연구』 40권, 한국한문교육학회.

곽병선(1987), 『사고와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23-40면.

김상호(1965), 「思考力 및 思考의 誤謬와 家庭環境變因의 關係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教育心理專攻, 1965.

정영수(2008), 「맹자의 도덕적 자기수양 -사유 능력(思)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48권, 범한철학회.

성일제(1987),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성일제(1988),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허경철(1989),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허경철(1990),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허경철(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V)」,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1991), 「배우며 생각하며: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동과학연구소·국제연합아동기금(1986), 『사고력을 배운다 : 지능 및 창조력의 발달을 위하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성태제(199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개선 과제」, 『대학교육』 5·6합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朴奉柱(1968), 『自然科 學習指導: 科學的 思考力을 기르는』, 시청각교육사.

Ruggiero, V.R.(1988), 『The art of thinking: A guide to critical and creative thought』, NY: Harper & Row.

「思考力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 탐색」 토론문

윤채근(단국대)

우선 한문교과에서는 다루기 힘든 인지과학 전문용어인 ‘사고능력’ 개념을 어떻게든 교과 발전 문제로 수렴하려 분투해주신 김영주 교수님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논의 성과를 떠나서 이런 시도도 나름 시행착오로서 값진 경험이며, 우리 교과의 현실을 솔직히 자각하고 교과가 처한 상황을 제로 카운트에서 냉엄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집하셔서 설명해주신 서구 인지심리학자들의 이론과 그 기반에 대한 제 나름의 비판적 관점은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도 그들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또 우리 교과에 타당하게 적용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문교과의 문제는 인지심리학이나 뇌 생리학 혹은 발달심리학 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현대 심리학은 16세기 데카르트의 송과선 가설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 인지 기능이 기계적 메커니즘이며 따라서 이를 시행착오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따라서 인격의 종합성과 신비 그리고 그 초월적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만을 과학으로 인정하는 현대의학 모델과 흡사합니다. 이를 인간의 감성적 교감과 문화적 향유 능력에 기반한 인성교과에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될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이 강조하는 사고능력은 본디 육체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행위능력과도 관련됩니다. 나아가 예술적 창조능력과의 긴밀하게 마주하고 있지요. 知行合一, 칸트의 진선미(이성/실천/판단력) 통합을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체적 실존과 도덕적 의지 그리고 미적 판단 없는 사고능력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혹여 존재한다면 병적 존재의 존재형태(인격장애/사이코패스/강박장애)일 겁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안다고 알고 있는 자신의 판단 기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언어로 무한히 재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고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인지심리학을 비롯한 인지과학의 마지막 종착점이 인공지능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문교과가 인지과학이나 이를 토대로 한 주류 서구교육학 이론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고, 받아들이는 점은 없는지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교육을 근간으로 성립한 이 이론체계를 무턱대고 믿거나 따르고자 한다면 그건 우리 교과에 독자적 설 자리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빚습니다. 서구 교육계에서도 인문교육 붕괴를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인문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과학자들이 오히려 예체능을 비롯한 인문교양교육의 증진을 호소합니다. 저는 인간 사고능력은 근육처럼 별도로 단련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와 관련한 소회가 계시다면 피력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 유일한 질문입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공주대학교

이 동 재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李東宰(공주대)

-
1. 서론
 2.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3.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의 현황
 4. 평생교육으로서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5. 결론
-

1. 서론

평생교육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적 발전을 꾀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말한다.¹⁾

이러한 평생교육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연유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8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생교육의 기본이념과 전략이 토의되고 건의서가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시행 2014.1.28.]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1) 장진호(1982), 「평생교육의 이론적 구조」, 『경희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11집, p.144면.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배경은 나날이 발전하는 고도 산업 사회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지식과 정보의 취득이 없는 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의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인간의 노동력 중심에서 기계에 힘을 빌리는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켰고,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을 증대시켰다. 이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단순히 취미나 오락의 활동을 넘어서 보다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재교육의 필요성이 되었다. 이처럼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과 퇴직 이후 생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 교양이나 취미를 배우는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은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의 취득과 같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여가생활과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인문교양으로서 평생교육에 해당한다. 한문교육은 우리나라에 한자가 유입된 이래로부터 20세기 초까지 교육의 중심이었다. 그 이후 제도교육에서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갔지만 全人教育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으로서 여전히 유용한 교육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에 관한 연구는 홍성욱에 의해 사회교육 차원에서 한자·한문교육의 실태와 방송과 신문에서의 교육 실태와 개선방향²⁾이 논의된 이후 金義桓에 의해 대구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개설된 한문강좌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³⁾와 李壽富에 의해 서울과 경기지역 여성회관에 개설된 한문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실재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⁴⁾ 위의 연구는 한문강좌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효용성과 교육 방법의 제시는 매우 미약하였다.

이에 본고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평생교육기관에 개설된 한문강좌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 기관에서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강생들의 여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강좌의 효용성과 그 교육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현대 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의 분화와 변화를 낳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유망하고 안전적이었던 직업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등 직업의 세계

2) 홍성욱(2004), 「사회교육 차원에서 한자·한문 교육의 시대와 과제」, 『한자한문교육』 제1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3) 김의환(2008),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강좌의 실태와 개선방안-대구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4) 이수부(2008), 「평생교육기관의 한문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실재 - 서울 및 경기지역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를 통해 생활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은 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연수나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학교 외의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한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평생교육이란 종래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떠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교육이념이 아니라, 모든 교육 체제가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되어 인간의 전 생애가 학습기간이고 사회의 전체적 공간이 하나의 학습장이 되며, 전 생애를 사회라는 거대한 교육기관에서 보내게 되는 교육이념이다.⁵⁾

평생교육의 주창자인 P. Lengrand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첫째, 현대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대, 둘째, 과학과 기술의 발달, 셋째,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도전, 넷째, 메스컴의 발달과 정보의 급증, 다섯째,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여섯째,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상실, 일곱째, 이데올로기의 위기 등으로 특징을 지우고 있다.⁶⁾ 이러한 복잡한 현대사회에 적응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사회화의 일환으로 평생 동안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여가시간의 활용은 먹고, 마시고, 자고, 성교섭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지만, 현대에는 운동, 여행, 취미생활, 명상, 봉사활동, 자기개발,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취미나 오락적 활동을 넘어서 보다 보람된 일을 통한 자기완성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의 분야는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식,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기술교육, 개인적인 취미 여가교육,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교육, 기타 학교교육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일반교양, 자격취득, 학위취득과정 등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배우는 재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 사회에 적응력을 높여 보다 만족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첫째, 교양, 여가 및 취미, 건강 및 안전, 인간관계, 사회보호, 사회생활 등 생활교육, 둘째, 퇴직대배, 재산 관리 등 지도자 교육, 셋째,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한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생활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으로서의 한자급수 시험과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출발은 고대 사회의 제천의식에서 출발한다. 제천의식은 부족의 전체 구성원이 제사와 가무를 통해 그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구성원들에게 교육시키는 활동을 시켰기 때문에 교육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漢字와 함께 국가의 典章制度의 수입으로 太學과 같은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여기에서 春秋와 같은 儒家의 經傳들이 교육의 내용으로 교육되었다. 이러한 한문 중심의 교육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는 동안에도 교육의 중심이었다. 즉 1446년 한글이 창제되어 반

5) 이혜심(1984),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p. 29면.

6) 이혜심(1984),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p. 24면 참조.

포된 이후에도 교육의 문자적 도구는 한글이 아닌 한자였으며, 교육의 내용도 여전히 儒家의 경전이 중심이었으므로, 한문교육이 교육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근세 이전 한문교육은 가정교육은 물론 서당, 서원, 향교, 성균관 등 제도교육의 중심이었으며, 과거에 급제한 관료나 관직에서 은퇴한 퇴직 관료, 나아가 벼슬을 단념하고 자연에 은거하여 살았던 선비들도 평생 동안 함께 하였던 것이 한문이었다. 1900년대 이후부터는 한문은 그 위상이 과거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인문교양교육이나 서예 등 관련 분야에서 여타의 교양과목 가운데 여전히 꾸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문의 내용이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배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에서 꼭 필요한 全人教育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으로서는 여전히 유용한 교육 중의 하나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문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한문에 대한 지식이나 교양을 습득하는 사람과 직업의 연관성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은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목적을 ‘첫째, 자녀의 한문교육을 돕기 위해, 둘째, 한자급수 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해, 셋째, 한자지도사, 공부방 학습지도 등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넷째, 일어, 중국어 학습의 상승효과를 위해서, 다섯째,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하기 위해, 여섯째, 교양, 지식을 쌓기 위해, 일곱째, 四書三經 등 고전을 읽기 위해서, 여덟째, 漢詩를 짓고 멋있게 음미하기 위해서’ 등이라고 한다.⁷⁾ 이는 한문강좌의 수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교양인으로서의 인격과 교양을 갖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문 교육이 평생 교육으로서 가장 적절한 교육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배우는 재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은 그 역사가 한자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같이 유구하여 20세기 초까지 교육의 중심이었다. 20세기 이후에도 한문교육은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으로서 성인이나 노년층의 여가의 활용과 정서적 안정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유용한 평생교육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3.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의 현황

평생교육은 사람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애주기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교육을 통틀어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즉 전 생애 기간에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건강을 위한 스포츠, 인문학적 소양과 같은 교양, 악기 연주나 油畵와 같은 예술, 유적지답사와 같

7) 김의환(2008), p. 10면 참조.

은 문화, 외국어 능력 개발, 직업능력 개발, 학점 취득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설학원 등과 같이 개인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와 기관은 수효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평생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과 대학에 설치된 평생교육원, 사설학원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평생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료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일부 사설 기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은 한자급수의 자격과 한자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인문교양교육 강좌의 하나로 개설이 된다.

본 장에서는 현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한문강좌를 개설한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성별, 나이, 수강목적 등 여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전시와 충청남도에서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한문강좌를 개설한 기관과 강좌명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연번	기관 명	강좌 명	강좌 시간	비고
1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고학년 사자소학	주 1회(2시간)	천안
2	충청남도 서부평생학습관	생활한자	주 1회(2시간)	서산
3	충청남도 서부평생학습관	어린이 한자박사(8급)	주 1회(2시간)	서산
4	충청남도 서부평생학습관	어린이 한자박사(7급)	주 1회(2시간)	서산
5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초등 한자급수	주 1회(2시간)	논산
6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소학	주 1회(2시간)	논산
7	서산 해미도서관	한문서예	주 1회(2시간)	서산
8	공주도서관	한문교실	주 1회(3시간)	공주
9	공주도서관	한문서예	주 1회(2시간)	공주
10	홍성도서관	직장인 한문서예	주 1회(2시간)	홍성
11	금산도서관	주역과 풍수지리	주 1회(2시간)	금산
12	공주 유구도서관	한문	주 1회(2시간)	공주
13	충남대 평생교육원	한자교육지도사	주 1회(2시간)	대전
14	한밭대 평생교육원	논어	주 1회(2시간)	대전
15	한밭대 평생교육원	명심보감	주 1회(2시간)	대전
16	대전대 평생교육원(둔산)	한문문리 따라잡기	주 1회(2시간)	대전
17	배재대 평생교육원	한자능력급수반(1~3급)	주 1회(2시간)	대전
18	건양대 평생교육원	한자급수자격증 3급	주 1회(2시간)	논산
19	순천향대 평생교육원	논어	주 1회(2시간)	아산
20	춘추서당(공주)	한문교실	주 1회(2시간)	민간단체

위의 <표-1>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과 충남의 평생교육기관에 한문강좌가 개설된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이는 10여년전 한자급수자격증이 열풍이 불어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한자자격증반이 급수 별로 개설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그러나 오락이나 취미와 관련된 강좌나 커피 바리스타 등과 같이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를 제외하고, 그래도 인문교양강좌로서는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좌와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성년이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자급수 시험을 위해 개설한 강좌가 서산의 충청남도 서부 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 한자박사’라는 강좌명으로 2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논산에 있는 충청남도 남부 평생학습관에서 ‘초등 한자급수’라는 강좌명으로 1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대전의 배재대 평생교육원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자능력 급수반’이 1강좌 개설되어 있고, 논산에 있는 건양대 평생교육원에는 ‘한자급수 자격증 3급’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충남대 평생 교육원에는 ‘한자교육 지도사’라는 강좌명으로 1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문강좌는 천안에 있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에 ‘고학년 사자소학’이 개설되어 있고, 논산에 있는 충청남도 남부 평생학습관에 ‘소학’이 개설되어 있으며, 아산의 순천향대 평생교육원에는 ‘논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공주의 공주도서관에는 ‘한문’과 ‘한문서예’ 등 2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공주의 유구도서관에도 ‘한문’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홍성도서관에는 ‘직장인 한문 서예’가 개설되어 있고, 금산도서관에는 ‘주역과 풍수지리’가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대전의 한밭대 평생교육원에는 ‘명심보감’과 ‘논어’ 등 2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배재대 평생교육원에는 ‘한문 문리 따라잡기’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공주의 민간단체인 춘추서당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교실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된 한문관련 과목은 교육기관의 판단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강사가 평생교육기관에 강좌 개설을 요구하면, 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 등에 광고를 내고,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수의 수강생이 모집되면 강좌가 개설된다. 그리고 한문강좌의 개설은 학기별, 혹은 1년 단위로 개설되는 경우가 있고, 개설만 되었다가 수강생이 없거나 부족하여 폐강되는 등 일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좌의 운영시간은 주 1회 2시간을 기본 시수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문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연령과 성별 등 여러 현황을 살펴본다.

이 현황은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한문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성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수강생들은 평생교육기관의 특징처럼 수강의 강제성이 없다보니, 출석률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였다. 그리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여 통계 처리가 매우 어려웠다.

본고의 통계는 대전의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한밭대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 충청남도 공주시립 도서관에서 개설한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 공주에 있는 손수 민간단체인 춘추서당에서 개설한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 설문지는 2014년 5월 10일 부터 5월 30일까지 20여일 걸쳐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설문지는 총 104매로 남자 46명, 여자 5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강생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았다.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50대 이상으로 대부분은

8) 설문지 수거는 충남대 평생교육원 29매, 한밭대 29매, 공주도서관 28매, 춘추서당 21매였으며, 통계처리가 곤란한 3매를 제외하고 총 104매를 통계 처리하였다.

현직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취미나 자기완성을 목표로 평생교육기관을 찾아 한문 강좌를 수강한 것을 보여준다.⁹⁾

둘째, 수강생들의 학력을 살펴보았다.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고졸이 32명으로 31%를 차지하고 있고, 대졸이 60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강생들의 연령이 50대 이상이 90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58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학력 수강생임을 알 수 있다.¹⁰⁾

셋째, 수강생들의 직업과 가계의 월 소득을 살펴보았다. 수강생들의 현재 직업의 유무를 물어보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이 32명으로 31%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이 없는 수강생은 72명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¹¹⁾ 이는 현직에서 은퇴하여 여가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한문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력을 살펴보면 월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이 22명, 400만원 이상이 55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다.¹²⁾ 이는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새로운 직업의 모색보다는 여가를 활용하여 자기개발의 수단으로 한문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수강생들이 한문 강좌를 수강한 기간을 살펴보았다. 한문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들 가운데 한문 강좌를 수강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은 24명으로 23%에 해당하고 3년 이상 오랫동안 한문을 배운 수강생이 56명으로 54%로 절반 이상이 장기간 한문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번 한문 강좌를 수강하여, 강좌에 매력을 느끼면 계속해서 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다섯째, 평생교육기관을 찾은 이유를 살펴보았다. 한문 강좌를 선택한 수강생들은 평생교육기관을 찾은 이유가 자기 개발을 위하여 찾은 사람이 68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찾은 사람이 22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¹⁴⁾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9) 수강생들의 연령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무응답	합계
명	1	10	31	44	11	4	3	104

10) 수강생들의 학력 수준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학력	중졸	고졸	대졸	기타	합계
명	7	32	60	5	104

11) 수강생들의 직업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③ 학생	합계
명	32	72	0	104

12) 수강생들의 경제력 수준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100만 이하	② 100~200만	③ 200~300만	④ 300만 이상	합계
명	3	19	22	55	104

13) 한문 강좌를 수강한 기간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12개월	③ 1년~3년	④ 3년 이상	합계
명	16	8	24	56	104

14) 수강생들이 평생교육 기관을 찾은 이유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수강생들은 직장에서 은퇴한 50대 이상의 고령자와 관련이 깊다.

여섯째, 수강생들이 한문 강좌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한문 강좌를 수강한 이유는 평소 에 한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찾는 경우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한문의 필요성을 느껴서 찾는 경우도 41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¹⁵⁾ 반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찾는 경우는 4명으로 4%에 불과하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재취업이나 전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보다는 여가의 활용과 평소의 취미나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바쁜 직장생활과 일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다가 은퇴후 평소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었던 한문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수강생들의 한문 강좌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현재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 매우 만족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소개하여 동참시키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3 명이고, 칭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5명으로 한문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94%로 매우 높았다.¹⁶⁾

여덟째, 수강하고 있는 강좌의 교재를 살펴보았다.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좌의 교재는 논어를 비롯한 사서육경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통감과 같은 역사서가 28%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격증 교재 였다.¹⁷⁾ 한문강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강좌를 개설한 교육기관마다 다르다. 이는 강좌를 개설한 강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며, 평생교육으로서 한문교육을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아홉째,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만족한다가 41명, 만족한다가 55명으로 92%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만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초학자로서 교재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불만족을 드러냈다.¹⁸⁾ 이는 초학자와 상급자의 구 분이 필요하며, 반을 다르게 구성하여야 함을 시사해준다.

항목	① 자기 개발을 위해서	② 여가 활용을 위해서	③ 재취업 및 새로운 직업의 선택을 위해	④ 자녀(손)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 기타	합계
명	68	22	6	8		104

15) 한문강좌를 선택한 이유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자녀(손)의 한문지도를 위해서	② 일상생활에서 한문의 필요성을 느껴서	③ 평소 한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④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⑤ 기타	합계
명	6	41	50	4	3	

16) 한문강좌에 대한 만족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소개하여 동참시키겠다.	② 좋다고 칭찬하겠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따분하다고 하겠다.	합계
명	53	45	1	5		

17) 강좌의 교재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논어 등 사서육경	② 통감 등 역사서	③ 사자소학 등 초학교재	④ 자격증 교재	⑤ 기타	합계
명	43	29	7	14	11	

18)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만족도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리고 이들 수강생 가운데 한자나 한문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명이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86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다.¹⁹⁾ 이는 이들이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거나 전직을 위하여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보내는 방편으로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로 고학력과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의 취득을 통한 직업의 전직보다는 은퇴 후에 생긴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한문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재의 선택과 내용은 강사에 따라 달랐으며, 만족도는 수강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짧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성격과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야 함을 시사해준다.

4. 평생교육으로서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1) 한문교육의 효용성

평생교육은 인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활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실천하는 과정이지만 주로 직장에서 은퇴한 노령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기개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의 주대상자는 직장에서 은퇴한 노령자가 주요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대와 같은 사회적 요인 이외에도 평생교육학습자 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적 특성, 즉 학습자의 요구와 발달과업상의 특성 등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평생교육으로서 한문교육의 성패는 각 개인, 즉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 학습 능력과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에 달려있다. 즉 한문을 배우고자하는 동기 유발과 함께 배움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주지시키는 것이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용성을 살펴본다.

한문교육의 효용성은, 첫째, 지적활동에 따른 심신의 안정감을 주어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항목	① 아주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명	41	55	7	1	

19) 수강생들의 한문관련 자격증 유무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합계
명	18	86	104

노인은 첫째, 생물학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신건강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8%로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²⁰⁾

한문교육은 정신 건강에 매우 유용하다. 한문은 영상성이 뛰어나서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으며 손으로 한문을 써보며 익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노화에 따른 뇌세포의 활동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신활동이 된다.

둘째, 사회성의 발달로 구성원들 간에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사회적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양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으며,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 강좌를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년층들이다. 이들은 한문을 통해 유가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및 동양의 전통사상에 대한 이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²¹⁾

한문의 내용이 용서, 배려, 관용 등 자아를 성찰하고 남을 배려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자아를 성찰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격의 수양과 가치관의 형성은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타인과의 교류 등 상호작용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를 통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한다.²²⁾

셋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의 전승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전통문화는 한 민족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대로 전래되어서 공유하는 문화를 말한다. 즉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 전통을 잃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풍속·사상·음식·음악·주거·학문 등을 전통문화라고 한다.

한문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강좌를 듣고 도움이 된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니, 수강생들의 39%가 전통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²³⁾

20) 이정복(2003), p.19면 참조.

21) 한문을 배우면서 관심을 둔 사람들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한 자 의 음과 뜻	② 한문의 독해	③ 사상과 교훈의 이해	④ 한국 및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⑤ 남을 배 려하는 마음 인격의 등 수양	⑥ 기타	합계
명	27	20	33	7	16	1	

22) 이정복(2003), p.3면 참조.

23) 한문강좌를 듣고 도움이 된 점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자녀(손) 에 대한 지도	② 자격증의 취득	③ 전통문화 에 대한 다양 한 상식	④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이해	⑤ 인격의 수양	⑥ 기타	합계
명	5	2	41	15	39	1	

한국의 전통문화는 크게 정신문화, 유형문화, 생활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한문교육은 정신문화, 즉 세시풍속이나 孝悌忠信과 같은 윤리사상, 친족간의 관계 등의 이해에 매우 많은 관련이 있다. 또한 유형문화인 典籍이나 건축물, 조각·공예품 등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처럼 한문교육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유한 문화를 공유하게 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넷째, 독서와 신문 읽기와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강좌를 듣고 도움이 된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니, 수강생들의 14%가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²⁴⁾ 이는 한문 교육이 독서와 신문읽기와 같은 실생활에도 매우 유용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실 우리말에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퍼센트 이상이고, 한자어는 생활어 보다는 문화어에서 많이 활용되므로, 신문이나 책에 나오는 어휘는 주로 한자어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녀(손)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예전과 다르게 맞벌이 가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외가나 친가의 (외)할머니들이 육아와 교육을 도맡아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자녀(손)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일은 단순히 먹을 것과 안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의 등하교, 과제물의 검사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의 지도, 바른 인성과 생활습관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문교육은 자녀(손)들의 교과지도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때문에 자녀(손)교육에 매우 유용하다.

여섯째, 중국어와 일본어의 학습에 유용하다. 주지하듯이 중국어는 간화자이지만 간화자도 기본적으로 번체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한자를 이해하면 간화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다가나가 한자가 아니지만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한자로 기록해 놓고 읽을 때에 일본어로 읽기 때문에 한자의 이해는 일본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의 창의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전인적인 발전을 계속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인간의 욕구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건강이고, 다음은 물질적 풍요, 마지막으로 자아 만족감으로서 문화와 여가, 사회 참여 등의 욕구이다.

즉 한문교육은 노년기에 있어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의 교류 등의 상호작용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여 결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여가생활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한 독서와 신문읽기에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의 바탕이 되며, 자녀(손)교육에 있어서도 지적, 인성적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된다.

(2) 효율적인 교육방안

학습자는 그들의 배경적 특성과 경험, 처해 있는 상황이 각기 달라서 학습 참여 동기나 학습욕구가

24) 주17번 분포표 참조.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모든 학습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교육내용의 측면,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 교육행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 내용적 측면을 살펴본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한문을 통해 유가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및 동양의 전통사상에 대한 이해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한자의 다양한 뜻의 이해, 남을 배려하는 인격의 수양 등에 관심이 많았다.²⁵⁾ 또한 실생활에 활용되는 한자어휘, 한자의 이해를 위한 친절한 설명, 干支 등 전통문화에 대한 보충 설명 등 교재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을 수강생들이 요구하고 있었다.²⁶⁾ 이는 한문 강좌를 개설하는데 내용적인 측면과 교재의 구성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를 반영한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교재의 내용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사상의 이해와 남을 배려하고 신뢰하며, 관용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논어와 명심보감 같은 전통교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속담과 격언 등 인격 수양의 내용에다가 현대 사회가 필요한 덕목과 가치관이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재구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자기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내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은 남녀가 평등하고, 직업의 귀천과 구분이 없는 시대에 ‘男女有別’과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예뻐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士爲知己者死, 女爲悅己者容)’는 내용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둘째, 현대의 실생활과 연계한 학습 내용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한문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였고, 현대인들은 농경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문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앞으로도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농경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호기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²⁷⁾ 그러므로 이들에게 한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墨守보다는 法古創新의 정신으로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전통예절과 관련한 내용인 관혼상제, 호칭법, 촌수, 제사 등에 관한 내용을 교재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가족은 부모와 2인 이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

25) 이에 대한 선호도 분포는 주21)번 참조.

26)한문강좌의 보충 내용 선호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격언과 속담 등 인격 수양 내용	② 한자문화에 대한 이해	③ 干支 등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④ 실생활에 활용되는 한자 어휘	⑤ 한문과 한시의 작법의 이해	⑥ 기타
명	31	21	9	27	13	1

27) 이동재(2013), 「한문 학습 字典 수록 한자의 대표 字義 및 의미항 선정과 조직」, 『漢文教育研究』 제4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p.171명 참조.

사회와 거리가 멀어서 4촌이나 6촌이라는 촌수의 개념이 실생활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친족간의 호칭법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통예절을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가정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통예절을 한문교육의 내용 요소로 반영하여 교육시킨다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넷째, 학교 교육과 연계시켜 교재를 구성하여야 한다. 평생학습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정규 학습과정의 연장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과 연계시킨다면 학습의 연장이 되므로 한문의 이해가 심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문 강좌의 수업은 주로 강사의 강의식 수업 중심이었으며, 간혹 수강생들이 돌아가며 읽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윤독식 수업으로 이루어졌다.²⁸⁾ 이는 한문 수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현대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교수학습 매체도 매우 다양화 되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영상성이 매우 뛰어나므로 컴퓨터와 같은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성을 살려서 지도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설문에 응한 수강생들은 한문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강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적의 답사와 학습자의 수준을 배려한 강좌의 개설, 교육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²⁹⁾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첫째, 한문강좌를 개설할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강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동(면)사무소 회의실 등의 공간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한문강좌를 개설할 강사가 거의 없어 한문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사의 확보는 한문에 정통하고 교수경험이 많은 퇴임 교수와 교사, 그리고 현직에 있는 교수와 교사들의 자원봉사자로 인재풀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강좌의 수준과 내용별로 다양화하여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강사의 수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도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로 확보한 강사들의 헌신적인

28)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좌의 수업형태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강의식 수업	② 윤독수업	③ 시청각 교재 수업	④ 문제 풀이 형식	⑤ 기타
명	93	9	0	2	

29) 한문 강좌의 활성화를 위한 선호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① 교적답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확충	② 학습자의 수준별 강좌 개설	③ 교육시설의 확충	④ 강사의 질적 향상	⑤ 기타
명	41	45	8	2	3

노력을 필요로 한다.

셋째,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의 구성과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요즈음은 인터넷시대이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강의하는 여러 한문 강좌는 거의 교수자의 설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습자가 반복 시청을 통하여 학습내용 습득이 가능하다. 이를 보완하여 세분화하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고, 한자의 字義 등을 링크하여 놓으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을 위한 전국단위의 연합체를 구성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을 위한 전국단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공통의 다양한 교재를 만들며, 교수법 등을 공유하면 한문강좌의 다양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목적은 자기완성에 두고 계속 변화해 가는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습득, 갱신, 증진시키는 것이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 방안은 먼저, 명심보감과 같은 전통교재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인격 수양을 기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하며, 여기에 전통예절 등을 포함한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게 강좌의 수준과 내용별로 다양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의 구성과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을 위한 전국단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교재를 만들고, 교수법 등을 공유하여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평생교육기관에 개설된 한문강좌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 기관에서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강생들의 여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강좌의 효용성과 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는 학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위해 배우는 재교육을 의미한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새롭게 등장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은 그 역사가 한자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같이 유구하여 20세기 초까지는 교육의 중심이었다. 20세기 이후에도 한문교육은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으로서 성인이나 노년층의 여가의 활용과 정서적 안정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유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된 한문관련 과목은 교육기관의 판단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강사의 요구에 의해 강좌가 개설된다. 그리고 한문강좌의 개설은 학기별, 혹은 1년 단위로 개설되는 경우가 있고, 개설만 되었다가 수강생이 없거나 부족하여 폐강되는 등 일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강좌의 운영시간은 주 1회 2시간을 기본 시수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문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로 고학력과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의 취득을 통한 직업의 전직보다는 은퇴 후에 생긴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한문 강좌를 수강한다. 또한 교재의 선택과 내용은 강사에 따라 달랐으며, 만족도는 수강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짧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의 창의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전인적인 발전을 계속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교육이다. 즉 한문교육은 노년기에 있어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의 교류 등의 상호작용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독서와 신문읽기의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의 바탕이 되며, 자녀(손)교육에 있어서도 지적, 인성적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된다.

평생교육의 목적은 자기완성에 두고 계속 변화해 가는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습득, 갱신,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을 위한 교재의 내용 구성은 전통사상의 이해와 남을 배려하고 신뢰하며, 관용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속담과 격언 등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즉 자기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내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한문 강좌 수업은 주로 강사의 강의식 수업 중심이었으며, 간혹 수강생들이 돌아가며 읽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윤독식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한문 교수학습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컴퓨터와 같은 교육매체를 활용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한문강좌를 개설할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강사의 학보가 필요하고, 강좌의 수준과 내용별로 다양화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의 구성과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을 위한 전국단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교재를 만들고, 교수법 등을 공유하여야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두승(2002), 『성인학습 지도방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의환(2008),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강좌의실태와 개선방안-대구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이동재(2013), 「한문 학습 字典 수록 한자의 대표 字義 및 의미항 선정과 조직」, 『漢文教育研究』 제4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이수부(2008), 「평생교육기관의 한문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실재 - 서울 및 경기지역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 이정복(2013), 「평생교육이 노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
- 이혜심(1984),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홍성욱(2004), 「사회교육 차원에서 한자·한문 교육의 시대와 과제」, 『한자한문교육』 제1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설문지】

한문강좌 실태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한문관련 과목을 선택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한문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성해 주신 자료는 반드시 연구 목적에만 활용될 것이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0일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자 올림

응답자 특성	
Q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Q2. 연 령	만 () 세
Q3. 학력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이상() ④ 기타()
Q4. 직업	① 있다 ② 없다 ③ 학생
Q5. 가정의 수입	① 100만 이하 ② 100~200만 ③ 200~300만 ④ 300만 이상
Q6. 한문을 배운 기간은?	① 6개월 미만 ② 6~12개월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Q7. 한문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자격증:) ② 아니오
Q8. 지금까지 배운 교재 를 모두 써 주십시오.	

한문에 대한 인식과 참여 동기

※ 각 문항의 해당란에 ‘O’ 표 또는 ‘V’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평생교육 기관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기 개발을 위해서
- ② 여가 활용을 위해서
- ③ 재취업 및 새로운 직업의 선택을 위해
- ④ 자녀(손)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⑤ 기타 ()

Q2. 귀하께서 여러 강좌 중 한문강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녀(손)의 한문지도를 위해서
- ② 일상생활에서 한문의 필요성을 느껴서
- ③ 평소 한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 ④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 ⑤ 기타 ()

Q3. 한문을 배우면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한자의 음과 뜻
- ② 한문의 독해
- ③ 사상과 교훈의 이해
- ④ 한국 및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 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 인격의 수양
- ⑥ 기타()

Q4. 한문강좌를 듣고 도움이 된 점은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녀(손)에 대한 지도
- ② 자격증의 취득
- ③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상식
- ④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이해
- ⑤ 인격의 수양
- ⑥ 기타()

Q5. 수강하고 있는 한문강좌를 이웃이나 친지에게 소개하시겠습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소개하여 동참시키겠다.
- ② 좋다고 칭찬하겠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따분하다고 하겠다.

Q6.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좌의 교재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논어 등 사서류
- ② 통감 등 역사서
- ③ 사자소학 등 초학교재
- ④ 자격증 교재
- ⑤ 기타()

Q7.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주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Q8. 한문 강좌의 내용은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논어 등 철학서
- ② 통감 등 역사서
- ③ 소학 등 초학 교재
- ④ 한자에 대한 기원과 짜임
- ⑤ 기타()

Q9. 한문강좌의 내용을 보충한다면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격언과 속담 등 인격수양 내용
- ② 한자문화에 대한 이해
- ③ 干支 등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 ④ 실생활에 활용되는 한자 어휘
- ⑤ 한문과 한시의 작법의 이해
- ⑥ 기타()

Q10. 한문강좌의 보충하여 개설한다면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순위를 써 주세요)

- ① 논어 ② 맹자 ③ 고문진보 ④ 시경 ⑤ 서경 ⑥ 주역 ⑦ 천자문 ⑧ 명심보감
- ⑨ 소학 ⑩ 사기 ⑪ 우리나라 역사서 ⑫ 두보의 시를 비롯한 한시
- ⑬ 여러 내용을 발췌한 교재 ⑭ 채근담과 같은 교훈서 ⑮ 기타

Q1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좌의 수업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강의식 수업
- ② 윤독수업(수강생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풀이함)
- ③ 시청각 교재 수업
- ④ 문제 풀이 형식
- ⑤ 기타()

Q12. 귀하가 원하는 수업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강의식 수업
- ② 윤독수업(수강생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풀이함)
- ③ 시청각 교재 수업
- ④ 문제 풀이 형식
- ⑤ 기타()

Q13. 한문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고적답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확충
- ② 학습자의 수준별 강좌 개설
- ③ 교육시설의 확충
- ④ 강사의 질적 향상
- ⑤ 기타()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토론문

김창호(원광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평생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문이 논쟁적 성격의 글이 아니며 한문교육 종사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에서, 행간에 담긴 선생님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몇 가지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첫째, ‘효용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론 끝 부분의 서술을 볼 때, ‘효용성’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4. (1) 한문교육의 효용성’에서 열거된 항목을 보면, 이때의 ‘효용성’은 현황 분석에 의거한 것도 있지만 주로 한문학 내용 일반에서 전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효용성’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용성’이라는 개념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한문학 내용이 담고 있는 가치, 사상, 정서 등을 시대 변화, 노년의 심리, 욕구, 행동 특성 등과의 관계선상에서 논할 성격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이 의도하고 있는 ‘효용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 (2) 효율적인 교육방안’의 ‘교육내용적 측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술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주로 교육내용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내용의 핵심에 대해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전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 수용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 생각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의 예로 인용한 “士爲知己者死, 女爲悅己者容”은 오히려 이월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학습 자료로 이용할 만하지 않을까요? 보기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士’와 ‘爲知己者’, ‘女’와 ‘爲悅己者’ 사이의 관계의 속성-믿음, 신의 등-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발표자는 ‘(2) 효율적인 교육방안’으로 ‘교육내용의 측면’,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 ‘교육행정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의 측면’,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자료의 형태’(원전/직역 번역문, 의역 번역문/번역문을 가공한 글)도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강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로 한문고전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어법을 익혀가는 과정을 통해 원전의 깊은 맛을 느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강자의 여건에 따라 자료의 형태가 다르게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한문교육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수강 의도, 수강 기간, 수강자의 연령이나 학력 등과 관련하여 자료의 형태, 범위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기획주제 발표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강원대학교

안 세 현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안세현(강원대)

-
1. 문제 제기
 2. 한문 작문론의 활용
 - 1) 작문의 요결: 意·法·氣
 - 2) 작문의 실제: 착수와 퇴고
 3. 한문산문과 현대적 글쓰기의 연계
 - 1) 策文과 논술문
 - 2) 自薦書·自撰墓誌銘과 자기소개서
 4. 남은 과제
-

1. 문제 제기

본고는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서 한문 교육이 지니는 효용성을 밝히고, 그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글쓰기 교육에서 한문 교육의 효용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한문과가 자체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확고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다른 교과에 의존해서라도 한문과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한문과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다른 교과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문교육을 글쓰기 교육과 연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의 현재적 필요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른 교과와의 연계 방법이나 대중과의 소통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자나 한문 고전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한자 학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 교양 강좌에서 한문 고전에 대한 강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문 교육에서 ‘효용성’을 운운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육 시스템 역시 자본-시장의 원리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용성은 현세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곧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문 교육이 과연 이런 식의 ‘효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효용성의 잣대로, 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이나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에서 한문과는 퇴출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효용성이란 대수능 점수 반영과 취업률(중등교사 임용률)일 따름이다. 이는 비단 한문과만의 문제는 아니며 인문학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문 교육과 달리 글쓰기 교육은 자본-시장 원리라는 세파에 빗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등교육에서 통합논술을 강화하거나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을 필수로 지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사고와 표현’의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올리려는 실용적 목적이 강하다. 때문에 대학 입학이나 기업 입사를 위한 수사적·형식적 측면의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진정 쓸모가 있는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기초적 역량을 내실 있게 배양하여 영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에서 한문교육의 효용성은 자본-시장 원리에 따른 효용성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인문학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글쓰기 교육을 전환하는 것이다. 곧 오늘날 글쓰기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본연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한문 고전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문을 글쓰기 교육과 연계시키는 시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한문의 전통적인 작문 이론을 현대적 글쓰기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대적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한문의 서술방식이나 수사법을 제시하고 글쓰기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하였다.¹⁾ 둘째, 한문산문의 특정 문체를 현대적 글쓰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책문이나 논변류 산문을 활용한 논술문 작성이 대표적인 예이다.²⁾

이상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 역시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현대적 글쓰기에 참고할 만한 한문 작문론을 소개한다. 실제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1) 주요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철범(2005),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 이조후기 古文論을 대상으로」,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배수찬(2005), 「한문 글쓰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 연구」,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심경호(2007), 「한문산문 수사법과 현대적 글쓰기」, 『작문연구』 5, 한국작문학회; 박수필(2009), 「한문산문의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고찰」,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송병렬(2010), 「한문산문의 서술방식과 수사법에 대한 교육적 활용 연구」,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 주요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병현(1996), 「羅世纘의 策文과 논술의 전통」, 『어문논집』 6, 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조희정(2002),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권유은(2007), 「高等學校 『漢文』 論辨類 指導를 통한 論理的 思考力 伸張 方案」, 경북대 석사논문; 권혁진(2007), 「통합 교과형 논술과 한문 수업」, 『한자한문교육』 19,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장미희(2007), 「說 문장의 서술 방식을 통한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박민환(2009), 「한문고전을 활용한 고등학교 논술수업모형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박미정(2011), 「과정중심모형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說」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최일순(2011),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孟子』 출전 본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강미향(2012), 「한문산문을 통한 통합논술 지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한초롱(2012), 「전통 글쓰기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조선시대의 策問과 對策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한문산문의 특정 문체와 현대적 글쓰기의 연계이다.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글쓰기는 논술문과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이에 策文과 논술문, 自薦書自撰墓誌銘과 자기소개서의 연계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문 작문론의 활용

애국계몽기의 새로운 문체인 국한문체는 신문과 잡지라는 근대적 매체를 위주로 보급되었으나, 실상은 전근대 한문전통을 많이 응용한 형태였다. 1910년대에는 한문 고전에 근거한 규범적 글쓰기에서 벗어나 대중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지향이 강하였으나, 여전히 작문의 실천과 교육에서 한문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다.³⁾ 그러나 이후로 작문 교육에서 한문 고전은 더 이상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단적으로 이태준이 1940년에 출간한 『문장강화』를 보면, 한문 번역문을 예문으로 사용한 것이 다소 보이기도 하나, 거의 모든 예문은 한글로 쓴 문장으로 채워져 있다. 『문장강화』에 보이는 한글 예문의 풍부함은 신문학 20년이 도달한 우수한 성과를 집결해 놓았다 할 것이다.⁴⁾ 필자 역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문의 작문론과 관련해서 들어본 것이라곤 推敲 고사와 구양수의 三多(多看·多做·多商量)가 전부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글쓰기 교육에서 한문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말과 한문은 어휘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통사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또한 한문 문장이 지니고 있는 대구와 전고의 다용은 형식적 수사가 강하여 알맹이 없는 글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글쓰기는 단순히 어휘를 모아 문장을 만드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는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이를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 글쓰기는 작자가 지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련의 사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지적 작용인 것이다.⁵⁾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언어 표현’이나 수사법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작문 이론의 모태가 되었던 서구의 전통 수사학(rhetoric)은 ‘착상-배열-표현-암기-발표’의 5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흔히 수사학 하면 각종 수사법을 떠올리고 겉만 그럴 듯하게 꾸며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5대 분야 중에서 ‘표현’을 측면을 수사학의 전부인양 오인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⁶⁾ 글쓰기는 단순히 ‘언어 표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 전근대 한문 작문론에서 오늘날 글쓰기에 활용할만한 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임상석(2008), 「1910년 전후의 작문교본에 나타난 한문전통의 의미」,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9-10면.

4) 임형택(1988), 『『문장강화』 해제』, 『문장강화』, 창작과비평사, 4면.

5) 박영목 외(2012),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I』, 천재교육, 38면.

6) 이런 오해는 수사학 발생 초기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소피스트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이 한 예이다. 수사학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는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참조.

1) 작문의 요결: 意氣法

조선후기의 문장가 趙龜命(1693-1737)은 작문의 요결로 다음과 같이 意氣法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⁷⁾

작문의 요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意와 氣와 法이 그것이다. 意로 글을 채우고 氣로 이끌어 가며 法으로 꾸민다. 意는 글의 장수이며, 氣에 올라타서 法에서 완성된다. 이런 까닭으로 意가 글의 근본이자 중요한 것이며, 法은 글의 말단이자 가벼운 것이다.⁸⁾

意가 작가가 글 속에 담고자 하는 이념·주장·정서 등의 의미 실질이라면, 氣는 작가의 내면에 온축되어 있다가 창작 과정에서 발동되어 감상자에게까지 감수되는 작가의 정신역량 및 文勢, 美感까지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며, 法은 이러한 意와 氣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창작과정에서 준수·선택·운용하는 여러 층위의 준칙 및 수사법이라 할 수 있다.⁹⁾ 조귀명을 비롯한 대개의 문장가들은 意와 氣가 보다 본질적이고 法은 이에 따르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좋은 글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상보적인 관계로 존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意가 글에서 장수이긴 하지만, 法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적 측면에서 意와 氣는 학습하기 어려우나, 法은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조귀명은 意는 識見과 解悟라고 하였는데¹⁰⁾, 이는 글 쓰는 주체가 경험과 학문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적인 깨달음의 영역이다. 곧 意는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創意, 새로운 의미를 생성·구성하는 것이다. 氣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성적 면모이다. 氣는 두 가지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창작 주체의 내적 역량과 이것이 글을 통해 구현되는 文勢와 語勢이다. 氣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나, 후천적인 배양 역시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기를 배양하는 방법으로 맹자의 浩然之氣와 사마천의 기상을 거론하였다.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깎 차 있는 크고 바른 기운으로 義를 축적하여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사마천의 호방한 기상은 명산대천을 周遊한 데서 획득된 것이다. 맹자와 사마천의 기는 각각 『맹자』와 『사기』에 구현되어 있다. 때문에 문장가들은 文氣를 배양하기 위해 『맹자』와 『사기』를 많이 읽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문장가 역시 意와 氣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며, 남에게 전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에서 法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字法·句法·章法·篇法’이란 말이 있듯이, 법에는 어휘 선택, 문장 배열, 단락 전개, 서술 기법, 문체 구사 등 다양한 층위가 있다.

7) 김철범은 조선후기 고문론의 글쓰기 이론을 ‘達意論, 法度, 文氣’ 세 가지로 논의하였다. 김철범(2005), 87-99면.

8) 趙龜命, 「答林姪彦春(象元)書」, 『東谿集』 卷10, 충간215, 217면. “作文之訣有三, 曰意曰氣曰法. 意以實之, 氣以行之, 法以飾之. 意者, 文之師也, 駕乎氣而成乎法. 是故意爲之本而重, 法爲之末而輕.”

9) 송혁기(2006),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4면.

10) 趙龜命, 「答林彦春書」, 『東谿集』 卷10, 충간215, 217면. “夫見識悟解謂之意, 繩墨規矐謂之法.” 조선후기 문장론에서 ‘見識’에 관한 논의는 김철범(2003), 「이조후기 산문론에서 ‘見識’의 문제」, 『한문학보』 9, 우리한문학회 참조.

법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글쓰기 맥락을 고려한 적절한 文體의 선택이다. 한문산문에서 말하는 ‘문체’는 서구 문예이론의 장르(genre)와 스타일(style)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墓誌銘’이란 장르로 글을 쓸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스타일을 구사해야 한다는 식이다. 安錫儼(1718-1774)은 『藝學錄自序』에서 글의 구성 요소로 意·體·法·辭氣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體·法·辭는 조귀명이 말한 바 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안석경은 제시한 ‘體’가 곧 문체의 선택이며, 法은 단락 전개, 辭는 어휘 선택에 해당된다.

문의 쓰임은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 크고 작으며, 가깝고 소원하며, 멀고 가까운 사이에 관계되며, 올리며 應待하며 깨우치고 훈계하고 稱揚하고 기술하며 褒貶하고 의론하는 데에 따라 다르다. 그 體貌가 각기 마땅한 바가 있으니, 정연하여 옮기거나 바꿀 수 없다.¹¹⁾

‘體貌’는 바로 ‘體’를 말한다. 글을 쓸 때에는 예상되는 독자, 글을 쓰는 상황, 글을 쓰는 구체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글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독자를 고려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쓰고자하는 내용 못지않게 글을 쓰는 맥락 역시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단락 구성이나 논지 전개 방식, 곧 篇章法을 주목할 만하다. 여러 편장법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① 主客法¹²⁾

‘主’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이며, ‘客’은 주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구체적인 사실, 사건, 이치 등을 가리킨다. 주객법은 客의 요소를 통해 主의 요소를 부각하고 돋보이게 하는 방법인데, 主와 客이 하나씩 있는 경우, 主와 客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하나의 主와 여럿의 客이 있는 경우가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당나라 韓愈의 「送孟東野序」에서 主가 되는 것은 孟東野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堯舜 시대의 皐陶와 禹로부터 孔子와 孟子, 老子와 莊子, 司馬遷과 司馬相如 등 여럿의 客을 거론하였다.

② 抑揚法¹³⁾

‘揚’은 인물·사건·경물·이치를 추켜세우는 것이며, ‘抑’은 이와 반대로 인물·사건·경물·이치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먼저 추켜세우고 뒤에서 낮추거나 이와는 반대의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논리와 기세를 강화시키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당나라 韓愈의 「與孟尚書書」는 맹자가 양주·목적을 물리침으로써 聖道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한유는 맹자가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양주를 배척한 것이空虚에 그쳤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맹자를 낮추었다가(抑), 그래도 맹자의 주장이 오늘날까지 영

11) 安錫儼, 「藝學錄自序」, 『雪橋集』(하), 아세아문화사, 1986, 377면. “文之爲用, 在於尊卑·大小·親疎·遠近之間, 敷奏應對·告諭戒飭·稱揚記撰·褒貶議論之際, 其爲體貌, 各有所當, 井井乎不可移易.”

12) 主客法은 정우봉(2004), 「한문수사학 연구의 한 방법: 主客法의 이론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63-84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3) 억양법을 비롯한 상략법은 馮永敏(1998), 『散文鑑賞藝術探美』, 臺北: 文史哲出版社, 205-207면을 정리한 것이다.

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며 추켜세웠다.(揚) 그렇지만 大經大法이 모조리 사라지고 지극히 일부만 남았을 뿐이라며 다시 낮추었다가(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없었다면 온통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니 공로가 크다며 추켜세웠다.(揚)

③ 詳略法

글에서 중점이 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지엽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史記』「廉頗藺相如列傳」은 인상여가 화씨벽을 가지고 秦나라로부터 趙나라로 무사히 돌아온 일, 인상여가 조나라 惠文王을 수행하여 滌池에서 진나라 昭王을 만난 일, 염파와 인상여가 서로 화해하고 刎頸之友를 맺은 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마천은 인상여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인상여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부각시킨데 반해, 염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主客法는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부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글쓰기 모두에 활용할 수 있다. 역양법은 논술문처럼 상대방의 논지를 꺾고 자신의 주장을 설하는 논증적인 글에, 상략법은 자기소개서처럼 자기 삶이 특징적 국면을 강조하기 위한 서사적인 글에 효과적일 수 있다.

2) 작문의 실제: 착수와 퇴고

글쓰기는 대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표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긴밀하게 상호 작용한다. 또한 머릿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 머릿속에서 글의 주제, 단락 배치, 문장 표현이 결코 완수될 수 없으며, 실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의 주제와 논리가 명료해지고 정교해진다.

그런데 글쓰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보면, 생각이 명료하게 정교해질 때까지 착수를 하지 못하거나 착수를 하였더라도 단락 구성이나 문장 표현 등에 신경을 써서 주제와 논리를 흘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조선말기의 문장가였던 李建昌(1852-1898)의 글쓰기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

대개 글을 지으려면 반드시 먼저 意을 구상해야 한다. 意에는 首尾가 있고 問架(구조)가 있는데, 수미가 대략 갖추어지고 간가가 어느 정도 타당하게 되면, 곧바로 붓을 내달려 써내려 간다. 다만 意가 연결되어서 서로 관통하게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어조사라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글자를 쓸 겨를이 없으며, 저속한 말 따위를 피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正意를 잃어버려서 말하려고 했던 것을 글에 담아내지 못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¹⁵⁾

이건창의 본의는 辭보다 意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이는 조귀명도 언급한 것이며, 오

14) 조상우는 이견창의 「答友人論作文書」를 글쓰기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조상우(2007), 「이견창의 <答友人論作文書>를 통해 본 글쓰기 전략」,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15) 李建昌, 「答友人論作文書」, 『明美堂集』 卷8, 총간349, 120면. “凡爲文必先構意. 意有首尾有問架, 首尾粗具, 問架粗當, 卽疾筆寫之. 但令聯續相貫通, 了了易曉, 不暇用語助等閑字, 不暇避俗俚語, 恐亡失正意, 所欲言者, 不載也.”

늘날의 작은 교과서에서도 흔히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머릿속의 意를 실제 종이 위의 문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견창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조와 전개 방식이 정해지면, 문장이나 어휘 따위에 구애받지 말고 곧바로 글을 써 내려가야 한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구상한 주제와 논리가 ‘대략’ 갖추어졌다면, 이를 명료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글로 구현하는 것이다. 어휘나 문장은 나중에 다듬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견창은 또한 퇴고에 대해서도 활용한 만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좋은 글은 결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었을 때 친구가 와서 며칠 만에 지었느냐 묻자, 소동파는 단번에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동파가 밖으로 나간 뒤에 보니, 자리 밑에 여러 날을 두고 고치고 고친 초고가 한 삼태기나 쌓여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한다.¹⁶⁾ 글은 여러 번 고칠수록 좋아지는 것은 진리이다. 그럼 이견창이 제시한 퇴고의 방법을 보자.

(글이 완성되면) 이를 우선 상자에 던져 넣어두고 눈에 띄지 않게 한다. 또 가슴속에서도 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씻어내고 지워버려서, 마음속에 떠올려서는 안 된다. 하루 혹은 이삼일 정도 지난 후에 쓴 글을 다시 가져다 살펴본다. 이 글을 아끼는 마음이 누그러지게 한 뒤에 마치 다른 사람이 지은 글처럼 본다면, 옳은 것은 곧바로 옳음을 보게 되고 그른 것은 곧바로 그름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른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¹⁷⁾

퇴고는 단순히 자구를 수정하는 언어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이 참으로 창의적인 것인지, 혹은 논리상의 허점은 없는지, 단락 구성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나면, 누구나 뿌듯함을 느끼며 자기 글에 대해 애정을 가지기 마련이다. 또 글을 쓰는 동안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깊이 몰입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곧바로 퇴고를 한다면, 퇴고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에 이견창은 글이 일단 완성되면 여러 날 문서 상자에 넣어두고 다시 보지 않으며, 마음속에서도 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권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신이 쓴 글이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글처럼 여겨질 때, 곧 자기 글에 대한 객관적 거리가 확보되었을 때 퇴고를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16) 이태준, 『문장강화』, 창작과비평사, 1988, 191면.

17) 이견창, 앞의 글, 121면. “姑投而納之於篋, 不以接於目也. 又滌刮驅祛之於胸, 不以往來於中也. 或一宿, 或再三宿而起, 復取而觀之. 使吾愛戀此文之情弛而後, 視之如人之文, 則是者立見其是, 非者立見其非矣. 非則不難棄之.”

18) 고려중기의 문인 李奎報(1168-1241)도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규보는 「論詩中微旨略言」에서 “시가 완성되면 반복해서 관찰하되, 자기가 지은 것으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또는 평생 심히 미워하는 자가 지은 시를 보듯이 하여, 그 잘못된 점을 열심히 찾아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 시를 세상에 내놓는다.”라고 하였다. 李奎報, 「論詩中微旨略言」, 『東國李相國集』 卷22, 總論1, 525면. “凡詩成, 反覆視之, 略不以己之所著觀之, 如見他人及平生深嫉者之詩, 好覓其疵失, 猶不知之, 然後行之也.”

3. 한문산문과 현대적 글쓰기의 연계

한문산문은 자수나 운율의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로, 한시와 상대되는 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시와 같은 운문을 제외하고, 한자로 기록된 거의 모든 문장이 한문산문에 포함된다. 한문산문은 문학·역사·사상 등으로 내용이 다양하며, 서정적·서사적·묘사적·의론적인 서술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오늘날 문학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소문, 외교 문서, 편지글, 논설문, 책의 서문이나 발문, 일기, 여행기, 碑文, 雜記 등이 전근대 한자문화권에서는 모두 문학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과장해서 말해보면, 한문산문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글쓰기의 방식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한문산문은 현대적 글쓰기와의 다양한 접목이 가능하다.

다만, 한문산문을 현대적 글쓰기 교육과 연계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계 가능한 지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지나치게 연계성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현재적 관점에서 버려야 할 점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둘째, 단순히 글쓰기 기법 차원의 연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문산문의 각 문체가 지니고 있는 글쓰기의 정신과 지향을 탐색해야 한다.

현재 중등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은 주로 ‘국어’ 과목 중에서 ‘쓰기’ 영역, 국어배의 ‘작문’ 영역, 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심화·발전시킨 ‘화법과 작문’ 과목의 ‘작문’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예술포럼 심화 과목 교육과정’에 ‘문장론’ 과목을 두고 있기도 하다. <화법과 작문> 과목의 내용 체계를 보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 ‘정보 전달’, ‘설득’,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 등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설득’과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작문의 중요한 체계로 본 것인데, 기실 전자는 논술문을, 후자는 자기소개서를 염두에 둔 것이다.¹⁹⁾ 이처럼 중등 교육 과정에서 논술문과 자기소개서 작성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문산문을 활용한 논술문과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策文과 논술문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시험이 중요해지고 고등학교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 교육이 시행되면서 논술 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다. 논술은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논술은 ‘사고력’과 ‘지식력’, ‘텍스트 구성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²⁰⁾ 제대로 된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창의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를 적절한 단락 구성과 정확한 표현을 통해 글로 표현하여야 한다. 곧 논술 교육의 목적은 논리성·창의성·표현력 등을 배양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현행 논술 교육의 문제는 단락 구성이나 문장 표현 등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데에 있다. 이런 식의 논술문을 쓰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논술문 작성 기술을 습득하는 것

19)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 14호[별책 5], 101-110면.

20) 박인기 외(2007), 『고등학교 논술』, ㈜교육사, 19면.

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논술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방안의 하나로 策文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논술과 책문은 시험에 대한 답안으로 작성된다는 점, 논제가 사전에 주어진다든가,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 논리적 글쓰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책문은 초시와 복시의 종장 그리고 전시의 시험 과목으로서, 文科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글이었다. 시험 문제는 왕이나 왕의 대리한 관리가 제출하며(策問), 응시자는 자신의 주장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전개한다.(對策) 책문은 과문 중에 길이가 가장 길며, 내용은 經史나 時務에 관한 논의가 주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책문은 과문 중에서도 實質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었다. 고려 말 충숙왕 때 李齊賢(1287-1367)이 詩賦 위주의 시험을 개혁하여 策文을 시험할 것을 건의한 이래로, 조선시대 왕이나 신하들이 과문의 개혁을 논의할 때 항상 책문을 중심으로 고시 과목을 재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책문을 제대로 지으려면, 經史에 대한 광범위한 독서와 문장대가들의 문장에 대한 수련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문은 실제 실행 과정에서 經義와 經綸에 대한 실질적 평가는 실종되었고, 작문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을 사전에 작성하여 암기하는 방식으로 응시하는 사례가 팽배하였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장원한 사람들의 책문 모음집이 여러 차례 간행되어 책문 작성을 위한 학습서로 활용되었다. 1547년(명종 2)에 간행된 『殿策精粹』, 선조 연간에 간행된 『東策精粹』, 17세기 후반에 간행된 『策文準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²¹⁾ 오늘날 논술 교육의 문제점을 책문 역시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책문의 경우 왕의 물음에 신하로서 답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찬사와 경사를 늘어놓는 것이 많다. 또한 정해진 형식과 상투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폐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여 책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자세에 힘입어 정해진 형식 속에서도 작자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책문의 끝에 걸핏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진술한다.’는 상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이 들어 있었다. 일례로 광해군 때 任叔英(1576-1623)은 책문에서 權臣을 비판했다가 광해군이 노하여 낙방될 뻔했으나, 李恒福(1556-1618)의 무마로 간신히 급제한 일이 있었다. 사회에 진출하는 길이 과거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과거에 낙방하고 권신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은 사회 진출을 봉쇄당하는 치명적인 일일 수 있다.²²⁾

오늘날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문 작성은 과의 책문 작성 환경과는 물론 다르다. 겨우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에게 관리에 등용되기 위해 經史를 섭렵한 사대부들과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정해진 틀 속에서도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과감하게 내보이고, 진지하고도 비장한 각오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는 자세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실제 논술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두 쓰기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첫 문장을 쓰는 것은 모든 글쓰기가 마찬가지이나, 논술문의 경우 논제가 외부에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1) 안세현(2011), 「조선중기 文風의 변화와 科文」,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43-244면.

22) 김태완(2004),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18-19면.

논술문을 쓰는 학생들은 대개 서두에서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 책문의 글쓰기 방식을 참고해 보자. 책문은 대개 ‘虛頭-中頭-逐條-大抵-救弊-編終’으로 구성된다. 허두는 제시된 논제를 분석하여 요약 제시하는 것이며, 중두는 앞으로 전개할 전체적인 논지를 제시하는 것이며, 축조는 논제에 따른 해답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대저는 중두에서 제시한 전체적인 논지를 부연하는 것이며, 구폐는 해답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며, 편종은 전체적인 논지를 정리하여 글을 맺는 것이다.²³⁾ 조선시대 과거 응시자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정성을 쏟은 부분이 허두였다.

虛頭: 破題하여 시작하는 몇 구절은 반드시 切實을 힘쓰되 한 편의 大旨를 포함해야 하니, 비록 古語를 사용하더라도 많아서 안 된다. 이어 演繹하되 또한 精切을 힘쓰고, 비록 내용이 많더라도 교묘하게 전환하면 主司는 지리함을 잇는다. 무릇 문장을 짓는데 정밀함에 힘쓰되 많음에 힘쓰지 않으며, 진실함에 힘쓰되 기괴함에 힘쓰지 않는다. 책문을 지을 때 頭辭가 많거나 기괴한 것은 참으로 문장의 병폐이다. 그러나 科目에서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으니 時好를 완전히 저버려서는 안 된다.²⁴⁾

위 인용문은 17세기 후반에 간행된 책문 선집인 『책문준적』에서 가져온 것이다. 인용문 끝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試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응시자들은 허두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허두에서 과장된 수사와 기발함을 보여주려는 것은 어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채점관의 눈에 들기 위해 허두를 번다하고 기이하게 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책문의 허두는 번다함과 기이함에 힘쓰기보다는 정밀함과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破題과 글 전체의 大旨를 포함하는 것이다. 파제는 주어진 논제와 조응하여 논제의 의미를 푸는 것을 말한다.²⁵⁾ 요컨대 제시된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서두를 시작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내용(大旨)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술문을 쓸 때에도 서론에서는 주어진 논제의 논점을 정리하고 본론에서 논의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문은 적절한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것이 핵심이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기보다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들어 대립적인 구도를 설정하면, 자신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들어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견창이 제기한 바 主意와 敵意를 참고할 만하다.

대개 意를 엮을 때에는 또한 먼저 선택을 하여야 한다. 主意가 있으면 반드시 敵意를 둔다. 장차 主意로 문장을 만들면 반드시 별도로 敵意를 써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저것으로 이것을 공격하게 한다. 主意는 갑옷과 같고 敵意는 무기와 같다. 갑옷이 견고하다면 무기는 저절로 꺾이기 마련이며, 여러 차례 공격했으나 계속해

23) 책문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는 최식(2009), 「책문의 특징과 글쓰기: 『策文準의』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 동방한학회 참조.

24) 『策文準의』(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虛頭: 破題[‘題’의 오자인 듯-필자주]喝起數句, 必務切實, 而含一篇大旨, 雖用古語, 不可多也. 繼而演繹, 亦務精切, 雖多而巧轉, 則主司忘其支離. 凡爲文務精, 不務多; 務實, 不務奇, 作者者, 頭辭多且奇, 此固文之病也. 然不能忘情於科目, 則不可全背時好.”

25) 파제는 과거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하였던 일종의 고정된 격식이다. 唐宋 시대에는 應舉詩賦와 經義의 첫머리에서 몇 개의 구를 사용하여 논제의 주된 의미를 설파하는 것을 파제라 하였으며, 명청 시대에는 科文인 八股文의 첫 두 구에서 논제의 의미를 푸는 것을 말하였다. (『漢語大詞典』 ‘破題’ 조)

서 꺾이게 되면 主意가 승리하게 된다. 그럼 곧바로 敵意를 수습하여 잡아들이면 주의가 더욱 존귀하고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만약 혹은 이기고 혹은 지거나 하고, 혹은 승패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면, 모두 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때는 즉시 敵意와 함께 主意도 버린다.²⁶⁾

위 인용문은 앞 장에서 들었던 「答友人論作文書」의 일부이다. 主意는 작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견해이며, 敵意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다. 主意가 참으로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敵意로 하여금 主意를 공격하게 해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여러 차례 공격을 해도 主意가 살아남는다면, 主意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게 된다. 반대로 敵意와 비등한 전투가 된다면, 主意 역시 함께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논점을 세워야 한다. 이처럼 主意와 敵意가 논리적 쟁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작자는 主意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논술문을 작성할 때에도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고려하며 논리를 전개시킨다면, 자기 주장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栗谷 李珥(1536-1584)의 책문 한 편을 예로 들어 본다. 이이는 策問 6편, 對策 17편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문인 가운데 많은 편에 속한다. 이이의 책문은 순수한 철학적 문제에서 역사관, 귀신과 죽음의 문제, 사회제도, 국방과 외교, 문화와 풍습 등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²⁷⁾ 다음은 「文策」이란 제목의 글이다. 策問과 對策의 서두 부분을 인용해 본다.

〈問〉 글은 도가 드러난 것이니 글을 짓되 도를 외면한다면 글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현의 글은 모두 도에서 나왔으니 도를 담은 글이 육경에 있는 것을 밝게 볼 수 있다. …(중략)… 오늘날의 세속을 보면 글의 폐단이 극에 이르렀다. 科擧의 글과 詞章의 글,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며 병폐를 일으켜서 글을 짓되 글 같지 않게 되었다. 글의 폐단이 이와 같으니, 세상의 도가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폐단을 구하고자 하는데 장차 방법이 있겠는가? 그대들은 글을 배우는 여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시 깊이 강론하였을 터이니 의견을 말해보라.

〈對〉 제가 일찍이 理學이 강론되지 않아 글과 도가 나뉘어져 둘이 된 것을 개탄하며 서재에서 책을 덮고 길게 탄식한 것이 여러 날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선생께서 특별히 斯文을 들어 아래로 배움을 물으며 폐단을 없앨 방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제가 비록 보잘 것 없으나 감히 성심을 다해 답변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적이 제가 생각건대 도가 드러난 것을 일러 글이라 하니, 도는 글의 근본이요, 글은 도의 말단입니다. 근본을 얻어 말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성현의 글이요, 말단을 일삼아 근본에 힘쓰지 않는 것은 俗儒의 글입니다.²⁸⁾

策問은 이러하다. 道가 드러난 것이 文이며, 이것이 곧 육경으로 대변되는 성현의 글이다. 그런데 오늘날 科擧나 詞章으로 인해 文의 폐단이 극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道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를

26) 李建昌, 앞의 글, 120면. “凡構意, 亦宜先擇之. 有主意, 必有敵意. 將以主意爲文, 宜別用敵意爲一文, 以彼攻此. 主意如鎧, 敵意如兵, 鎧堅者, 兵自折, 累攻屢折, 則主意勝也. 卽收敵意, 俘繫而入之, 使主意益尊以明. 如或勝或敗, 或勝敗無甚相遠者, 皆不足以爲文, 卽并主意棄之.”

27) 김태완(2004), 17면.

28) 李珥, 「文策」, 『栗谷全書拾遺』 卷6, 중간45, 576-577면. “〈問〉 文者, 道之著, 文而外道, 非文也. 故聖賢之文, 一出於道, 其載在六經者, 粲然可見. …(中略)… 觀乎今之世, 文弊極矣. 有科擧之文, 有詞章之文, 二者迭爲之病而文不文矣. 文弊若茲, 世道何如? 欲救之弊, 將有術歟? 二三子學文之餘, 其必熟講于是, 試言之. 〈對〉 愚嘗慨然於理學不講, 文與道歧而爲二, 螢窓之下, 掩卷長嘆者, 爲日久矣. 今國子先生特舉斯文, 下詢承學, 欲聞救弊之策, 愚雖無似, 敢不悉心以對? 竊謂道之顯者謂之文, 道者, 文之本也; 文者, 道之末也. 得其本而末在其中者, 聖賢之文也; 事其末而不業乎本者, 俗儒之文也.”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라.

논제의 핵심은 道와 文의 관계 설정이다. 이이는 對策의 서두에서 일단 理學이 강론되지 않아 道와 文이 분리된 현실을 지적하였다. 策問에서 제시한 논제를 분명히 파악하여 언급한 것이다. 다음으로 道가 근본이고, 文이 말단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이후 전개될 大旨을 서두에서 밝힌 것이다. 변죽을 울리는 것 없이 대책의 서두에서부터 논제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나서 聖賢의 글과 俗儒의 글을 대립적인 구도로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策問에서는 성현의 글만 언급하였을 뿐, 俗儒의 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이는 성현의 글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俗儒의 글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이견창이 말한 바 主意와 敵意에 해당된다 하겠다.

2) 自薦書·自撰墓誌銘과 자기소개서²⁹⁾

자기소개서는 대학 입학이나 기업 입사라는 특정 목적을 두고 자신을 남에게 소개하는, 지극히 실용적인 글이다. 대개의 경우 서술 항목과 분량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나열하는 건조한 문체로 작성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은 심사자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수사적·형식적 측면에 치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과정을 보면, 자신의 행적을 검토하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발굴하고, 이것이 자기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구상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 지평으로 불러내어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응시를 통해 자신을 사회 속에 자리매김하는 사회화 과정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 속의 개체가 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기소개서 작성은 ‘사회 속에서의 자기 형성’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글쓰기를 통해 실현한다는 점에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문산문 중에서 自薦書와 自撰墓誌銘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천서는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편지’라는 뜻으로, 명망 있는 인물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발탁해 줄 것을 청탁하는 글이다. 자찬묘지명은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고, 죽은 자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방식의 글이다. 자천서는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여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자찬묘지명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직접 기술한다는 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의 계기나 서술 방식과 대단히 흡사하다.

먼저 자천서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자. 자천서를 쓰는 자는 이를 받는 자보다 지위가 낮다. 발탁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닌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는 한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장되게 서술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편지 받는 자를 칭송하며 아부하는 논조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늘어놓거나 어조가 지나치게 비굴한 경

29) 이 절은 안세현(2014), 『한문산문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자천서·자전류 산문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101-129면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우에는 오히려 진실성과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천서의 작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부하면서도 과장해서는 안 되며,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칭송하면서도 아부로 흘러서는 안 된다.

자천서는 중국 당나라 때 유행하였는데, 韓愈의 「與于襄陽書」가 주목된다. 이 글은 관직을 청탁하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자천 행위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참고할 만한 자세이다. 「여우양양서」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첫 단락에서는 앞서 현달한 선비[先達之士]와 뒤에 진출한 선비[後進之士]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음을 논설하였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적이 불세출의 재주를 지녔다고 칭송하였으며,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한유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말하며 관직을 청탁하였다. 대개의 자천서가 청탁 대상자를 칭송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는데, 그 대신 한유는 서두에서부터 글의 반 이상을 다음과 같은 논설로 채웠다.

선비 중에서 커다란 명예를 누리고 당세에 현달하는 자는, 그보다 앞서 현달한 선비로 천하의 衆望을 등에 진 자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또 선비 중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드리우며 후세에까지 빛나는 자는, 그보다 나중에 진출한 선비로 천하의 중망을 등에 진 자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이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어도 이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또 뒤에서 밀어주는 이가 없다면, 아무리 성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후세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애초부터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³⁰⁾

위 인용문에서 한유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과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하의 위계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지하여 발탁되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지하여 후세에 명성을 드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관직을 청탁하는 자와 청탁을 받는 자는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관직을 청탁하는 행위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청탁을 받고 발탁하는 행위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고문관지』의 편자인 청나라의 吳楚材·吳調侯는 이 글에 대해 문장 표현이나 논리가 거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으며 대단히 절묘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³¹⁾ 한유가 논설한 바, 관직 청탁이 지닌 논리와 청탁자의 당당한 태도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자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自撰墓誌銘과 자기소개서의 연계 지점을 찾아보겠다. 자찬묘지명은 자신의 묘지명을 자신이 직접 쓰는 글쓰기이다. 묘지명은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묘지명을 짓는 자는 엄숙하고도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더욱이 자찬묘지명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절박하면서도 진지한 성찰이 동반된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회 속에서 자기 삶을 반성하고 재정초하는 과정

30) 韓愈, 「與于襄陽書」, 韓愈 著, 周啓成·周維德 注譯, 『新譯 昌黎先生文集』, 臺北: 三民書局, 1999, 299-300면. “士之能享大名顯當世者, 莫不有先達之士負天下之望者爲之前焉; 士之能垂休光照後世者, 亦莫不有後進之士負天下之望者爲之後焉. 莫爲之前, 雖美而不彰; 莫爲之後, 雖盛而不傳. 是二人者, 未始不相須也.”

31) “通篇措詞立意, 不亢不卑, 文情絕妙.” 高海夫 主編,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 昌黎文鈔』, 三秦出版社, 1998, 127면.

이기도 하다.

일례로 우암 송시열과 대립하며 당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조선중기의 문신 朴世堂(1629-1703)은 「西溪樵叟墓表」를 통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지향을 피력하였다. 특히 글의 마지막에 “맹자의 말씀을 매우 좋아하여, 차라리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며 합치되는 바가 없이 살다 죽을 지언정,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맞춰 살면서 남들이 선하다고 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자에게 끝내 고개 숙이고 마음을 낮추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뜻이 그러한 것이다.³²⁾”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성공과 자기 신념 사이의 갈등에서 과감하게 자기 신념을 지키겠다는 강한 자의식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을 자기 정체성의 성찰 방향으로 이끌 때, 자찬 묘지명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사회 속의 자기 형성의 과정’이라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의 서술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의 항목을 보면,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학교생활 중 배려·나눔·협력·갈등 관리·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지원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한 활동’,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내 생애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과 슬프게 하는 것’,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들’ 등처럼, 자기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로 확대 보는 것이다. 특히 갈등에서 오는 문제 상황과 이를 극복한 사례에 대한 서술은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준다.

한편 묘지명의 서술 방식은 자기 소개서 작성에 활용할 여지가 많다.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자기 삶의 경험을 계기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서사적이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심사자를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논증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서 서술한 경험은 독자 설득을 위해 스스로의 평가를 거쳐 선택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소개서는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묘지명을 포함한 碑誌文의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農巖 金昌協(1651-1708)이 제시한 簡嚴과 錯綜을 주목할 만하다.

碑誌와 史傳은 문체가 대략적으로 같다. 그러나 사전은 該贍을 위주로 하는 반면, 비지는 簡嚴만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韓愈가 지은 비지에서의 서사는 『사기』·『한서』와는 매우 다르니, 문장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체 또한 당연히 그런 것이다. 구양수가 사마천의 문장을 배우면서도, 비지를 짓는 데 있어서는 史傳의 문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 역시 이런 까닭인 것이다.³³⁾

32) 朴世堂, 「西溪樵叟墓表」, 『西溪集』 卷14, 총간134, 291면. “蓋深悅孟子之言, 以爲寧蹢躅涼涼無所合以八, 終不肯低首下心於生斯世爲斯世, 善斯可矣者, 此其志然也.” “이 세상에……여기는 자”는 孔子가 鄉原을 묘사한 것으로, 『맹자』 「진심하」에 보인다. 공자는 향원을 두고 겉으로만 공손한 척하는 사이비 有德者라고 하였다.

33) 金昌協, 「雜識·外篇」, 『農巖集』 卷34, 총간162, 373면. “碑誌與史傳, 文體略同. 而史傳猶以該贍爲主, 至於碑誌, 則一主於簡嚴. 故韓碑敘事, 與『史』·『漢』大不同, 不獨文章自別, 亦其體當然也. 歐陽公雖學司馬遷, 而其爲碑誌, 猶不盡用史傳體, 亦以此耳.”

이제 歐陽公(구양수를 말함)의 비지문을 읽어보니, 綱領을 이끌어내고 關節을 錯綜하였으되 종종 법도가 있어서, 간명하면서도 능히 풍부할 수 있었고, 상세하면서도 번잡하지 않으며, 의도는 여유로우면서도 事情을 꼭 직하게 그려내어 風神과 生色은 왕왕 그림과 같았다.³⁴⁾

김창협이 말한 簡嚴은 謹嚴과 유사한 개념인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謹嚴은 사실 관계의 엄밀성, 字句 사용의 엄정성을 뜻한다. 김창협은 간엄을 該贍(풍부함)의 상대어로 사용하였는데, 주로 편장 서사에서의 간엄을 언급하였다. 근엄이 ‘嚴(엄정함)’에 초점이 놓여 있다면 간엄은 ‘簡(간결함)’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착종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의론과 서사를 교차 서술하는 것과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유사한 사건을 항목별로 묶어서 서술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김창협은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착종은 인물의 행적을 연대기 순으로 자잘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적 중에서 부각될 만한 사안을 고집어내어 항목으로 묶고 항목별로 행적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詳略法으로 인물의 행적 중 부각될 항목은 자세하게 서술하고, 그 외의 것은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요컨대 착종은 篇章의 단위에서 간엄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셈이다.

이처럼 행적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잘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적 중에서 부각될 만한 사안을 항목으로 묶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김창협이 제시한 간엄과 착종을 자기소개서 작성에 적용해 본다면, 간엄은 자신의 이력을 사실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쓰기, 착종은 자신의 이력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주요 사례를 배치하기 정도로 다시 규정할 수 있겠다.

4. 남은 과제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 활용한 만한 한문 작문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문산문 중에서 책문과 논술문, 자천서·자찬묘지명과 자기소개서 사이의 연계 지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한문 작문론은 전공자들 사이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며, 책문 및 논변류 산문과 논술문의 연계 방안 역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글쓰기 교육을 보면, 한문 작문론이나 한문 고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I』(박영목 외 저, 천재교육, 2012)을 보면, ‘작문 내용의 표현 부분’에 『순자』 「王制」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유일이다. 또 고려대 교양 필수 과목 <사고와 표현>의 교재인 『글쓰기의 기초』(고려대출판부, 2005)에는 ‘글쓰기의 유형’의 ‘정의’ 부분에 박지원의 「答京之」 1편과 『맹자』의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 전부이다. 그나마 『고등

34) 金昌協, 「雜識·外篇」, 『農巖集』 卷34, 충간162, 373면. “今讀歐公諸碑誌, 其提挈綱領, 錯綜關節, 種種有法, 簡而能該, 詳而不繁, 意度閒暇, 而情事曲盡, 風神生色處, 又往往如畫.”

학교 논술』(박인기 외, 교학사, 2007)의 읽기 자료에 四書, 사마천의 『사기』, 고려·조선시대 문인들의 글들이 비중 있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글쓰기 이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한문 작문론을 언급한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문 작문론이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전근대 한자문화권만큼 글쓰기를 중시한 사회도 없었다. 결국 이 문제는 한문 전공자가 글쓰기 교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글쓰기 교육자가 한문 작문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데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우리는 한문 고전을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파행으로 치닫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의 현실을 볼 때, 한문교과에서 글쓰기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한문교과 본연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문 교과에서 논술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³⁵⁾

현행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는 한문 작문론과 관련된 단원이 거의 없다. 본고에서 다룬 책문이나 자천서·자찬묘지명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양수의 「朋黨論」을 읽으면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政黨의 개념을 알아보고, 정당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논술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론해 봄직하다. 또 傳 작품을 읽으면서, 전의 주요 서술방식인 ‘가계-행적-논평’을 따라 자기 삶의 중요한 국면을 중심으로 자개소개서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高海夫 主編,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 昌黎文鈔』, 三秦出版社, 1998.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162.
 朴世堂, 『西溪集』, 한국문집총간134.
 安錫倬, 『雪橋集』(하), 아세아문화사, 1986.
 李建昌, 『明美堂集』, 한국문집총간349.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한국문집총간1.
 李 珣, 『栗谷全書拾遺』, 한국문집총간45.
 이태준, 『문장강화』, 창작과비평사, 1988.
 趙龜命, 『東谿集』, 한국문집총간215.
 韓愈 著, 周啓成·周維德 注譯, 『新譯 昌黎先生文集』, 臺北: 三民書局, 1999.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 14호[별책 5].
 『策文準의』(필사본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古朝31-115).

35) 김연수(2008), 「논술 교육을 시도한 고등학교 한문 수업에 관한 사례 연구」, 『한문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2. 참고문헌

- 강미향(2012), 「한문산문을 통한 통합논술 지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 권유은(2007), 「高等學校 『漢文』 論辨類 指導를 통한 論理的 思考力 伸張 方案」, 경북대 석사논문.
- 권혁진(2007), 「통합 교과형 논술과 한문 수업」, 『한자한문교육』 19,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연수(2008), 「논술 교육을 시도한 고등학교 한문 수업에 관한 사례 연구」, 『한문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철범(2003), 「이조후기 산문론에서 ‘見識’의 문제」, 『한문학보』 9, 우리한문학회 참조.
- 김철범(2005),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 이조후기 古文論을 대상으로」,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 김태완(2004),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 박미정(2011), 「과정중심모형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설(說)'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 박민환(2009), 「한문고전을 활용한 고등학교 논술수업모형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 박수밀(2009), 「한문산문의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고찰」,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 박영목 외(2012),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I』, 천재교육.
- 박인기 외(2007), 『고등학교 논술』, ㈜교학사.
- 배수찬(2005), 「한문 글쓰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 연구」,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 송병렬(2010), 「한문산문의 서술방식과 수사법에 대한 교육적 활용 연구」,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 송혁기(2006),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 심경호(2007), 「한문산문 수사법과 현대적 글쓰기」, 『작문연구』 5, 한국작문학회.
- 안세현(2011), 「조선폭기 文風의 변화와 科文」,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안세현(2014), 「한문산문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자천사·자전류 산문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 임상석(2008), 「1910년 전후의 작문교본에 나타난 한문전통의 의미」,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 임형택(1988), 「『문장강화』 해제」, 『문장강화』, 창작과비평사.
- 장미희(2007), 「說 문장의 서술 방식을 통한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정병현(1996), 「羅世續의 策文과 논술의 전통」, 『어문논집』 6, 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 정우봉(2004), 「한문수사학 연구의 한 방법: 主客法의 이론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 조상우(2007), 「이건창의 <答友人論作文書>를 통해 본 글쓰기 전략」,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 조희정(2002),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 최 식(2009), 「책문의 특징과 글쓰기: 『策文準의』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 최일순(2011),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孟子』 출전 본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 馮永敏(1998), 『散文鑑賞藝術探美』, 臺北: 文史哲出版社.
- 한초롱(2012), 「전통 글쓰기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조선시대의 策問과 對策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토론문

신두환(안동대)

안세현 선생님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논문은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서 한문 교육이 지니는 효용성을 밝히고, 그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한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학입시에서 논술문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하게 되면서 글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글쓰기 교육은 국어교육의 전유물은 아니다. 한문교육의 현재적 의미로 선현들이 언급한 문장을 구상하는 방법이나 문장론에 대한 언급들을 바탕으로 글쓰기 교육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육은 그 범위가 국어교육과 하고도 겹치고 중국어교육과도 겹치고 역사, 지리, 윤리 등 교육과도 부분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속에서 한문교과는 도구교과로서 명분은 유지되지만 실제로 한문교과의 독립적 정체성은 여러 유사학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의 생각을 그 형식과 내용에 맞게 표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현들이 남긴 문헌에는 글쓰기의 미의식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글쓰기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쓰기의 방법론은 국어 교과에서 작문이라는 교과서를 따로 정해서 중학교 때 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현들이 주장했던 전통적 글쓰기 방법은 자주 거론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선현들이 남긴 글쓰기 방식의 다양한 예를 들면서 글쓰기 이론으로 변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이것을 국어교과의 글쓰기 교육처럼 한문교과에서 전통방식의 글쓰기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자로 임무를 부여받고 선생님 논문을 읽어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보았으나 논문의 내용이 현대의 글쓰기 교육에 적합하도록 상세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서 비교적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들을 충분히 언급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론을 위해 몇가지 토론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목과 목차에 대해서

논문 내용을 보면 글쓰기 교육과 한문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 연구입니다. ‘효용성’이란 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걸립니다. 그리고 ‘교육방안’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의 2. 한문 작문론의 활용, 3. 한문산문과 현대적 글쓰기의 연계. 이 제목들도 일

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2. 작문의 요체로서 意氣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외 기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 내용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글쓰기 교육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3. 억양법은 현재 문학 수사법에서, 강조법의 하나. 처음에는 올렸다가 다음에 내리거나, 먼저 낮추었다가 나중에 올리는 방법으로 두 사실을 분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강조 한다. 이 비교법은 이미 문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억양법은 오늘날의 억양법과 같은 의미인지요.

4.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한문 작문론이 오늘날 글쓰기 교육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5. 글쓰기 이론은 연암 박지원의 ‘소단적치인’은 문장 강화 이론에 자주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 안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소단적치인 - 박지원-

“글을 잘 짓는 자는 병법도 잘 알 것이다. 글자는 비유하자면 군사요, 글 뜻은 장수요, 제목은 적국이요, 고사를 묶어서 구를 만들고 구를 모아서 장을 이루는 것은 대오를 이루어 행군하는 것과 같다. 운에 맞추어 읊고 멋진 표현으로써 빛을 내는 것은 징과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과 같으며, 앞뒤의 조응은 봉화이고, 비유는 기습 공격하는 기병이며, 억양반복은 맞붙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고, 파제한 다음 마무리하는 것은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이며, 함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늑은이를 사로잡지 않는 것이고, 여운을 남기는 것은 군대를 정돈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육현장 인성교육 방안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 대진고등학교

김 은 정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육현장 인성교육 방안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정(서울 대진고)

1. 서론

2. 한문고전을 활용한 부적응학생 인성지도

- 가. 연구의 대상 및 연구기간
- 나. 교재의 구성
- 다. 실천과제 선정-차시별 구성내용
- 라. 실천 및 결과

3. 한문고전을 활용한 창·체 시간 진로·인성 융합교육

- 가. 연구의 대상 및 연구기간
- 나. 한문고전을 활용한 진로 인성 융합교육 인성교재의 구성
- 다. 실천과제 선정
- 라. 실천 및 결과

4.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주제 연관 교과 간 수업지도

- 가. 연구의 대상 및 연구기간
- 나. 교과 간 인성주제 연관 수업지도안 구성
- 다. 연구의 실천과제 및 방법
- 라. 실천 및 결과

5. 한문고전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교육

- 가. 연구의 대상 및 연구기간
- 나. 소논문작성 동아리 활동 실천 및 결과
- 다. 학생자치 법정 활동 실천 및 결과
- 라. 인성교육과 캠페인 활동 실천 및 결과

6.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학교현장에 적용된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실현한 여러 방법을 소개하고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한문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

하여 쓴 것이다. 인성교육이란 인간의 타고난 아름다운 본성을 일깨워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교육이며 인간의 타고난 성품을 회복하게 돕고 계발하는 교육이라고 본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추구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과거와 현재의 사유의 지평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현재적 삶의 상황에 적합한 인간다움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내용도 과거의 선인들의 지혜와 가치관을 함양하게 한 고전의 전적을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여야 하며, 이것을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하는데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재적 문제를 해결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는 힘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래의 사회는 더욱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소유자 사람이, 개인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교육 문제라고 보고, 한문고전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위에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인성의 개념과 덕목을 학생의 현재적문제와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교현장 인성교육을 위한 교재로는 한문고전을 활용하여 교재를 구성하되 인성교재의 내용 구성은 한문고전 중에서 학교현장에 맞춘 인성의 덕목으로 재분류하고 학생의 수준, 학생의 문제, 학생의 인성, 가치관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문장을 발췌 윤문 편집하였다. 동시에 인성의 대 주제에 맞추어 EBS 동영상자료를 함께 넣어 활동하게 함으로써 한문의 딱딱함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학생 활동지는 학생이 현재적 관점에서 한문고전의 문장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이입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최대한 간략한 질문지를 넣어 한문고전의 내용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가 한문교사뿐 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모든 교사에게 학생 인성지도에 참고하고 활용되도록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인성교육을 실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1)한문고전을 활용한 부적응 학생 인성지도사례

한문고전 중에서 인성의 덕목과 관련하여 학생의 수준, 학생의 문제에 맞추어 문장을 발췌 윤문 편집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지도에 편리하도록 바른생활 점수제의 항목별로 고전의 내용을 분류 구성하고 별점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2차시 3차시 5차시 별로 학생활동지를 구성하였다. 동시에 인성교재의 주제에 맞추어 EBS 동영상 자료도 적절히 가미하여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도 부응하였다.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재가 부적응학생 및 요선도 학생들 지도에 활용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담당 선생님들은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재의 매뉴얼에 따라 지도함으로써 요선도 학생 지도에서 오는 과중한 업무적 스트레스와 지도 자료의 부족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어 유의미하였다.

2) 한문고전을 활용한 창·체 시간 진로·인성 융합교육으로 활용한 사례

창·체 시간 진로·인성 융합교육에 쓰인 책자 내용 구성의 큰 틀은 인성의 덕목별로 학생의 인성 함

양과 진로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창·체 시간 진로·인성 융합교육은 조별토론, 조별과제발표, 과제물 조별 블로그에 게시, 조별 결과물 책자로 구성하기로 정하였다. 학생 각자의 구체적인 활동의 과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 란에 학생의 진로와 연관된 학생의 흥미와 노력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창·체 시간 진로·인성 융합 학생수업의 결과물을 통해 일반 수업시간에 할 수 없던 융합적 사고인 융통성과 독창성을 기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별, 조별 결과물을 통해 융통성, 유창성, 자기 확신, 상상, 개방성, 유머감 등 일반 수업시간에 표출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화하여 결과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일반교과 활동을 통해 얻기 어려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3)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과 간 인성의 주제와 연관한 수업지도사례

한문고전을 활용한 창의·인성교재를 활용하여 국어 사회 영어 한문시간에 쓰일 교과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여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과 간 융합 인성수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과 간 융합 인성 수업의 교육 방법을 적용한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안을 모두 39차시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조별 토론과 조별 결과물을 통해 학생활동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사고한 후 과목별 수업 활동과정을 통하여 융합적 사고와 더불어 진로와 관련된 창의적 인성을 개발할 수 있어 유의미하였다.

4) 한문고전을 활용한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사례-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진로활동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융합적인 인성교육기법을 적용하여 학생 자율동아리인 학생자치 법정, 학생 소논문 동아리, 학생회 활동을 운영하였다. 학생회 중심 인성 캠페인활동, 학생자치 법정 긍정적 지도 프로그램 활동 및 보고서 작성, 맹자의 불인지심에 기초한 소논문작성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한문고전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교체험활동 및 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 통합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1. 서론

최근 29년간 한문수업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담임활동을 하면서 한문고전 속에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해결방법과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성을 회복하게 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한문고전의 내용을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함양을 위한 자성적 글쓰기교육에 활용한 결과 현 사회와 교육이 당면한 인성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문 고전의 내용을 학생의 문제행동 사안별로 분류하고, 학생 자신의 문제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눈높

이에 맞게 번역, 운문하여 2010년과 2011년에 먼저 대진고 와 대진여고 학생들(학생부 부적응학생, 한문 수업학생)의 문제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글쓰기 교육에 활용하였다.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2011년도 교육청 인성지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구 자료를 구체화하여 설계, 실현하게 되었다. 2011년과 2012년 2년간 서울시 교육청의 창의·인성 우수동아리로 활동하며 더욱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적용하였다. 또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1학년도 생활지도 인성 학교컨설팅 단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상담 자료와 자기 주도 학습 자료를 학생의 문제유형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 중·고등학교에 성찰교실 매뉴얼을 보급하였다. 서울시 중·고 45개 학교 생활지도 인성 컨설팅을 통하여 교재 이용방법을 확산 보급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필요에 부응한 교재를 만들게 되었다. 한문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방안이 한문을 비롯하여 각 교과 수업시간과 부적응학생 및 요선도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와 문제행동에 활용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차원 높고 성숙한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담당 선생님들은 매뉴얼에 따라 지도함으로써 요선도 학생 지도에서 오는 과중한 업무적 스트레스와 지도 자료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자는 5년간 자료를 개발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입증한 인성교재 책자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학생활동에 계속 적용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감각과 교재의 실용적인 현장감을 더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계속 보완하였다. 또 인성에 진로의 요소를 가미하고 창의적인 학습기법을 적용하여 범 교과에 적용 가능한 한문고전을 바탕으로 한 창의 인성교재를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실험적으로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자연계열의 학생도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인문학적 감성과 인성의 바탕 위에 이공계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돕는데도 목적이 있다. 즉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교육의 화두로 등장한 STEAM 교육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입혀 교육현장의 문제뿐 아니라 미래 인재 교육을 선도해 나아갈 새로운 방안으로 각 분야에서 참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때에 이르렀다. 따라서 미래를 선도해 나아갈 인재를 기르는 데 있어 핵심요소가 인성의 요소와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때 동아시아 고전을 활용한 창의 인성교육 방안을 통하여 STEAM 교육에 인문학적 교육을 더함으로써 사상적 철학적 채색의 풍부함을 더하고자 한다. 현재 STEAM 교육의 話頭인 창의성 교육에 도덕적 감성을 입혀 나와 남이 함께 즐거운 행복한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에 고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견주어 미래를 예견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교육이 교육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인문학적 감성과 인성, 창의성을 겸비한 바람직한 미래 인재로 육성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2. 한문고전을 활용한 부적응학생 인성지도사례

가. 연구의 대상 및 연구기간

한문고전 중에서 인성의 덕목과 관련하여 학생의 수준, 학생의 문제에 맞추어 문장을 발췌 운문 편집

하고 학생의 지도에 편리하도록 바른 생활 점수제의 항목별로 고전의 내용을 분류 구성하여 부적응 학생의 별점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2차시 3차시 5차시별 교사지도안과 학생활동지로 구성하였다. 동시에 실행될 부적응 학생 인성교재의 주제에 맞추어 EBS 동영상 자료와 필요에 따라 학생질문지에는 상담 자료와 자기 주도 학습 자료도 적절히 가미하여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도 부응하였다.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재가 부적응학생 및 요선도 학생들 지도에 활용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고전의 명구에 비취봄으로써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담당 선생님들은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재의 매뉴얼에 따라 지도함으로써 요선도 학생 지도에서 오는 과중한 업무적 스트레스와 지도 자료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설계 : 연구대상과 기간

실천 기간 : 2010. 4 ~ 2013. 12

실천 대상 :

연도	영역	대상	학교	비고
2010~2013	한문교과지도	대진고 2-3, 2-4, 2-5, 2-6 대진여고 2-6, 2-7, 2-8, 2-9	2개교	수업
2011~2013	부적응학생지도	대진고 대진여고 요선도 학생	67명	지도
2012	중학인성교육 (성찰교실담당자)	서울시 중학교 성찰교실 담당자 전체	350개교	연수
2011~2013	생활지도 인성컨설팅	서울시 중·고 생활지도 컨설팅 신청학교	45개교	컨설팅
2012	특별교육	서울시 특별교육 대상학교	서울시 전체 중·고교	연수

2011년 부적응학생 인성지도 자료에는 전문상담 자료와 자기 주도 학습 자료를 학생의 문제유형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 중,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성찰교실 매뉴얼을 보급하였다.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루어진 2차 연구는 본 연구자가 서울시 연구정보원과 함께 만든 중학 성찰교실 인성책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만들어 서울시 전체 중, 고등학교에 배부한 특별교육 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개발한 2011년 한문고전을 활용한 성찰교실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학생들의 현안문제인 요선도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문고전의 내용을 인성부 학생지도 시스템인 바른생활 점수제 지도 항목에 맞추어 학생상담의 측면을 고려하여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학교현장의 학생문제에 맞추어 재구성 재편집을 하고 각 항목에 따라 2차시 3차시 5차시별 교사지도안과 학생활동지로 구성하였다.

나. 교재의 구성

한문고전 중에서 학생의 수준과 학생부 학생계도 및 인성, 가치관 함양에 맞추어 학생의 문제에 맞추어 문장을 발췌하고 문장으로 편집하고 EBS 동영상자료와 상담자료 자기주도 학습 자료를 인성교육의 주제에 맞추어 순서를 배열하였다. 인성교재의 내용은 故事成語, 고등학교 한문 10종 교과서, 四字小學, 童蒙先習, 擊蒙要訣, 明心寶鑑, 蒙求, 菜根譚, 於于野談, 小學, 四書, 史記, 古文眞寶, 戰國策 등에서 나오는 성현들의 글을 학생의 인성교육 주제별로 내용을 묶고 각각의 내용을 해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한문고전의 내용을 인성부 학생지도 시스템인 바른생활 점수제 지도 항목에 맞추어 학생상담의 측면을 고려하여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것은 첫째 준법, 둘째 예절 및 공중도덕, 셋째 바른 언행, 넷째 흡연(나쁜 습관 버리기), 다섯째 도덕, 여섯째 학습태도(학문의 자세) 라는 학교현장의 학생문제에 맞추어 재구성 재편집을 하고 각 항목에 따라 2차시 3차시 5차시별 교사지도안과 학생활동지로 구성하였다. 학생 활동지 구성은 먼저 한문고전의 내용을 자신의 행동과 연관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자성적으로 읽고 자료와 함께 본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느낀 점을 그리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오려 붙이게 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각 차시별 선택은 지도교사가 학생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안에 따른 차시를 결정하여 지도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책자의 구성은 모두 60차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음은 성찰교실 중학 인성교재의 내용과 틀이다. 부적응학생 인성교재 매뉴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 연구 실천과제선정-부적응학생인성교재 차시별 구성내용

1) 한문고전을 활용한 부적응학생 인성교재 차시별 구성내용

차시	내용	출전
바른 언행 2차	부모님과 선생님께 명예를	四字小學
	공경하는 마음, 공손한 행동	小學
바른 언행 3차	자기 수양의 출발	論語
	날마다 나를 반성한다	論語
	높은 나무에 올라간 자식	四字小學
바른 언행 5차	부모님과 선생님의 은혜	四字小學
	착한 본성의 회복	小學
	사랑과 존경의 실편	論語
	나를 지적해 주세요	小學
	참된 스승의 가르침	古文眞寶
예절 및 공중도덕 2차시	효도는 모든 행동의 바탕	孝經
	착한 일을 권해주는 벗	湛軒書
예절 및 공중도덕 3차시	포용과 배려	史記, 宋史

2014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서로 화합하는 마음	孟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三國遺事
예절 및 공중도덕 5차시	더불어 사는 삶	海東續小學
	공평한 마음 베풀기	芝峰類說
	올바른 사람이란	論語
	돌아오는 은혜	春秋左氏傳
	진심으로 나를 알아주는 벗	史記
준법 2차시	착한 행동만 하더라도 모자라요	小學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退溪集
준법 3차시	죽은 사람과도 지킨 약속	史記
	대의를 위해 바친 목숨	閔忠正公遺稿
	내가 먼저 바르게	論語
준법 5차시	남이 안 볼때 더 조심해야	大學
	끊임없이 노력하라	中庸
	너무 쉬운 양보와 배려	唐書, 論語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孟子
	낮은 곳을 향하여	青邱野談
흡연 2차시	나의 몸을 건강하게	孝經
	주위에서 유혹이 밀려와요	太子少傅箴, 松南雜識
흡연 3차시	나쁜 일을 하면서도 부족하게 여긴다면	小學
	내 자신이 최고	旬五志
	마음은 몸의 주인	保閑齋集
흡연 5차시	자기의 몸을 지켜야	小學
	주위에 따라 변하는 나의 모습	列女傳
	굽혀진 손가락을 펴듯 약속을 지키는 나의 마음	孟子
	싹이 자라도록 돕다가	孟子
	손바닥을 뚫은 손톱	大東奇聞
도벽 2차시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	新增東國輿地勝覽
	검소한 사람	魏書, 明心寶鑑
도벽 3차시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야	論語
	너도 알고 나도 알고	後漢書
	예의를 버린다면	小學
도벽 5차시	작은 잘못이라도	小學
	굴 두개를 아들에게 주다	蒙學漢文初階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다	士小節
	황금 보기를 돌 같이	慵齋叢話

	잘못된 습관도 고칠 수 있다	公私見聞錄
학습태도 2차시	내 몸이 악하면 내 몸이 선하면	四字小學
	짧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明心寶鑑, 淮南子
학습태도 3차시	가르치지 않으면 윗사람의 잘못이다	白樂天勸學文
	공부의 자세	栗谷全書
	공부의 핵심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保閑齋集 家訓
학습태도 5차시	오늘 공부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朱文公勸學文
	공부는 그만둘 수도 게을리 할 수도 없다	朱文公勸學文
	공부는 농부가 씨 부리고 거두듯이	順菴集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偶成
	내 몸을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	保閑齋集 家訓

라. 연구의 실천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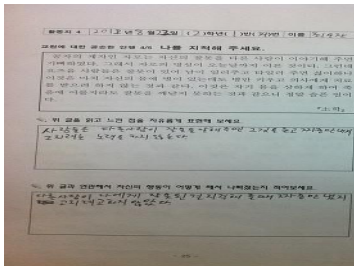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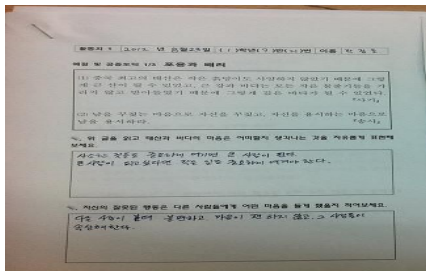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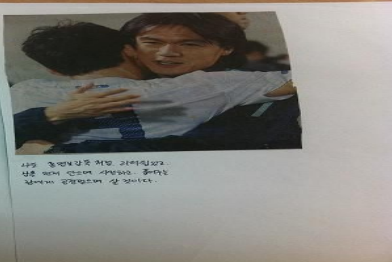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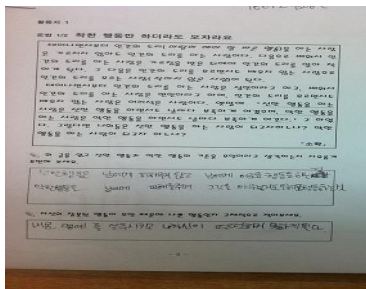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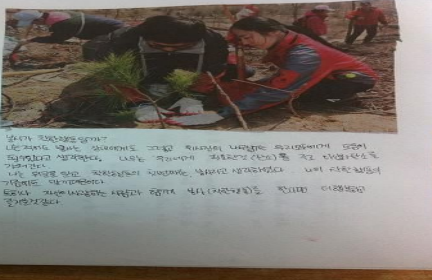
한문고전의 문장을 통해 학생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견주어 비춰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자성적인 글쓰기를 하였다. 다음으로 제시된 한문고전 문장을 토대로 학생 자신의 미래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문항별 질문을 통해 자기 생각을 그리거나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미지 혹은 단어를 오려 붙임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꼬집어내어 수준 높은 성인의 가치관을 모방하고, 모호하고 막연한 인성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쉽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의 주제에 따른 내면의 선한 생각과 창의적인 표현이 거칠지만 자유롭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성지도부 요선도 학생들의 인성교육 글쓰기를 통하여 얻은 결과물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3차시로 이뤄진 학생지도안과 결과물이다.

<표1> 한문고전을 활용한 부적응 학생인성교육 교수. 학습 지도안 3차시

대상		(중1.2.3) 고1.2.3		적용항목	부적응학생 인성교육	3차시
영역	부 적 응	주제	1단계	나를 지적해주세요-소학		
			2단계	작은 잘못이라도-소학		
			3단계	포용과 배려-사기		
교육 목표	주어진 한문고전의 내용과 동영상자료를 통해 잡지나 신문을 오려붙이고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릇된 행동을 고치는 구체적인 생각을 나타내어 학교와 사회의 적응력 향상을 기대한다.					
준비물	한문고전자료 학생활동지, 동영상(박지성, god, 이태석 신부)자료, 신문, 잡지, 필기구, 가위, 풀					

2014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교수,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동기유발	학생에게 바른 자세로 앉게하고 선생님도 같은 눈높이에서 침착한 어투로 학생과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대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제시된 주제에 따라 사고하며 생각한다.	동영상자료와 한문고전의 내용의 공통점을 인식하게 한다.	5분
전개	차시별 한문고전의 내용을 학생과 함께 3번 낭송하고 의미를 설명한다. 주제가 유사한 EBS 동영상 자료를 함께 감상한다.	차시별 한문고전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낭송하고 관련동영상을 감상하며 한문명구와 동영상의 내용을 자신의 문제와 연관하여 사고한다.	한문고전을 조용히 낭송하고 동영상자료를 시청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자신의 문제와 연관하도록 돕는다.	10분
결말	인성교재의 학생활동지에 자기성찰의 요소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표현되도록 도우며 긍정적인 지도가 되게 한다.	자아성찰적인 인성의 주제에 어울리는 재료를 신문 잡지에서 다양하게 탐색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	한문고전의 내용과 동영상자료에 자신의 문제를 이입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15분
활동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 및 효과	<p>1. 나를 지적해주세요-소학 자료와 박지성의 동영상과 고사성어 강의 : 수적천석(水滴穿石)을 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흡연습관을 어떻게 고쳐 나아가야할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노력을 통해 이전과 다른 학교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냄.</p> <p>2. 어렵고 가난한 상황에서도 성공을 이룬 인물들의 이야기와 동영상자료, 소학의 글을 통해 흡연학생들이 단지 흡연한 사실만으로 자신의 학교생활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주인공을 인생의 모델을 삼음.</p>			

3.학생으로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와 끈기로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한결같이 성실한 자세를 경주하는 자세도 중요함을 동영상과 고사를 통해 학생 스스로 인식함.
--

3. 한문고전을 활용한 창·체 시간 진로·인성 융합교육 사례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창·체 수업시간 진로 인성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진고등학교 창·체 수업시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인성교육을 지식 교육과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즉 앞이 곧 삶이 될 수 있게 만드는 학습 방식과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곧 진로 인성 융합교육이라고 본다. 따라서 창·체 시간 진로 인성 융합교육에 있어서 학생을 지도하는 기본 틀은 한문고전의 내용을 기초로 한 인성교육의 토대에 두고 그 위에서 학생 활동지 질문내용의 구성을 학생의 인성과 진로를 연관하여 재구성하였다. 창·체 시간 진로·인성 융합교육에 쓰인 책자 내용 구성의 큰 틀은 인성의 6개 대덕목별로 구성하였다. 학생 활동지의 질문 내용은 학생의 인성 함양과 진로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진로·인성 융합교육 책자의 목차는 첫째. 효 둘째. 학문 셋째. 우정 넷째. 공동체 다섯째. 도덕성회복 여섯째. 애국심의 순서로 하였다. 창·체 시간 진로 인성 융합교육은 조별토론을 통하여 수업시간 조별과제발표, 과제물 조별 블로그에 게시, 조별 결과물 책자로 구성하기로 정하고, 학생 각자의 구체적인 활동의 과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 학생의 역할, 시간별 활동내용, 구체적인 진로선택 방향, 인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연관된 학생의 흥미와 노력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학생들은 주제에 따라 개인별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조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객관화 시켰다. 개인별 활동지에는 자신의 생각들을 그리고 붙이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정교화 하고 각각의 주제에 따라 생각나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이미지화하고 그 이유를 적으면서 학생 자신의 사고의 논리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인성과 진로의 주제에 따라 학생 나름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개념을 도출하여 정의하도록 하였다. 창·체 시간 진로·인성 융합교육 학생수업의 결과물을 통해 융합적 사고인 융통성과 독창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정서와 태도 및 진로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며 자신의 개인별, 조별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으며 융통성, 유창성, 자기 확신, 상상, 개방성, 유머감 등을 표출하며 일반 수업시간에는 표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구체화하여 결과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일반교과시간을 통해 얻기 어려운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가.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 ▷ 실천 기간 : 2012. 4 ~ 2014. 7
- ▷ 실천 대상 :

연도	영역	대상	비고
2012	인성 교육	대진고 2-7.8.9.10.11.12	인성교재개발
2013	진로·인성 융합교육	대진고 2-3.4.5.10.11.12.13.14.15	진로 인성 융합교재 및 지도안개발
2014	진로·인성 융합교육	대진고 2-7.8.9.10.11.12.13.14.15	학생결과물 및 분석표 산출

나. 한문고전을 활용한 진로 인성 융합교육 인성교재 구성

1) 진로·인성 융합 인성교재 구성 주제에는 6개의 인성의 대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인성 세목을 정하여, 창·체 수업시간 필요한 인성의 주제에 따라 차시와 내용을 정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6개의 인성의 대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차시별 제목은 다음과 같다.

I. 공정, 정의 /더불어 사는 삶(시민정신) Relationship/Fairness/Justice: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갖추기(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다) 1. 날마다 나를 반성 한다. 2.타고난 착한 마음 3. 진심 어린 충고 4. 마음이 편한 착한 행동

II. 신뢰, 신의, 믿음(우정) Trust:친구와의 관계 바르게 세우기(우정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1. 포용과 배려의 마음 2. 칭찬과 비방의 차이 3. 공평한 마음 베풀기 4. 착한 일을 권해주는 벗 5. 죽은 사람과 지킨 약속 6. 너무도 쉬운 양보와 배려

III. 성실, 인내, 통합성(학문) Learning/Thought : 공부의 자세 갖추기(공부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평소생활 속에서 바른 공부의 자세를 기를 수 있다) 1. 젊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2. 공부의 자세 3. 안정된 마음으로 하는 공부 4.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자 5. 공부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듯 6. 짧은 시간도 아껴 쓰는 마음

IV. 타인존중, 공경, 섬김, 책임감(효) Respect/Attendance:부모와 나와의 관계 이해하기 (부모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모든 행동의 기초임을 알고 바른 자세를 기를 수 있다) 1. 효에 대한 바른 생각 2. 부모님께 명예를 3. 역지사지 4. 효는 사람의 도리 5. 효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6.마음을 바르게

V. 도전, 용기, 성공, 결단력, 모험(애국) Courage/Passion :나라·민족·공동체에 대한 인식 갖추기(나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를 기를 수 있다) 1. 함께 하는 삶 2. 화합하는 마음 3. 정의로운 마음 4.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5. 낮은 곳을 향하여 6. 참된 스승의 가르침

VI. 배려, 관용, 포용(도덕성 회복) Caring: 도덕성의 주체인 나 인식하기(도덕적 용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도덕성의 주체로서 의 바른 자세를 기를 수 있다) 1. 포용과 배려의 마음 2. 너무도 쉬운 양보와 배려의 순서로 구성한다.

다. 연구 실천과제 선정-진로 인성 융합교육 인성교재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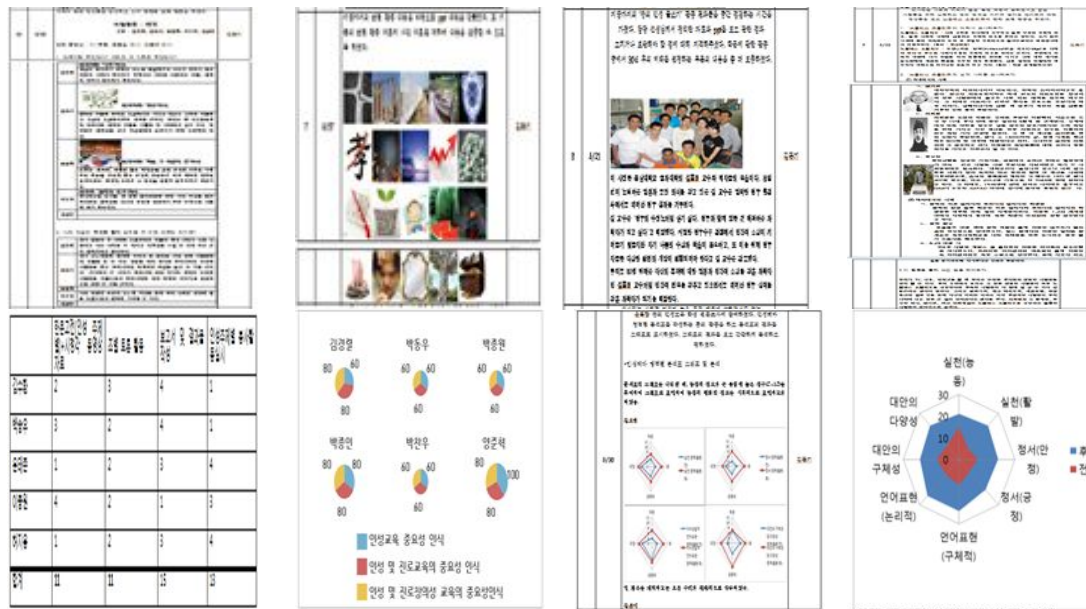
진로·인성 융합교육 인성교재의 목표설정

구분	창의성요소	인성요소	진로·인성 융합교육목표 설정
도입 /창의·인성적 문제제시	개방성·확산적 사고, 논리 분석 적사고	시민정신, 정의, 통합성 (더불어사는삶/공동체)/Relationship 공정, 정의(도덕성회복) / Fairness/Justice 신뢰, 신의, 믿음(우정) /Trust 성실, 인내, 통합성(학문) Learning/Thought 타인존중, 공경, 섬김, 책임감(효) Respect/Attendance 도전, 용기, 성공, 결단력, 모험(애국) Courage/Passion 배려, 관용, 포용(도덕성회복) Caring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의 실생활의 문제를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
전개 /인성체화훈련 (도덕적 규범탐구·심화)	창의적인 마음 (Creating Mind) 윤리적인 마음 Ethical Mind)	시민정신, 정의, 통합성 (더불어사는삶/공동체) /Relationship 공정, 정의(도덕성회복) / Fairness/Justice 신뢰, 신의, 믿음(우정) /Trust 성실, 인내, 통합성(학문) Learning/Thought 타인존중, 공경, 섬김, 책임감(효) Respect/Attendance 도전, 용기, 성공, 결단력, 모험(애국) Courage/Passion 배려, 관용, 포용(도덕성회복) Caring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학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과정
정리 및 발표/ 감성적 체험	종합하는 마음 (Synthesized Mind) 문제해결력, 수 렴적사고, 종합 적사고, 행동력, 실천력	시민정신, 정의, 통합성 (더불어사는삶/공동체)/Relationship 공정, 정의(도덕성회복) / Fairness/Justice 신뢰, 신의, 믿음(우정) /Trust 성실, 인내(학문) Learning/Thought 타인존중, 공경, 섬김, 책임감(효) Respect/Attendance 도전, 용기, 성공, 결단력, 모험(애국) Courage/Passion 배려, 관용, 포용(도덕성회복) Caring	학습에 대한 성공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도록 흥미와 동기부여를 위한 요소의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의 융·복합적 사고를 배양하여 창의적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기반으로 상상력과 바람직한 감성을 배양하게 함.

라. 연구의 실천 및 결과

학생들이 고전의 자료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하였다. 또 인성과 진로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의 요소를 더하여 진로와 인성을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인문학의 철학적 감성과 도덕적 가치 위에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2014년 진로 인성 융합교육 조별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4.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주제 연관 교과 간 수업지도 사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 본 활동은 한문 고전을 활용하여 구성된 창의 인성 교재를 가지고 한문교과 수업시간과 국어 사회 영어 시간에 활용 가능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안은 국어 10차시, 사회 10차시, 영어 4차시, 한문 15차시로 모두 39차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각 교과와 교수·학습 과정 안은 학생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학생구성원 간 공감·소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문·국어·사회·영어 시간 교수 학습 지도안 차시별 계획서는 필자가 既 개발한 창의·인성교재를 바탕으로 각 교과와 인성의 주제별 연관단원을 파악하여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차시별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업시간에 적용하였다. 인성의 주제별 영역과 학습 목표를 정하고 창의·인성교재의 차시별 분류에 맞추어 지도요소를 넣고 교수·학습 내용에 맞추어 교수 학습활동을 기록하여 인성의 요소와 창의성의 요소를 분석하여 삽입하였다. 인성의 주제에 따른 국어 영어 사회 한문교과와 단원과 페이지를 기재하고 단원, 제재, 수업의 모형, 중심활동, 본시 수업 인성의 주제, 본시 학습 목

표, 수업자료, 학생준비물을 기록하고, 범 교과 적용단원 자료에는 창의 인성교재의 주제와 차시별 교재와 해당 교과의 연관단원을 기록하였다. 인성주제 연관 교과 간 교수·학습 과정 안은 대진고등학교 한문·국어·사회·영어 수업시간 연구에 참여한 담당교사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가.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 실천 기간 : 2013. 4 ~ 2013. 11

▷ 실천 대상 :

1) 연구 대상 : 대진고등학교 1.2학년

2) 연구 기간 : 2013년 3월 ~ 2013년 11월

영역	대상	적용시기	비고
한문수업	2학년-3.4.5	3월~11월	
국어수업	1학년-1.2.3.4.5	9월	
사회수업	1학년-9.10.11.12.13.14.15	6월7월	
영어수업	1학년-5.6.7.8.9	9월	

국어, 사회, 영어, 한문교과 수업시간 활용 가능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교과 간 인성주제 연관 수업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나. 교과 간 인성주제 연관 수업지도안 구성

교과 간 인성주제 연관 창의 인성 융합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교과	단원	주제	차시
국어	1. 국어 (상) 1. (2) 별 헤는 밤 (수업차시 : 3/3)/ 창의인성교재 도덕성 회복 - 1차시	윤동주 시의 특성인 ‘자기반성’의 의미를 깨닫고 반성의 가치를 자기화 할 수 있다.	1
	2. 국어 (상) 2. (2) 문화재를 대하는 이중성 (수업 차시 : 2/2)/ 견모발검(見蚊拔劍) 인일시지분 면백일지우(忍一時之憤 免百日之憂)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의 소중함’이라는 주제와 연관 지어 잘못된 자기 분노 표출의 영향을 생각해 보고 올바른 분노 해소의 가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2
	3. 국어 (상) 3. (2) 훈민정음 (수업차시 : 4/4)/ * 우정 - 1차시 * 우정 - 3차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에 대해 깨닫고 그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3
	4. 국어 (상) 5. (3)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수업차시 : 3/3)/ * 효 - 2차시 * 공동체 - 2차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4
	5. 국어 (상) 6. (1) 육사의 시(4/4) * 도덕성 회복 - 2차시	이육사의 삶의 의지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용기의 가치에 대해 내면화한다.	5
	6. 국어 (상) 6. (2) 눈길 (4/4)	부모님 사랑에 대해 되새겨보고 ‘효’의 가치	6

	* 효 - 1차시 * 효 - 3차시	를 내면화할 수 있다.	
	7. 국어 (하) 1. (1) 관동별곡 (수업차시 : 6/6) 연암소설	유교적 가치와 도교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올바른 가치의 판단의 중요성을 내면화할 수 있다.	7
	8. 국어 (하) 2. (2) 태평천하 (수업차시 : 4/4)/ * 사필귀정 (事必歸正) 계찰패검	윤직원 영감의 잘못된 가치관을 풍자하는 소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의 중요성을 내면화할 수 있다.	8
	9. 국어 (하) 4. (1) 사회 속의 다양한 언어(수업차시 : 2/2) *불언장단(不言長短) * 지자불실인 역불실언(智者 不失人 亦不失言)	비속어와 줄임말로 점차 무너지가는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에 대해 깨닫고 바른 언어 사용의 가치에 대해 내면화할 수 있다.	9
	10. 국어 (하) 4. (2) 봉산탈춤(수업차시 : 1/4)/ * 기소불욕 물시어인 (己所不欲 勿施於人)	양반을 풍자하고 희롱함을 통해 성장한 서민 의식을 표현하였던 우리 조상들처럼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행위의 가치를 깨닫는다.	10
사 회	6단원 사회변동과 사회문화 (고1)㈜미래엔 / • 창의인성 공동체- 2차시 교재	세계화 경향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변화의 추세를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1
	6단원 사회변동과 사회문화(고1)㈜미래엔 / • 창의인성 공동체- 효 1차시 교재	세계화 경향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변화의 추세를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6단원 사회변동과 사회문화(고1)㈜미래엔 / • 창의인성 공동체- 효 3차시 교재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동영상을 통해 주위를 환기한다.	3
	7단원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고1)㈜미래엔 / • 창의인성교재 공동체 3차시	분배의 정의와 관련한 최근 시사 자료를 찾아 제시한다.	4
	7단원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고1)㈜미래엔 / • 창의인성교재 우정 1차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이 무엇이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함.	5
	8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고1)㈜미래엔 / • 창의인성교재 공동체 4차시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6
	8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고1)㈜미래엔 / • 창의인성교재 도덕성회복 1차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생 독립국들이 정치적 혼란과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7
	8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고1)㈜미래엔 / • 창의인성교재 도덕성회복 2차시	• 정치적 쟁점 양상을 확인한다. - 여성에게 병역 의무 부과, 양심적 병역 거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에 대한 학생들의 간략한 의견을 들어본다.	8
	9단원 경제 성장과 삶의 질(고1)㈜미래엔 / • 창의인성교재 공동체 5차시	‘부자는 행복할까?’ 라는 물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게 한다.	9
	10단원 국제거래와 세계화(고1)㈜미래엔	•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 공동체의 문제	10

	/	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영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인성교재 우정 6차시 		
	Lesson 4. Change for the better 능률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1차시 	인종차별철폐 운동과 관련된 듣기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다.	1
	Lesson 5. My School Life 능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바른 인간이란? 공동체3차시 	본문 읽기 활동을 통해 등장인물의 특징을 분석하고 올바른 학교 생활태도 확립할 수 있다	2
	1. HIGH SCHOOL Englissh I Lesson 1. Discover Your Uniqueness 능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는 평안한 마음을 통하여 학문3차시 	피그말리온 효과를 통한 학습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다.	3
한 문	Lesson 2. A Better Life for All 능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곳을 향하여 공동체4차시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한 발명품에 대한 글을 읽고 이타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4
	12.13.14과(천재교육)16과(교학사)14.18과(금성)27과(다락원)+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갖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불어 사는 삶 『해동속소학』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
	12.13.14과(천재교육)16과(교학사)14.18과(금성)27과(다락원)+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갖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합하는 마음 『맹자』 	화합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2
	12.13.14과(천재교육)16과(교학사)14.18과(금성)27과(다락원)+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갖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로운 마음 『논어』 	정의로운 생각과 행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14.22.23.24과(금성)28.29과(교학사)18과(두산)27과(다락원)+25과 맹자(두산)+도덕성의 주체인 나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마다 나를 반성한다. 『논어』 	반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4
	9.17.10(천재)19.20(천재)5.24.26과(두산)14과(금성)27과(다락원)+도덕성의 주체인 나 인식하기+ 계찰괘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고난 착한 마음 『소학』 	착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5
	9.17.10(천재)19.20(천재)5.24.26과(두산)14과(금성)27과(다락원) +도덕성의 주체인 나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심어린 충고 『소학』 	충고와 치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6
	4과(다락원)9과(천재)10과(금성)6.16과(두산)+친구와 바른 관계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용과 배려의 마음 『사기』 『송사』 	포용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7
	4과(다락원)9과(천재)10과(금성)6.16과(두산)+친구와 바른 관계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칭찬과 비방의 차이 『삼국유사』 	칭찬하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8
	4과(다락원)9과(천재)10과(금성)6.16과(두	공평한 마음을 갖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9

	산)+친구와 바른 관계 세우기/ ● 공평한 마음 베풀기 『지봉유설』	알 수 있다.	
	7과(천재)5.28.29과(교학사)8과(금성)4.5과(두산)7과(다락원)+공부의 자세 갖추기 / ● 젊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명심보감(明心寶鑑)』 『회남자(淮南子)』	학창시절의 공부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0
	7과(천재)5.28.29과(교학사)8과(금성)4.5과(두산)7과(다락원)+공부의 자세 갖추기 / ● 공부의 자세 『율곡전서(栗谷全書)』	공부의 바른 자세를 확립할 수 있다.	11
	7과(천재)5.28.29과(교학사)8과(금성)4.5과(두산)7과(다락원)+공부의 자세 갖추기 / ● 안정된 마음으로 하는 공부 『보한재집가훈』	공부는 주위 유혹과 싸우는 노력임을 알 수 있다	12
	9과(금성)7.8과(다락원)8과(천재)27과(교학사)5과(두산)+부모와 나 관계 이해하기 / ● 효에 대한 바른 생각 『효경』	학창시절 효의 의미와 자세에 대해 알 수 있다.	13
	9과(금성)7.8과(다락원)8과(천재)27과(교학사)5과(두산)+부모와 나 관계 이해하기 / ● 부모님께 명예를 『사자소학』	바른 행동을 통해 자긍심 느낄 수 있다.	14
	9과(금성)7.8과(다락원)8과(천재)27과(교학사)5.29과(두산)+부모와 나 관계 이해하기 / ● 역지사지 『사자소학』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 보고 느껴볼 수 있다.	15
총계			39

다. 연구의 실천과제 및 방법

한문 고전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성을 배양시키는 주제를 선택하되 국어 영어 사회 한문 창체 과목의 각 교과 단원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 핵심 주제의 내용과 한문의 고전의 내용을 발췌하여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춰 해당 과목 수업시간에 알맞게 적용 변화시켜 학생들의 인성을 돌아보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과목별로 학생 교과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는 창의성 배양 수업방안을 개발하여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과 간 융합 인성 수업의 실현방법을 수업지도안을 통해 구현하였다.

1) 연구의 실천과제

과제 1 교과 간 융합 창의·인성교재 개발에 효과	1. 창의·인성교육의 목표, 학습 방법, 교수학습 기법 비교 분석
--------------------------------	--------------------------------------

적인 교수·학습안 모형을 개발한다.	2. 창의·인성교육의 교수·학습의 평가 계획 기법 비교 분석
과제 2 범교과 융합 창의·인성교재 교수·학습안을 작성하여 수업에 적용한다.	범 교과(국어, 사회, 영어, 한문)간 융합 창의·인성 교수·학습안 작성 및 수업시간 학생활동에 적용방법 고안. 범 교과(국어, 사회, 영어, 한문) 수업활동에 융합창의·인성교육 적용 및 수업공개 수업지도안작성 발표.
과제 3 창의·인성교육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한다.	융합 창의·인성교재 개발 및 컨설팅현장 적용. 창의 인성 관련 연수 실시 STEAM교육의 목표, 학습 방법에 인문학적 감성을 입혀 공감하고 소통하는 창의·인성교육 역량 강화.

라. 연구의 실천 및 결과

본 연구를 실천하기 위하여 고전을 활용한 창의·인성교재를 먼저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국어 사회 영어 한문 교과별 연관단원을 발췌하여 연관단원 차시별 수업이 가능한 시간에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 차시별 지도안 작성, 평가계획을 구성하였다. 융합 창의 인성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은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illegible]

5. 한문고전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교육사례- 진로활동 연계가능성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한문고전을 활용한 학생 자율 활동 동아리 인성교육은 대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가. 연구의 대상 및 연구기간

▷ 실천 기간 : 2013. 4 ~ 2013. 12

▷ 실천 대상 :

가. 연구 대상 : 대진고등학교 1·2학년

나. 연구 기간 : 2013년 4월 ~ 2013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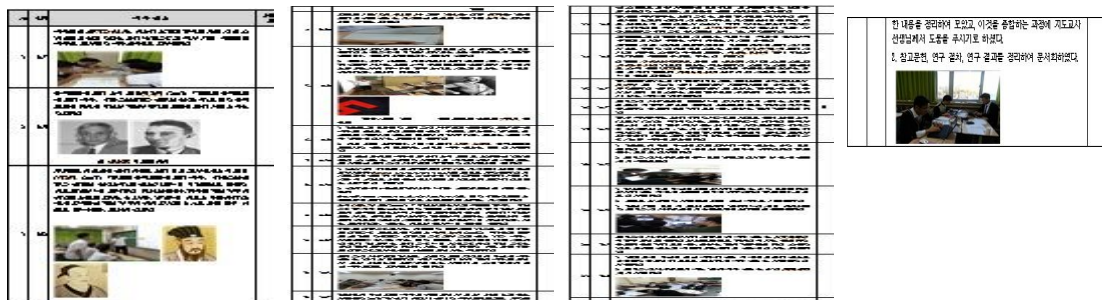
영역	대상	적용시기	비고
자치법정활동	1.2학년	4월~12월	
소논문동아리활동	1.2학년	4월~10월	
학생회활동	1.2학년	4월.5월.6월9월10월11월	

학생자치 법정 담당 학생들은 학교 인성부로부터 벌점당감이 필요한 학생들 명단을 받아서 학생의 벌점 유형에 맞춰 부적응학생 인성교재 매뉴얼을 적용하였다. 해당 학생은 과 벌점 항목에 따라 학생 활동지를 선택하여 벌점의 양에 따라 차시를 실행하였다. 철학적 사고를 통한 소논문작성 동아리 활동은 맹자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지심(不忍之心)을 바탕으로 논의 주제 및 논문의 주제별 토론과 진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인문학적 사색의 중요성과 소논문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보급하여 창·체 한문 시간 진로 인성 융합교육 조별 활동 보고서작성의 틀을 제공하였다. 학생회 중심 학생 자율 활동 인성교육 캠페인 활동은 한문고전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학생회 학생들도 피켓제작과 캠페인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체득하고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다.

나. 소논문작성 동아리 활동 실천 및 결과

먼저 한문고전의 내용과 관련한 철학적 사고를 통한 소논문작성 동아리 활동은 민주시민의 필수 요건인 민주사회 윤리의식, 법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윤리적 사고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맹자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지심(不忍之心)에 두고 민주시민의 건전한 법의식 형성을 주제로 정하였다. 학생들의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불인지심을 함양시키는 방안으로 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생 자치법정 활동과 수업시간 진로 융합 인성교육, 등교시간 학생회주도의 캠페인 활동을 염두에 두고 연구의 실천과제를 정하였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한 불인지심 교육방안 연구 둘째 학생자치법정의 부적응 학생 긍정적 지도 프로그램 방안 연구 셋째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창의적 체험활동 방안 연구라는 세 가지 교육시스템을 통해 불인지심과 학생윤리의식 향상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소논문작성 동아리 활동 실천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다. 학생자치법정 활동 실천 및 결과

학생자치 법정 활동은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상·벌점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학생들이 받는 벌점에 비해 상점을 주는 제도가 빈약하여 학생 벌점자만 양산하게 되어 도덕 불감증과 학생지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다. 대진고등학교에서도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바른 인성을 체득하여 생활태도 개선과 법 교육이 추구하는 건전한 법의식의 함양을 달성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긍정적 지도 방안으로써 한문고전을 활용한 부적응학생 인성교재 학생활동지를 완성하는 것과 벌점자에게 벌점의 다소에 따라 2차시 또는 3차시 한문고전을 활용한 부적응학생 인성교재의 학생활동지를 배부하여 한문고전 명구를 외우고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 받고, 최종적으로 학생 활동지를 완성하여 담당 교사에게 확인받는 방식으로 시간구성을 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으로는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에서 학교생활 과(過) 벌점자들 중에서 대진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바른생활 점수에서 15점 이상의 과 벌점자를 선정하여 자치법정에 회부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지도를 이행하게 하여 벌점을 탕감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1. 아침 피켓운동 - 고전명구 피켓 들기 2. 반성문 쓰기 3. 한문고전을 활용한 부적응학생 인성교재 학생 활동지 완성하기 4. “수업 잘 들어요.” 도장 받기 5. 할당된 학교 구역 청소하기로 정하였다.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규칙위반학생들이 자치법정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고전의 명구를 통해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바른 생각을 바탕으로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진고의 학생자치법정 학교 운영보고서를 통해 자치법정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인 것도 알 수 있었으며 한문고전을 활용한 학생지도 매뉴얼을 학생자치법정의 긍정적 지도에 포함해 시스템으로 만들어 지속할 경우 민주시민의식 교육이 지향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형성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자치법정 활동 실천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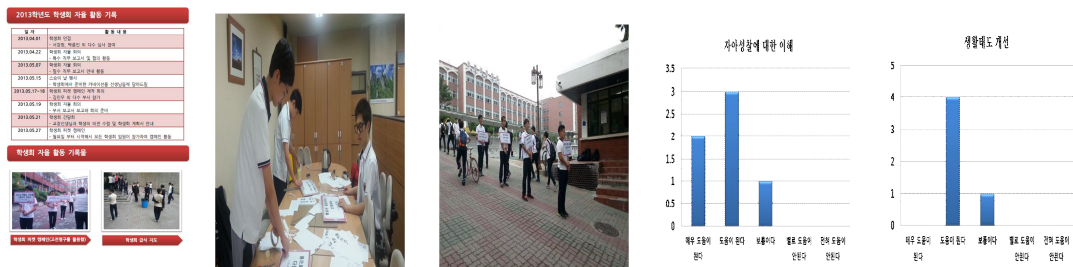


라. 학생회중심 학생 인성교육 캠페인 활동 실천 및 결과

학생회 중심 인성교육 활동으로 한문고전의 문장을 활용하였다. 한문고전의 내용으로 피켓을 제작하여 등교시간 캠페인활동을 통해 이를 내면화하도록 도와 장차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정신적 초석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으로는 2013년 4월·5월·6월과 9월·10월·11월에 교내에서 아침등교시간 교문 캠페인활동을 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회 인성지도 한문고전 명구 캠페인 활동문구는 “올바른 것을 보면 법으로 삼아라[視爲之則]”, “간사한 생각을 막고 성실한 마음을 길러라[閑邪存誠]”, “말은 진실 되고 믿음 있게[言忠信]”, “행실은 믿음직하고 신중하게[行篤敬]”, “복받치는 분을 절제하고 지나친 욕심을 막고[懲忿窒欲]”, “선한 쪽으로 행동하며 잘못이 있으면 고쳐라[遷善改過.]” - 『백호전서』 「白鹿洞規釋義」, “말을 입 밖에 낼 때 조급하고 멋대로 말하는 것을 삼가라[發禁躁妄]”, “옳은 행동을 지켜 나가라[守之於爲]” 『성호사설(星湖僿說)』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몸으로 행함보다 못하고[言之於口, 不若行之于身]”, “몸으로 행함도 마음을 다함보다 못하다[行之于身, 不若盡之于心]” - 『심경(心經)』 등으로 정하여 학생회중심 인성지도를 시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한 효과만을 짐작하였는데, 캠페인 제작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더 활동적인 활동이 되었다. 한문고전의 명구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피켓을 제작하면서 학생회 임원들도 자신들의 인성과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한문고전의 명구들을 함께 나누고 느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회중심 학생 인성교육 캠페인 활동 실천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6. 결론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은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서로 별개가 아니며 서로 융합하고 보완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여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한문고전을 활용한 융합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자성적 대안 마련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이 고전의 명구들을 통해 고민하고 성현들의 명품인성을 자연스럽게 모방하여 익혀 자신의 목표설정 에 대입할 수 있었다. 동시에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과 더불어 목표설정과 난관극복의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체득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내면의 힘을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마해 나아가는 노력이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긍정성을 발현하도록 돕는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 진로의 방향 모색과 학생 자신의 꿈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도록 돕는 수업들이 진정한 창의성 교육이라고 본다. 그 근거에는 옛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으며 선조들의 꿈을 실현한 한문고전의 명구가 있었다고 보며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한문고전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참고문헌

1. 1차자료

고등학교 한문 10종교과서.
『擊蒙要訣』, 전통문화연구회.
『古文眞寶』, 학민문화사.
『論語』, 학민문화사.
『童蒙先習』, 전통문화연구회.
『孟子』, 학민문화사.
『明心寶鑑』, 학민문화사.
『蒙求』
『史記』, 학민문화사.
『四字小學』, 학민문화사.
『小學』, 학민문화사.
『心經』, 학민문화사.
『於于野談』
『中庸』, 학민문화사.
『菜根譚』
『通鑑節要』, 학민문화사.
『孝經』, 학민문화사.

2. 논문

<학위논문>

김주선(2009), 『법교육 방법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윤미(2005), 『한국과 일본의 제 7차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교과내용비교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논문>

강민구(2013),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40집.

- 강선보 외(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 敎育問題研究 30집 pp.1-38.
- _____(2008), 『21세기형 인성에 근거한 인성교육의 방향』 敎育問題研究 30집.
- 김원경·우남희(2002),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3집.
- 김미라(2013), 『공자의 어린이 인성교육에 대한 7가지 원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집, pp.37-36.
- _____(2011), 『소학을 통해 본 인성교육 학습모형 도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집, pp.211-234.
- 김성기(2004), 『인성교육특성화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전통 유학관의 반성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39집.
- 김현수(2005), 『학생인성평가도구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도덕윤리와 교육 21호.
- 남궁달화(2003),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접근』,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류찬산 외(2006),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덕목의 요인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6권, pp.139-166.
- 박숙희·유경훈(2011), 『자아존중감, 창의적 인성,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1집.
- 박윤명(2000), 『도덕적 자율성과 인격의 함양』, 도덕교육학 연구 1집, p.87-99.
- 박의수(2007), 『유가적 전통에서의 인성교육』, 교육문제연구 28집.
- 박춘성 외(2009),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창의·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창의력교육연구학회지 9집, pp.89-112.
- 배상식 외(2012),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 및 실태』, 교육학논총 33권 pp.57-76.
- 서민철(2012), 『인성교육의 윤리학적 기초로서의 덕윤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권, pp.217-241.
- _____, 『인성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 _____, 『인성교육의 회고와 전망 - 서울대 미학과 철학과 교수』.
- 신춘호(2000), 『人性物性同異論辨의 道德教育的 含意』, 도덕교육연구 12집.
- 안병희(2005), 『미국학교에서의 인성교육내용 및 특성연구』, 인문과학연구 13집.
- 윤영돈(2009),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방향 - 범교과학습과 도덕의 연계』, 도덕윤리와교육 29호
- 이경은(2010), 『대학생의 창의적인성과 학습몰입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회 10집, pp.45-59.
- 이상범, 『사자소학을 활용한 인성교육방법 연구』
- 임경수(2012),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동을 활용한 사회과 교과지도와 진로활동의 연계 가능성 탐색』, 교육종합연구.
- 정종진(2003), 『창의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과 그 교육적 시사』, 초등교육연구논총 18집.
- 정찬문(2005), 『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0집.
- 정현희(2012), 『율곡의 인성교육론에 기초한 미술과 인성교육의 관계』, 造形教育 43집.
- 조원일(2010), 『공자의 인성론 연구』, 중국학논총 30집.
- 최규일(1999), 『인성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백록논총 1집.
- 최준환 외(2009),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창의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창의력교육연구 9집, pp.83-122
- _____, 『인성교육의 실천적 원리』
- 한은수(2013), 『초등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 한문교육연구 40집.
- 홍배식(2010), 『사회과 교육영역창의 인성교육의 실제』, 교육문화연구 제16-3호, pp.31-61
- _____(2010), 『사회과교육 영역 창의인성 교육의 실제』, 교육문화연구 16집.
- 홍윤기(2002), 『비판적 사고와 인성』, 철학연구 제 58집.
- 홍혜정 외(2012), 『과학 교과에 적용되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과교육학연구 16집, pp.887-908.
- _____, 『과학 교과에 적용되는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35

집, 2011.

3. 단행본

김여은(2011), 『2011학년도 자기주도학습 담당교원 직무연수』, 실행력을 높이는 목표달성 도구들,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은정 외(2012), 『성찰교실인성교육프로그램』, 서울교육정보원.

_____(2012), 『특별교육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

_____(2013), 『한문고전을 활용한 융·복합 창의 인성 자료집』.

법무부, 「2006년도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p83~p9

윤상철, 『2007중등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 전문 과정』, 논술수업모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정경화, 『2011학년도 자기주도학습 담당교원 직무연수』, 학습 실천 전략,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성민, 『2011학년도 자기주도학습 담당교원 직무연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미경(2013), 『2013 대진 자치법정 창의인성자료 보고서』.

「한문고전을 활용한 교육현장 인성교육 방안」 토론문

허연구(늘푸른고)

한문교육과 인성교육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문교과서의 다양한 제재들이 인성교육의 제재로 최적합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한문 각각의 문장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인성에 대한 인식)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실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활동중심의 수업이 진행된다면 인성교육이 한문 교과의 한 축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장의 한문교사에 의해 한문고전을 활용한 다양한 인성교육의 시도는 한문교육의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토론자는 한문과에서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¹⁾으로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타 교과와의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한문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의 학생지도와 연계하여야 한다.

넷째, 한문과 인성교육 제재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평가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토론자의 제안을 실천해 놓은 사례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성 함양’을 위해 한문 문장을 제재로 하여, 일반학생과 부적응학생(별점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각종 활동의 결과를 제시한 실행연구의 성격이 있다.

논문의 질적 완성도와 학문적 체계성을 위해 다음의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한다.

1. 내용

가. 진로·인성 융합교육 인성교재의 인성항목을 뽑은 기준은 무엇인가?

나. 각 인성항목에 적합한 한문고전 예문들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다. 부적응 학생들에게 한문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문과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일반 학습자들의 한문고전에 대한 흥미 반감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나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마. 2장 ‘부적응학생 인성지도’와 5장 ‘학생자치법정 활동 실천’ 등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것이 아닌

1) 허연구(2013), 한문교과서의 인성덕목 내용과 교수학습방법 고찰, 한문고전연구 26집

가?

바. 4장에서 교과별(타교과) 활동에 한문고전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 체제

가. 논문의 체제가 현장연구 보고서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논지의 치밀성을 위해 필요한 각주 사용과 선행연구 등에 대한 분석 등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4개의 실행연구들은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나 각 항목에서 수업내용이나 실천 및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교사들의 반응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결과물에 대해 가독성이 있는 지면구성이 필요하다.

제3부 자유주제 발표

漢文 텍스트 易讀性 要因 分析을 통한
易讀性 公式 開發 研究

－易讀性 關聯 期待 要因 檢討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김 왕 규 · 박 상 우

漢文 텍스트 易讀性 要因 分析을 통한 易讀性 公式 開發 研究

－易讀性 關聯 期待 要因 檢討를 중심으로－

金王奎(敎員大).朴相雨(敎員大)

-
- I. 緒論
 - II. 研究 節次와 方法
 - III. 易讀性 關聯 要因 檢討
 - IV. 易讀性 測定 公式 構成
 - V. 結論
-

I. 緒論

한문 교육, 특히 한문 독해 교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독해 전략, 한문 독해 및 한자 교수·학습 방법 개발 등에 못지않게 학습자의 한문 능력에 부합할 수 있는 교재의 편찬과 함께 객관적 검토를 통한 텍스트의 選定과 配列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의 한문 능력에 적합한 텍스트의 選定과 配列 이후에야 더욱 精緻하게 독해 전략, 교수·학습 방법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한문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한문 교사들이 한문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 수정·보완하거나 심지어 독자적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¹⁾ 이러한 실태에는 교과서 내·외

1) 성진우는 교과서 재구성에 대한 이유로 교과서 내용의 위계 문제, 수업 시수 문제로 인한 한자·한자어 중심 교육, 평가의 문제 등을 들었다. 성진우(2008), 42-56면 참조.

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교과서 내적 원인을 살펴본다면, 현행 교과서 내의 텍스트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選定·配列되고 있어 학습자의 개인별 한문 교과 이수정도에 따른 학력차를 좁힐 수 있을만한 장치, 즉, 수준별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²⁾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選定·配列된 텍스트로 구성된 교재는 학습자의 한문 독해에 대한 흥미, 동기, 效能感 등을 저하시킨다. 또한 누적되는 독해 실패와 흥미 저하는 학습자에게 한문 텍스트 독해에 대한 두려움·거부감 등의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한문 독해를 멀리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要因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 텍스트 독해에 대한 학습자들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한문 수업은 작게는 한자, 한자어 위주의 단편적인 한문 교육으로의 回歸를, 크게는 언어 교과로서 한문 교과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객관적 검토를 통한 텍스트의 選定과 配列 및 학습자의 한문 능력에 부합하는 교재의 편찬이 시급하다. 즉, 한문 텍스트에 대한 言語的 困難度(linguistic difficulty)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문 교사가 교재를 재구성할 때, 또는 교과서 집필자가 교과서를 편찬할 때, 학습자의 흥미, 배경지식, 교과 내용의 적합성 등과 함께 학습자의 독해 수준에 적합한 텍스트의 言語的 困難度を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言語的 困難度を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易讀性³⁾ 공식(readability formula)과 같은 객관적 척도를 적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평가자의 전문성, 상식, 직관, 일반적 경험, 이론적 추정 등에 의한 주관적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내의 단어나 문장의 어려움을 수치로 변환하여 방정식을 導出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점수들이 그 텍스트에 대한 일반적 수준을 나타내줌으로써 텍스트 選定과 配列을 위한 言語的 困難度を 객관적으로 명시해 준다. 반면 후자는 상기(上記)한 주관적 척도들을 활용해 텍스트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의 주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자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Harrison(1979)의 연구에 의하면, 12명의 교사들이, 특정 글의 독서 연령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려 9년의 편차가 있다고 한다.⁴⁾ 이는 교사 또는 교과서 집필자가 위에 열거한 주관적 척도만을 적용하여 한문 교재를 재구성하거나 교과서를 집필하는 경우에 학습자의 한문 능력에 적절한 텍스트 選定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나 교과서 집필자가 학습자의 한문 능력에 맞는 텍스트를 選定·配列하기 위해서는 言語的 困難度, 즉 텍스트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텍스트의 言語的 困難度を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공식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직관이나 경험, 상식에 의한 주관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⁵⁾

2) 김왕규·김경익(2009a), 229-231면 참조.

3) 易讀性(readability)은 학습자가 문장이나 글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재생시켜 내는 예측 과정의 하나인 독서과정(reading process)에 따라서, 문장이나 글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재생해 내는 정도를 말한다(이홍수, 1985; 3면). 易讀性은 解讀度(조석주, 1983), 易讀度(조석주, 1984), 可讀性(이선희, 1984), 易讀性(이홍수, 1985), 讀易性(차배근, 1988) 등으로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易讀性으로 통칭(通稱)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김창호·김대희(2012)에서도 readability에 상응하는 용어로 易讀性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易讀性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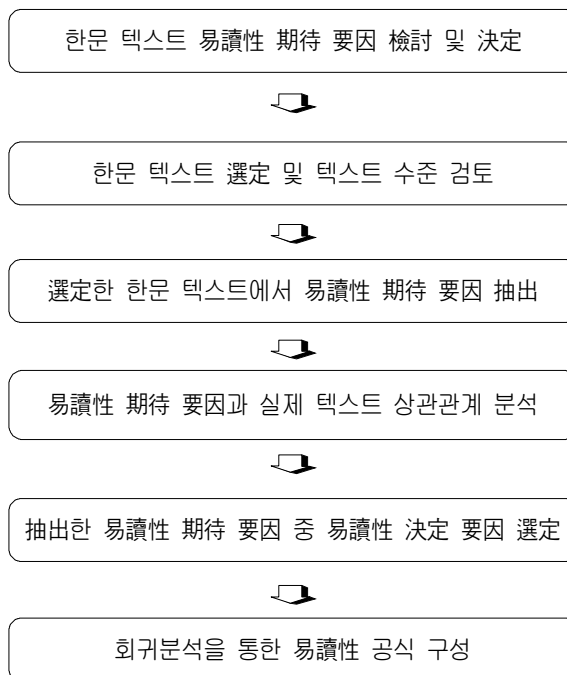
4) 심재홍(1991), 2면 재인용.

위에서 기술한 텍스트의 言語的 困難度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은 외면적으로 상대적 관계로 볼 수 있으나 易讀性 측정을 위한 總體的 관점에서는 相補的 관계로 수렴된다. 텍스트의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要因 중 객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언어적 要因 외에도 비언어적인 要因과 수치화하기 어려운 언어적 要因도 함께 고려해야 더욱 정확한 言語的 困難度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즉, 교재 편찬을 위한 한문 텍스트 選定에 객관적 척도로서 易讀性 공식이 전문가의 전문성, 상식, 직관, 일반적 경험, 이론적 추정 등의 판단과 함께 사용된다면 주관적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도구로써 기능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한문 텍스트 選定·配列과 교재 편찬을 위해 객관적인 텍스트 困難度 측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문 교과에는 텍스트 困難度 측정을 위한 모델이나 易讀性 공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기(多岐)하고 자의적(恣意的)인 텍스트 選定 기준이 산재(散在)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측정 도구 개발을 꾀해 보는 것은 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문의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분석을 통해 한문 易讀性 공식 개발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研究 節次와 方法

易讀性 공식은 어떤 절차를 통해 개발되는가? 아래의 그림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절차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아래 연구 절차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1> 易讀性 공식 개발 연구 절차

5) 심재홍(1991), 2면.

6) 최인숙(2005a), 220면 참조.

1. 한문 텍스트 易讀性 期待 要因 검토 및 결정

한문이든 영어든 국어든 모두 언어로서 보편성을 띠는 要因들과 각 언어의 특수성을 띠는 특정 要因들을 함께 含攝한다. 따라서 한문으로서의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易讀性 決定 要因들만을 包攝하여 한문의 易讀性 期待 要因으로 수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영어와 국어의 易讀性 期待 要因을 한문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취사선택하고, 한문만이 가지는 특징적인 易讀性 期待 要因을 탐색함으로써 易讀性 決定 要因을 抽出한다.

2. 한문 텍스트 選定 및 텍스트 수준 검토

易讀性 연구의 기본 가정은 期待 要因들이 문장이나 글에 포함되었을 때 言語的 困難度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期待 要因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들인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즉, 어떤 텍스트들 내에서 이 期待 要因들을 뽑아보았을 때, 텍스트가 어려워질수록 실제로 이 期待 要因들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차 드는 의문점은 과연 어떤 텍스트가 더 어렵고 어떤 텍스트가 더 쉬운지를 알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글이 중학교 수준이고 어떤 글이 고등학교 수준에 맞닿는 것을 찾아내는 객관적인 모형 구성이 이 연구의 목적인데,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에 글의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준거 자료가 선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⁷⁾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친 전문가로서 교사’에게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교사들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이나 텍스트를 가장 잘 選別 및 配列해낼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을 한 것이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산출된 문장이나 텍스트의 수준은 어려움의 정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⁸⁾

7) 심재홍(1991), 7면 참조. 이 준거 자료는 要因들의 빈도수 집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오른쪽 표와 같이 국어교과서에서 다섯 가지 텍스트를 수준별로 選定했다고 생각해보자. 1단계가 가장 쉽고 5단계가 가장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수준별로 選定한 각각의 텍스트 안에서 앞서 검토하고 결정한 期待 要因들의 수를 세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導出해 내었다고 가정하자.

수준	텍스트 제목
1	김치가 좋아요
2	청주 고인쇄 박물관
3	읽기란 무엇인가?
4	영상매체 시대의 책
5	엔트로피와 시간

要因 수준(텍스트)	①어려운 단어 수	②추상어 수	③접속사수	④지시대명 사 수	⑤대화체 문장 수	⑥느낌표 수	⑦한자어 수
1(김치가 좋아요)	10	2	16	1	9	29	2
2(청주고인쇄박물관)	12	6	11	3	7	61	9
3(읽기란 무엇인가?)	18	9	12	6	3	5	18
4(영상매체 시대의 책)	17	18	6	6	1	0	37
5(엔트로피와 시간)	21	37	5	9	1	7	65

導出된 위 결과를 보면, 음영 처리된 要因들은 문장이나 텍스트의 어려움이 올라갈수록 어떤 ‘경향성’을 보인다. 따라서 느낌표 수를 제외한 음영 처리된 要因들은 문장이나 텍스트의 어려움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위에서 1-5수준으로 選定한 준거 텍스트가 수준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면, 要因들의 경향성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향성을 사용하여 易讀性 공식을 산출해내므로 연구 절차 중 要因 검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8) 텍스트 수준 측정에 필요한 要因들의 빈도수 집계를 위한 준거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은 학년별 교과서 텍스트를 그대

전문가 집단에 의한 텍스트 수준 평가는 10명으로 구성된 한문교사가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 및 글들의 수준을 다섯 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⁹⁾ 10명의 한문교사가 평가할 문장 및 글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 성어, 한시 부분을 제외한 800여 개의 한문 텍스트¹⁰⁾를 抽出한 후 엑셀로 무작위 선별하여 500개를 選定하여 제공하였다. 10명의 한문교사들은 각 문장 및 글들의 어렵고 쉬움을 1-5 수준으로 평가하게 하여 500개의 한문 문장 및 글들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3. 選定한 한문 텍스트에서 易讀性 期待 要因 抽出

1-5 수준으로 평가한 500개의 한문 문장 및 글들의 평가자간 일치도를 측정하였다.¹¹⁾ 이후 수준이 평가된 500개의 한문 텍스트 중 10명 교사의 수준 평가가 동일하게 이루어진 한문 텍스트 순서대로 정렬시키고 이 순서를 기준으로 평가 점수간의 표준편차가 작은 것부터 텍스트를 抽出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500개의 한문 텍스트 중 188개의 텍스트를 표본으로 選定하였다. 188개의 텍스트들은 최대 10명에서 최소 7명의 평가자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 텍스트들이다. 이것 또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측정하

로 사용하거나(최인숙, 2005 외),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수준 평정을 하는 경우(윤창욱, 2006 외)가 있다. 한편, 여기서는 현재 한문 교과서의 글들은 수준별로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9) 텍스트 수준 평정에 참여한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학교급	특성	비고
1	중학교 교사	중고한문교사	
2	중학교 교사	중고한문교사	
3	중학교 교사	교과서 개발	
4	중학교 교사	교과서 개발	
5	고등학교 교사	교육과정 개발, 국가수준 평가문항 개발	교육학 박사
6	고등학교 교사	교과서 개발	
7	고등학교 교사	교과서 개발	
8	고등학교 교사	EBS 집필	
9	고등학교 교사	교과서 개발	
10	고등학교 교사	교과서 개발	교육학 박사

10) 동일하게 중복되는 문장들을 삭제하였고, 겹치는 내용을 가지는 문장들은 더 짧은 문장들을 삭제하였다. 예컨대,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과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이 있을 때, 짧은 문장을 제거하였다.

500개 텍스트의 급내 상관계수(평정자 간 일치도)

	급내상관관계	95% 신뢰구간		실제 값 O(으)로 F 검정			
		하한값	상한값	값	df1	df2	유의확률
단 일							
측도	.748	.722	.774	27.734	500	4000	.000
11) 평균							
측도	.964	.959	.968	27.734	500	4000	.000

일반적으로 급내상관관계 계수 중 단일측도의 값이 0.8 이상이면 평정자 간 일치도가 높다고 한다. 한국교육평가학회(2004), 411면.

었다.¹²⁾

選定한 표본을 대상으로 易讀性 期待 要因의 수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易讀性 期待 要因의 수는 5년 이상 경력의 한문교사 4명이 수행하였다.¹³⁾ 각 期待 要因의 수가 집계되면 이 수치에 의해 각 要因별로 한문 텍스트 수준과의 상관 유무, 상관의 방향과 정도 등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4. 易讀性 公式의 구성

選定된 한문 텍스트에서 집계한 易讀性 期待 要因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텍스트 수준의 변화와 期待 要因들의 빈도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抽出된 要因들이 실제 한문 텍스트 困難度를 결정하는 易讀性 決定 要因이 되는지 검토한다. 이후, 要因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텍스트 易讀性에 중복된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과 불필요한 要因(설명력이 부족한 要因)들을 삭제하도록 한다.¹⁴⁾ 한문 텍스트 易讀性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要因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단순회귀방정식을 導出함으로써 텍스트 困難度 측정을 위한 공식을 구성하고 설명력이 큰 공식을 선별한다. 또한 텍스트 困難度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중다회귀방정식을 구성한다. 단순회귀방정식만으로 텍스트의 易讀性 公式로 삼기에 부족한데 텍스트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易讀性 期待 要因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회귀방정식보다 설명력이 큰 공식이면 채택하도록 한다.¹⁵⁾ 곧, 여기서 導出한 회

188개 텍스트의 급내 상관계수(평정자 간 일치도)

	급내상관관계	95% 신뢰구간		실제 값 0(으)로 F 검정			
		하한값	상한값	값	df1	df2	유의확률
단 일 측도	.841	.811	.869	48.536	188	1504	.000
12) 평균 측도	.979	.975	.984	48.536	188	1504	.000

일반적으로 급내상관관계 계수 중 단일측도의 값이 0.8 이상이면 평정자 간 일치도가 높다고 한다. 한국교육평가학회(2004), 411면.

13) 易讀性 期待 要因 抽出에 참여한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학교급	비고
1	중학교 교사	한문교육 석사과정
2	고등학교 교사	한문교육 석사과정
3	중학교 교사	한문교육 석사과정
4	중학교 교사	한문교육 석사과정

14) 예를 들어, 易讀性 決定 要因 중 한자와 획수 간의 상관이 0.9로 나왔다면, 두 要因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要因은 텍스트의 易讀性에 중복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要因 분석을 통해 제거 또는 동질적인 몇 개의 要因으로 묶어줌으로써 要因들 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차원을 발견하고 要因들의 특성을 밝히며, 또한 초기 결정 要因들을 줄이면서도 원래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백순근, 2004; 강상진, 2007; 이순목, 2010. 참조).

15) 심재홍(1991); 최인숙(2005a), 참조. 易讀性 公式 구성을 위한 연구 대부분은 위와 같은 통계 처리를 거친다. 다만, 통계 자료의 범주가 두 가지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범주가 통계자료를 변별하는데 가장 의의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분

귀방정식이 한문 易讀性 決定 要因을 독립 변인으로, 종속 변인을 한문 텍스트 困難度 점수로 둔 易讀性 공식이 되는 것이다.

III. 易讀性 관련 要因 검토

한문을 단순히 문자의 나열이 아닌 의미의 표상, 문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言語的 困難度에 비추어 보면 어떤 언어든 보편적으로 가지는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주는 要因이 있고, 또 각 언어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要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문의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언어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가진다는 가정 하에 抽出해보고자 하였다. 즉, 국어, 영어 등의 易讀性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選定한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을 참고하고, 한문과 국어의 차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한문에서 나타나는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要因들을 抽出하였다.

<표 1> 한문 텍스트 易讀性 期待 要因

區分			期待 要因
보편성	의미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형태	품사의 종류와 특성	지시대명사
	통사	문장의 길이	문장 당 한자의 평균 개수
		구와 절(구절)의 길이	구절 당 한자의 평균 개수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구절
		문장의 표현 방식	반어법
			대우법
		문장의 유형 ¹⁶⁾	부정문 사역문
특수성	의미	단어의 의미	字義로 의미 파악이 불가능한 단어/전고가 있는 단어
	형태	품사의 종류와 특성	품사의 통용
	통사	허사의 특성	之
			於, 于, 乎
			以
			所 而
		문장의 구조	우리말 어순과 구조가 동일한 문장과 단어

1. 언어의 보편성에 의거한 要因

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통계 처리에 추가하기도 한다. 심재홍(1991)은 통계자료를 세 가지 범주(문종, 易讀性, 要因)로 나누었고, 세 범주 중 가장 변별력 높은 것을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16) 발표문에는 문장의 유형의 두 요소는 제외되어 있다. 재분석을 통해 추가할 예정이다.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든 말소리, 표기 문자, 어휘 등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약속된 체계를 통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인 요소들이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언어가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또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였다. 따라서 한문의 困難度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要因들을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제시된 易讀性 決定 要因들 중에서 抽出해 보았다.

1)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① 期待 要因으로써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選定 근거

易讀性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거의 대부분의 분석에서 어휘는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간주되고 있다. Chall(1958, 14면)의 보고에서, 난이도 구별 기준을 어휘의 난이도에 두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어휘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단어의 길이와 의미 분석이다. 그러나 단어의 길이가 결정적 要因이라는 견해에 비판적인 견해도 많다. 특히 국어, 한문에서는 단어의 길이가 단어의 어려움을 나타내주는 要因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영어와 같은 경우의 언어에서는 일정부분 단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易讀性이 떨어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 즉, 한문이나 국어에서 단어가 길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장이나 글을 어렵게 느낀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한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가 1글자 내지는 2~3글자(음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단어의 길이는 易讀性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생소한 단어,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 대표적으로 쓰이는 뜻으로 문장 또는 글에서 사용될 때에는 충분히 易讀性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어가 본래의 대표적, 정상적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 문장 또는 글은 반대의 경우보다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 또는 음으로 문장과 글에 사용되지 않은 한자를 한문의 言語的 困難度를 높이는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였다.¹⁷⁾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상기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글의 易讀性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要因에 어휘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영어의 경우 대표적인 공식인 Dale-Chall(1948) 공식뿐만 아니라 Clifford(1978)와 Klare(1963, 1974-1975)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휘를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選定하고 있다. 選定 방법은 대체로 사용빈도에 따른 단어 목록표를 활용한다. 다시 말하면 친숙도가 높은 단어를 목록화 하고 그 이외의 단어를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한문에서도 빈도를 중심으로 한자를 목록화한 연구(허철, 2008a; 2008b; 2010a; 2010b)가 있지만 어휘의 빈도에 따라 모국어 학습자들이 느끼는 친숙도와 한문 학습자들이 한자 빈도에 따라 느끼는 한자에 대한 친숙도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를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였는데 이 또한

17) 아래의 期待 要因 별 표에 대한 설명은 발표 시 사용하는 PPT자료로 대신한다.

대표 訓音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무엇으로 설정해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난처함이 존재한다. 또한 계속된 변화를 겪는 것을 언어의 특성이라 보았을 때, 과연 ‘대표’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은 병존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자의 대표 訓音은 5년 이상의 한문 교사 4명이 期待 要因을 抽出하면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¹⁸⁾ 이는 객관적이고 實證的인 易讀性 연구에서 주관적인 교사의 판단이 개입한 것인데 한자 要因을 제외하고 한문 易讀性 공식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심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험에 의한 기준을 근거로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要因을 選定하였다.

③ 期待 要因 분석 방법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의 비율은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의 수를 구절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100어절 속에 들어 있는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의 개수를 의미하게 된다. 100어절 당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의 비율로 변환하는 이유는 텍스트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전체적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표 2> 텍스트 수준에 따른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要因의 비율 변화

要因 수준 ¹⁹⁾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1	607	169	70	32.5
2	1009	228	70	36.8
3	1201	278	61	28.1
4	816	193	47	34.7
5	2476	531	149	52.5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① 期待 要因으로써 지시대명사 選定 근거

지시대명사는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글을 연결해주는, 글의 의미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어 형태이다. 글을 읽을 때, 학습자가 지시대명사를 마주하게 되면 의미 파악을 위해 지시대명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의 수가 많은 글은 言語的 困難度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

18) 대표 訓音을 예컨대, 韓國語文會 등에서 제시하는 訓音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도 있었으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형식을 차용한 이유는 연구자가 4명의 교사들이 要因을 抽出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학습자들을 교수한 경험이나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의견을 통해 期待 要因이나 대표 訓音에 대한 實證的인 증거(empirical evidence)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 과정을 모두 마친 후 4명의 교사들이 분석한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要因과 품사의 통용 要因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19) 한문 텍스트의 어려움을 1(아주 쉬움)부터 5(아주 어려움)까지로 표시했다.

한 현상은 언어 보편적인 것으로 한문에서도 지시대명사가 言語的 困難度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인칭대명사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인칭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은 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것보다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글의 의미 파악에 지시대명사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인칭대명사(吾, 我, 汝 등) 외에 특수한 것들, 예컨대, 小子, 愚, 君, 子 따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부분은 인칭대명사 要因보다는 대표음훈이나 어휘 要因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욱 분석의 편의성 면에서 뛰어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는 제외하고 지시대명사만을 要因으로 選定하였다.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시대명사를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²⁰⁾라고 대명사 내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다. 한문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시대명사는 ‘是, 此, 斯, 其, 彼, 之’ 정도를 들 수 있다. 세분해보면 더욱 많아지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로 한정하고 있고 설명 교과서 내에 위에 예시를 든 것 이외의 지시대명사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위의 예의 출현 빈도에 비하여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대표적인 지시대명사만을 산정해도 유의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부정칭(各, 皆, 咸, 舉 등)은 제외하였는데, 글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내용을 파악할 필요 없이 각 지시대명사의 의미만을 파악해도 충분히 글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칭이 言語的 困難度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상하였다. 특히 상기한대로 출현 빈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是, 此, 斯, 其, 彼, 之’ 따위의 지시대명사만으로도 글의 난도에 따른 지시대명사 要因의 증감 추이를 충분히 살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期待 要因 분석 방법

지시대명사의 비율은 지시대명사의 수를 구절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100어절 속에 들어 있는 지시대명사의 수를 의미하게 된다. 100어절 당 지시대명사의 비율로 변환하는 이유는 텍스트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전체적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0) 교육과학기술부(2008), 183면.

<표 3> 텍스트 수준에 따른 지시대명사 要因의 비율 변화

要因 수준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지시대명사
1	607	169	70	2.4
2	1009	228	70	7.5
3	1201	278	61	7.2
4	816	193	47	7.3
5	2476	531	149	13.2

3) 문장의 길이

① 期待 要因으로써 문장 당 한자의 평균 개수 選定 근거

영문의 경우 Flesch의 수정된 공식(1948) 이래 많은 공식들이 문장의 길이를 어휘 要因과 함께 가장 결정적인 易讀性 要因으로 생각하여 공식의 독립변인의 하나로 다루어 왔다.²¹⁾ 일반적으로 글이나 말을 통해 전달할 정보가 많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이해가 어렵고 문장의 길이 또한 길어지게 된다.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쉬운 문장보다 문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문장 복잡성과 문장의 길이는 서로 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²²⁾ 한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한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반대의 문장보다 각 한자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서술해주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어기(語氣) 등을 나타내주는 문법적 요소들이 문장에 개입될 여지가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할 정보가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한자들이 많을수록 言語的 困難度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문장의 길이는 전술한 단어의 길이와는 달리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라고 추정하였다.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한문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단순히 문장이 길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고, 반대로 문장이 짧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아무리 문장이 길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문장이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 안에 깊이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문은 文·史·哲을 아우르며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 가치관과 문화 의식을 담고 있으며, 가치중립적인 다른 외국어와는 달리 일정한 가치지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²³⁾ 상기한 바와 같은 경우가 매우 빈번히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문장을 이루는 한자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문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言語的 困難度의 증감을 단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21) 심재홍(1991), 62면 참조.

22) 심재홍(1991), 62면.

23) 교육과학기술부(2008), 158면.

한문의 특성은 言語的 困難度를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수량화(數量化) 할 수 있는 要因들로만 言語的 困難度를 산정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③ 期待 要因 분석 방법

이 글에서는 문장의 길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하나의 한문 문장을 이루는 한자의 평균 개수를 사용한다. 즉, 하나의 한문 문장을 이루는 한자의 평균 개수는 각 표본의 전체 한자 수를 전체 문장의 수로 나눈 수치이다. 이는 하나의 한문 문장이 평균 몇 개의 한자로 이루어졌는지 나타내준다. 따라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한자의 평균 개수로 나타내는 이유는 각 텍스트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전체적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표 4> 텍스트 수준에 따른 문장 당 한자의 평균 개수 要因의 변화

수준 \ 要因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문장 당 한자의 평균 개수
1	607	169	70	8.7
2	1009	228	70	14.4
3	1201	278	61	19.7
4	816	193	47	17.4
5	2476	531	149	16.6

4) 구와 절(구절)의 길이

① 期待 要因으로써 구절 당 한자의 평균 개수와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구절 選定 근거

앞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짧은 문장보다 더 문법적으로 복잡해지고 전달할 정보나 내용의 구조가 더 심층적이기 때문에 言語的 困難度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와 절의 길이를 易讀性 期待 要因으로 選定한 근거는 문장의 길이 要因을 選定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전체적인 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구와 절의 길이를 易讀性 期待 要因으로 選定한 것은 단순히 한 문장의 길이가 절대적으로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명의 평가자가 평가한 문장의 수준에서 1등급(가장 쉬움)으로 판정한 ‘天地有四方, 前爲南, 後爲北, 左爲東, 右爲西.’라는 문장과 5등급(가장 어려움)으로 판정한 ‘廢族唯於科宦有忌耳, 以之爲聖人無忌也’는 한 문장을 구성하는 한자의 수가 17개로 동일하다. 즉, 문장 길이만으로 판단한다면 두 문장의 言語的 困難度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첫째, 정보나 내용의 어려움, 둘째, 각 구절별로 言語的 困難度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상기했던 대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要因을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자의 내용을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고자 하였다. 즉, 문장의 길이를 期待 要因으로 選定한 것과 같이 각 구절의 평균적인 길이가 길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言語的 困難度를 가중시킨다고 예상한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구절은 현토와 현토 사이 또는 표점과 표점 사이를 나타내는데, 현토와 표점이 국어나 영어의 (격)조사나 국어에서의 연결 어미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현토나 표점 사이의 구절들을 하나의 문장이 완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따라서 구절이 길어진다면 짧은 구절보다 대체적으로 言語的 困難度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문장의 길이로 言語的 困難度를 산정하는 이전 要因과 마찬가지로 과연 구절이 길수록 言語的 困難度가 높아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거나 의미 간의 선후를 나타내거나 서로 보충을 해 주거나 부연을 할 蓋然性이 높아지는 것은 보편적인 언어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다. 다만 보편적인 모습 이면에 예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要因들 간의 경향성을 따져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방법이자 내용이기 때문에 전술한 易讀性 공식의 한계점은 차후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것으로 의의를 삼고자 한다.

③ 期待 要因 분석 방법

구와 절의 길이 要因은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 표본의 전체 한자 수를 전체 구절의 수로 나누어 나타낸다. 이는 한 구절이 평균 몇 개의 한자로 구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둘째, 표본 내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구절의 총 개수를 전체 문장의 수로 나누어 나타낸다. 이는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긴 구절이 한 문장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평균치로 변환하는 것은 텍스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증감하는 수치의 경향성을 전체적으로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표 5> 텍스트 수준에 따른 구와 절(구절)의 길이 要因의 변화

要因 수준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구절 당 한자 의 평균 개수	5개 이상의 한 자로 구성된 구절
1	607	169	70	3.6	0.3
2	1009	228	70	4.4	1.3
3	1201	278	61	4.3	1.6
4	816	193	47	4.2	1.6
5	2476	531	149	4.7	1.6

5) 문장의 표현 방식

24) 교육과학기술부(2008), 164-165 참조.

① 期待 要因으로써 반어법과 대우법 選定 근거

글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의 목적에 따라 작자는 여러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문장의 표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강조법, 비유법, 변화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들은 문장이나 글을 이해할 때 또는 1차적으로 문장이나 글을 풀이할 때 言語的 困難度를 높이거나 또는 낮출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국어와 영어의 易讀性 연구들에서는 문장의 표현 방식을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 예상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문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수치화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한문에서는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대우법과 반어법과 같은 문장 표현 방식은 직접적으로 그 형태가 문장의 표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수량화할 수 있는 편의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우법은 자수와 구법이 서로 같거나 서로 비슷한 어구의 표현을 이용하기 때문에²⁵⁾ 분석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문장에 등장할 경우 학습자들이 느끼는 言語的 困難度를 낮추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어법은 표현하려는 원래의 뜻을 정 반대가 되는 의미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단순히 지시적 의미가 아닌,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변화시킨다고 판단하였다. 즉 반어법이 사용된 문장을 독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단순히 문장의 일차적 의미만을 파악해서는 안 되고, 둘째, 상황에 따라서는 문맥과 관련시켜 의미를 확장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어법이 가지는 言語的 困難度는 매우 유의하다고 예측하였다. 한편 반어법이 사용되는 문장이 대체로 의문형으로 종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성에 있어서도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여러 문장의 표현 방식 중 단 두 가지만을 期待 要因으로 選定한 것이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표현 방식은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명시한 비유를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선, 많은 문장의 표현 방식 중 한문 문장, 특히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방식은 몇 가지로 한정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많은 표현 방식 중 대우법은 직접적으로 그 형태가 문장의 표면에 드러나고, 서로 같거나 서로 비슷한 어구의 표현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표현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言語的 困難度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要因 抽出의 편의성이며 수량화의 가능 여부인데, 예컨대, 비유를 산정하게 되면, 비유가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라고 하더라도, ‘如’와 같은 가시적인 標識 외에도 문장 전체나 글의 전반적인 내용도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수량화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5) 교육과학기술부(2008), 199면.

③ 期待 要因 분석 방법

문장의 표현 방식 要因은 반어법과 대우법을 별도로 산정한다. 우선 반어법은 표본에서 반어법이 사용된 문장 수를 표본의 총 문장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나타낸다. 이는 100개의 문장 중 쓰이는 반어법의 평균 비율이 된다. 대우법은 자수와 구법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어구의 표현으로 쓰인 구절을 1회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天知, 神知, 我知, 子知.’와 같은 문장은 ‘天知’ 하나의 구법으로 대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회로 분석한다. 또 다른 예로,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와 같은 문장은 ‘知之者’, ‘不如好之者’ 두 개의 구법으로 대우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여 2회로 분석하였다.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대우로 분석해야 옳을 것이나 抽出의 편의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대우법 또한 반어법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100개의 문장 중 대우법이 쓰이는 비율로 期待 要因을 산정한다.

<표 6> 텍스트 수준에 따른 문장의 표현 방식 要因의 비율 변화

要因 수준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문장의 표현 방식(반어)	문장의 표현 방식(대우)
1	607	169	70	1.4	17.1
2	1009	228	70	0.0	14.3
3	1201	278	61	3.3	8.2
4	816	193	47	8.5	8.5
5	2476	531	149	20.1	6.7

2. 한문의 특수성(국어와 한문의 비교·대조)에 의거한 要因

대조분석이란 두 개별 언어를 상호 대조하여 그 언어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연구이다. 두 언어를 비교하여 언어적 보편성과 특정한 차이점이 나타날 때, 대조분석에서는 특정한 차이점에 주목한다. 학습자들은 특정한 차이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대조분석의 합리적 설명은 제2언어 학습에서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두 언어의 대조에서 미리 인식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관점 하에서 한문과 국어를 대조분석함으로써 한문 학습자들이 문법적, 어휘적 영역에서 어떠한 언어적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지 예상하고 이를 통해 한문의 困難度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要因들을 抽出해 보았다.

1) 단어의 의미

① 期待 要因으로써 자의(字義)로 의미 파악이 불가/전고(典故)가 존재하는 단어 選定 근거

한자는 뜻이 상대되거나 비슷한 것끼리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고(典故)

26) 박경자·장복명·강복남(2006), 『언어교수학』, 박영사. 136-138면.

를 품고 있는 단어, 단어 자체가 개념어인 경우도 많다. 표면적인 뜻으로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²⁷⁾ 김경익(2014)이 제시한 학습자들의 오역 사례에서도 이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한자 하나하나의 뜻에 제한되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단어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문장 또는 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우리말과는 다르게 문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존재하는 표의 문자를 사용하는 한문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言語的 困難度가 높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어로 인식해야 하는 것과 한자의 뜻에 제한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전고를 품고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단, 교육과정 상에 서술해 놓은 단음절 단순어는 期待 要因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고유명사도 제외하였는데, 고유명사의 제외 이유는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교과서 내의 글에서는 학습자가 고유명사인 것을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두어서 크게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단어 전체를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어 전체를 산정하게 된다면 그 수가 너무 많아지고 따라서 변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한문의 특징적인 면인 전고성과 한자 하나하나의 풀이대로 단어의 풀이가 되지 않는 것으로 期待 要因을 한정시켰다.

③ 要因 분석 방법

단어의 의미 要因은, 상기한대로, 첫째,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대로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단어와 둘째, 전고가 있는 단어의 표본 내 총 개수를 산정(算定)하여 총 문장의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수치는 100문장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 要因의 개수를 의미한다. 100문장 당 要因의 개수로 수치를 변환하는 이유는 우선 텍스트 크기가 다르고,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要因을 산출하게 되면 수치가 너무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要因 변화의 경향을 비교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 7> 텍스트 수준에 따른 字義로 의미 파악이 불가하거나
전고가 존재하는 단어 要因의 비율 변화

<div> <div>要因</div> <div>수준</div> </div>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字義로 의미 파악이 불가/典故가 존재하는 단어
1	607	169	70	0.0
2	1009	228	70	8.6
3	1201	278	61	16.4
4	816	193	47	14.9
5	2476	531	149	28.2

27) 김경익(2014), 95면.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① 期待 要因으로써 품사의 통용 選定 근거

문장 내에서 품사의 변화는 한정된 어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 방편으로 많은 언어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다만 형태의 변화, 즉 語形變化를 통해 어휘가 문장 속에서 여러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는 膠着語(agglutinative language)와 屈折語(inflexional language)이다. 대표적인 孤立語(isolating language)인 한문은 어휘에 語形變化나 접사(接辭) 없이 해당 어휘가 문장 내에 위치하는 어순 또는 여러 어휘와의 관계에 의해 품사의 쓰임이 변화되고 결정된다. 즉, 활용과 파생 시 형태의 변형은 孤立語인 한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膠着語와 屈折語에서 말하는 품사의 활용과 파생, 전성(轉成) 등은 여기에서는 품사의 통용²⁸⁾이라 명명하였다. 품사의 통용은 하나의 어휘가 형태의 변화 없이 각기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문에서 품사의 통용은 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한 품사들의 문장 성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문법적 직관을 가지는 모국어가 아닌 이상 독해를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 어순, 문장 성분들 사이의 관계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膠着語나 屈折語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語形變化의 모습이 孤立語인 한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품사가 통용되어 문장에서 품사나 성분이 바뀌어도 형태 변화 없이 문장 내 위치만을 변화시키는 孤立語의 품사 통용 특징은 言語的 困難度를 가중 시킬 수 있는 要因으로 예상하고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였다.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품사의 통용이라는 期待 要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품사, 즉, 대표 품사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위에서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要因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한 것이다. 위에 이미 기술한 문제 때문에 여기서도 5년 이상의 한문 교사 4명이 期待 要因을 抽出하면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대표 품사는 교사들의 교수·학습 경험과 판단으로 대표 훈의 품사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품사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사의 통용을 분석하였다.²⁹⁾ 이는 객관적이고 實證的인 易讀性

28) 여기서 품사의 통용이라 命名한 要因은 한문과 교육과정에 품사의 활용으로 서술되고 있다. 우선 품사의 통용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어휘가 여러 품사로 사용되는 것을 품사의 활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한문과의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국어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에서 품사의 ‘활용’은 대체로 용언의 어미(語尾, 국어에서는 어말어미final ending와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로 구분한다) 변화를 가리킨다. 한편 활용 이외에 품사의 ‘통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품사의 통용은 하나의 어휘가 각기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a.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 ‘b. 물건을 여기에 놓아라.’ 두 문장을 보면 (a)의 ‘여기’는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b)의 ‘여기’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 즉, 형태는 동일하지만 문장 내에서 쓰이는 기능에 따라 품사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期待 要因도 동일한 한자가 형태 변화 없이 쓰이는 기능에 따라 품사가 변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의 품사의 활용이라는 용어보다는 품사의 통용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하는 품사의 통용은 교육과정 상의 품사의 활용과 동일한 개념이다.

29) 앞서 논의한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要因 분석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주관적인 교사의 판단이 개입한 것이지만, 품사의 통용 要因을 제외하고 한문 易讀性 공식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심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험에 의한 기준을 근거로 품사의 통용 要因을 選定하였다.

③ 期待 要因 분석 방법

품사가 통용된 어휘의 비율은 표본에서 품사가 통용된 어휘의 총 개수를 한자의 총 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표본에서 사용된 한자 중 품사가 통용된 한자의 백분율을 의미하게 된다. 백분율로 변환하는 이유는 텍스트 크기가 달라 사용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期待 要因 변화의 경향을 비교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8> 텍스트 수준에 따른 품사의 통용 要因 비율 변화

要因 수준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품사의 통용
1	607	169	70	5.9
2	1009	228	70	4.7
3	1201	278	61	4.3
4	816	193	47	4.8
5	2476	531	149	6.9

3) 허사의 특성

① 期待 要因으로써 之/於, 于, 乎/以/所/而 選定 근거

국어에서든 영어에서든 문장이나 글에서 한문의 허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품사나 성분들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한문에서의 처소, 대상, 도구, 비교 등을 나타내는 품사들로 국어에서의 조사나 부사, 영어에서의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를 들 수 있다. 세 언어에서 이 품사들은 문장 내에서 부가적인 부분(additional part)임을 나타내주는 표지 역할을 한다. 즉,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語氣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처소, 대상, 도구 등을 나타내주는 역할³⁰⁾을 한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크게 필수적인 부분(essential part)과 부가적인 부분(additional par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가적인 부분은 정보 전달을 할 때, 필수적인 부분만으로는 전달이 미흡할 경우 덧붙여서 전달할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부연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가적인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장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이 허사를 期待 要因으로 選定한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어순과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에서 세분해 놓은 허사의 종류 중에서 개사는 우리말의 조사와 관련된다. 우리말에서 조사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의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30) 교육과학기술부(2008), 193-196면 참조.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품사이다. 반대로 한문에서는 체언이라고 할 수 있는 名詞類의 앞에 위치하여 처소, 대상, 도구, 수단, 자격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국어와 한문의 차이점은 얼핏 생각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한문 문장에서 여럿 등장하는 허사들의 쓰임을 고려한다면 言語的 困難度를 높이는 要因으로 예측할 충분한 蓋然性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주로 두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따라서 이런저런 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측(prediction)할 수 있다는 대조언어학의 주장³¹⁾ 또한 모국어와 한문의 이러한 차이를 期待 要因으로 판단하는 데 시사(示唆) 하는 것이 적지 않다.

위의 두 가지 選定 근거에 부합하는 허사는 개사와 접속사³²⁾, 두 가지이다. 우선 어조사를 제외한 것³³⁾은 주로 문장의 끝에 쓰이기 때문에 쓰임의 위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크게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 반어의 어기를 나타내는 乎나 哉는 앞선 반어에 대한 期待 要因으로부터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허사 要因에서는 ‘之³⁴⁾’, ‘於, 于, 乎’, ‘以’, ‘所³⁵⁾’, ‘自-’, ‘而’가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易讀性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였다.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허사 要因에서 문제점은 문장에 쓰이는 많은 허사들 중 몇 개로 축소하여 要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허사들은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허사가 교육과정 상에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등장하는 모든 허사들이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인 한문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언어 교육에서 이러한 차이점은 言語的 困難度를 높이거나 낮추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표인 易讀性 공식의 조건은 정확성도 물론이거니와 사용의 편의성 또한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즉, 가장 言語的 困難度를 잘 드러낼 수 있음직한 期待 要因들을 選定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選定 근거를 설명한대로, 사용 또는 의미가 임의적이고, 여러 위치에서 쓰이며, 우리말과 상이한 순서 등을 근거로 하여 최소한의 期待 要因을 選定한 것이다. 또한 단지 언어 간 차이점을 고려한 것 외에도 實證的인 증거(empirical evide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습자 誤謬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期待 要因을 取捨選擇하였다.³⁶⁾

31) 허용·김선정(2013), 4-8면 참조.

32) 여기서 접속사는 而만을 選定하였다.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且, 與, 則은 대체로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and 와 -면), 접속사로 쓰이는 以는 개사로 쓰이는 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而是 상반된 두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 뒤 문맥에 적절하게 풀이해야하기 때문에 타 접속사들에 비하여 言語的 困難度를 높이는 要因으로 예상하였다.

33) 교육과정에 어조사로 분류되어 있는 所는 처소, 사건, 사실 등을 말해주는 의존명사처럼 문장 내 곳곳에서 사용됨으로써 다른 어조사들(여기서는 要因에서 제외한 교육과정 상의 也, 矣, 而已 등)보다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34) 之는 후치사(後置詞)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순 상 우리말과 유사하지만 용법 자체가 주격, 관형, 목적, 지시 등으로 다양하고 대단히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말과의 어순이 상이하거나 유사한 것에 별개로 易讀性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고자 한다.

35) 허사 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대체로 처소, 사건, 사실 등을 말해주는 관형사형 어미처럼 사용됨으로써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대체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③ 期待 要因 분석 방법

허사 要因은 위에서 選定한 개개 허사들의 표본 내 총 개수를 구절의 총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한 구절 내에 쓰이는 허사의 평균 개수를 의미하게 된다. 한 구절 당 허사의 평균 개수로 변환하는 이유는 텍스트 크기가 달라 사용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期待 要因 변화의 경향을 비교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9> 텍스트 수준에 따른 허사 要因들의 비율 변화

要因 수준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之의 총 개수	於/于/ 乎의 총 개수	以	所	而
1	607	169	70	8.3	2.4	0.0	0.6	3.6
2	1009	228	70	17.1	3.9	3.5	1.8	10.5
3	1201	278	61	13.7	2.2	6.5	0.7	7.2
4	816	193	47	15.0	4.1	6.2	3.1	8.3
5	2476	531	149	22.4	4.3	6.6	2.8	10.7

4) 문장의 구조

① 期待 要因으로써 우리말 어순과 구조가 동일한 문장과 단어 選定 근거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여러 가지 要因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는 가장 중요한 要因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관점은 외국어 습득에 대한 주요 장애물을 모국어의 干涉(interference)이라고 보는 대조 언어학의 입장과도 일치한다.³⁷⁾ 즉, 이 이론에 따르면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 간의 차이로부터 言語의 困難度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대조 분석적 접근 방식을 따라 모국어인 한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인 한문을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두 언어의 어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어순의 차이는 言語의 困難度를 높이는 한 要因이 될 蓋然性을 가지고 있다. 대조 분석의 문법적 난이도 등급표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는데, 어순의 차이는 6등급 중 제2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³⁸⁾ 사실 어순의 차이가 言語

36) 김경익(2014), 66-112면 참조.

37) 허용·김선정(2013), 1-2면.

38) 박경자·장복명(2011), 173면.

	모국어	제2언어
1	∅	어떤 구문형태나 범주
2	어순의 차이	
3	어떤 구문형태나 범주	∅
4	각 범주의 일치	
5	단순 형태 유형	다양한 형태 유형
6	다양한 형태 유형	단순 형태 유형

的 困難度를 높인다는 것은 어떤 외국어든 우리말과 어순 차이가 있는 언어를 교수·학습해본 경험이 있다면 대조 언어학이라는 학문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귀납적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 어순과 구조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단어나 문장을 易讀性 期待 要因으로 選定하였다. 어순이 동일한 것이 많을수록 한문 문장이나 글의 言語的 困難度가 낮아질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이다.

② 期待 要因의 문제점

이 要因의 문제점은 대조언어학이 받는 비판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단순히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이는 글의 어려움의 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근래의 관점에 터한 것인데, 보다 정확한 글의 어려움을 따져내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수량화할 수 있는 양적인 要因과 수량화할 수 없는 질적인 要因, 그리고 독자 要因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易讀性 공식이 갖는 태생적 한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총체적인 글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수량화할 수 있는 要因들만으로 글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과 비판점은 次 第의 연구에서 考究할 사항으로 남겨 놓고자 한다.

③ 期待 要因 분석 방법

문장의 구조에 대한 期待 要因은 우리말과 어순이 동일한 문장과 단어의 총 개수를 구절의 총 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구절에 사용되는 우리말과 어순이 동일한 문장과 단어의 백분율을 의미하게 된다. 백분율로 변환하는 이유는 텍스트 크기가 달라 사용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期待 要因 변화의 경향을 비교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11> 텍스트 수준에 따른 우리말 어순과 구조가 동일한 문장과 단어 要因 비율 변화

<div> <div>要因</div> <div>수준</div> </div>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우리말 어순과 구조가 동일한 문장과 단어
1	607	169	70	38.5
2	1009	228	70	27.6
3	1201	278	61	21.2
4	816	193	47	15.0
5	2476	531	149	26.9

IV. 易讀性 測定 公式 構成

易讀性 측정 공식 구성은 현재 집계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각 期待 要因들의 상관관계 표를 부록으로 제시한다.

V. 結論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수준에 알맞은 텍스트를 選定하기 위해, 크게는 한문 교육 위계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한문 텍스트 易讀性 공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객관화할 수 있는 要因을 기반으로 구성된 易讀性 공식은 전문가 판단을 보강·수정해 주는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전문가의 주관적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학년 수준에 적절한 텍스트 選定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자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다만, 위에서도 누차 밝혔듯이 텍스트의 수준은 단지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要因들에 의해 결정되는 않는다. 또한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 文言文인 한문을 현재 사용되는 언어들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易讀性 공식으로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완벽한 易讀性 공식의 산출이라기보다는 한문 교육의 위계화를 위한 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數量化 할 수 있는 要因들로만 공식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러한 제한점과 한계는 질적 부분의 고려로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상진(2007), 『회귀분석의 이해』, 교육과학사.
- 강석진·박수연(2009), 「과학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의 이독성 비교」, 『국제과학영재학회지』 제3집, 국제과학영재학회.
- 고경은(2012), 「이독성 공식의 보완을 위한 학습자 배경지식 위계화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한중 외(2011),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이독성 연구」, 『초등과학교육』 제29집,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¹³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V-외국어(영어), 재량활동,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교육과학기술부.
- 구민지(2000), 「읽기 텍스트 난이도 측정법 연구 -학문목적 한국어 고급 읽기 교재 수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제22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권미숙(2009), 「한국 중국 일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중구(2011), 『한문대강』, 보고서.
- 김경익(2012), 「한문(漢文) 단문(短文) 교육(教育)의 위계화(位階化)를 위한 방향(方向) 탐색(探索)」, 『한문학논집』 제32집, 근역한문학회.
- 김경익(2014), 「한문 학습에서 오류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기중(1993), 『리더빌리티』, 일진사.
- 김기혁(2008), 『언어유형론-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 김대희(2008), 「읽기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 독서 수준과 텍스트 수준의 위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41집, 국어교육학회.
- 김명순(1998), 「텍스트 구조와 사전 지식이 내용 이해와 중요도 평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상홍(2009),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 자 조정의 기본방향」, 『한문교육연구』 제15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성중·김수경(2007), 「한문과 학교문법서의 서술 방향 모색 -2007 개정교육과정 중고등학교 해설서(한문)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50집, 동방한문학회.
- 김수연(1994), 「읽기수준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어휘수준과 문장이해수준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여주(2002), 「동(東)Asia 한자(漢字), 한문교육(漢文教育) ; 동아시아 한자(漢字) 한문교육(漢文教育)의 발전적(發展的) 제언(提言)」, 『한문교육연구』 제3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여주(2007), 「임용고사 출제 범위에 대한 개선안」, 『한문교육연구』 제29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여주(2012), 「2007년 개정 한문과(漢文科) 교육과정과 교과서 적용 방안」, 『한문교육연구』 제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영진·조명한(2011), 「이해를 위한 문장 처리에서 통사 요인과 의미 요인」, 『어학연구』 제17집,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왕규(2003), 「한문교육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序說 -한문교육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대동한문

- 학』 제19집, 대동한문학회.
- 김왕규·김경익(2009a), 「중학교 재량활동 선택과목 "한문" 이수 정도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문 학력차 해소 방안 -한문 학력차 해소를 위한 설문 조사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2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왕규·김경익(2009b), 「중학교 재량활동 선택 과목 "한문" 이수 실태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문 학력차 검사」, 『한문교육연구』 제3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정환(2001), 『분산분석의 이해』, 교육과학사.
- 김창호 외(2007), 「이독성 논의를 통해 본 한자 어휘 수준의 결정 요인에 관하여」, 『한자한문교육』 제2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혜정(2000), 「학교 독서의 비판적 검토와 구성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 김혜정(2009),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적 상호 작용」,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 박남식(2008), 「구조 밀도와 문장의 난해도」, 『어학연구』 제13집,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박상룡(1994), 「통사구조가 영문 독해에 미치는 영향 - 대용어와 생략구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상우(2008), 「제2언어로서 한문 읽기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자(2011), 「글의 독이성과 읽기 학습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제51집, 한국어교육학회.
- 박재욱 외(2011), 「온톨로지 기반 학습 콘텐츠의 난이도 계산 방법」,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6집,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백광호(1989), 「사고구술(思考口述)을 통한 한문과(漢文科) 독해(讀解) 양상(樣相) 연구(研究)」, 『한자한문교육』 제1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백순근(2004),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교육과학사.
- 서혁·서수현(2011), 「읽기 능력 검사 개발 연구 (1)- 읽기 능력 검사의 하위 영역 설정 연구」, 『국어교육』 제123집, 한국어교육학회.
- 성진우(2008), 「한문 교사의 교과서 재구성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우엽(2011), 「스키마, 단어 난이도 및 학습 목표가 독해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4집, 한국교육심리학회.
- 심재홍(1991), 「글의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독성 측정의 모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연준흠(1997), 「내용과 형식 스키마가 독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연준흠(2000), 「내용과 형식 스키마가 독해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제3집,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 유혜원(2000), 「한국어 구문분석 방법론 연구 -복문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50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 윤영선(2000), 『상관분석』, 교육과학사.
- 윤영선(2007), 「韓國語의 構造的 變因들의 分析和 國民學校·中學校 教科書를 中心으로한 文章難易度公式의 開發」, 『연구논문집』 제8집, 성신여자대학교.
- 윤영선(2011), 「韓國語의 構造的 變因 分析和 國民學校·中學校 教科書를 中心으로한 文章難易度公式의 開發」, 『연구논문집』 제7집, 성신여자대학교.

- 윤영선·권순달(2006), 「발달단계에 따른 읽기 지도모형개발과 모형의 타당성 연구」, 『교육평가연구』 제14집, 한국교육평가학회.
- 윤재민·백광호(2001),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위한 초급한자 선정에 관한 연구」, 『한자한문연구』 제3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윤창욱(2006), 「비문학 지문 이독성 공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관규(2004), 『학교문법론』, 월인.
- 이미경(2005),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제13집, 한국번역학회.
- 이상태(2010), 「중등학생의 국어 문장 이해도 검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성영(2008),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27집, 한국어교육학회.
- 이성영(2011), 「초등 교과서의 이독성 비교 연구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41집, 국어교육학회.
- 이순욱(201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순영(2011), 「21세기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미국의 공통핵심기준의 특성과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43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은혜(2010), 「초등학생의 수준별 영어 도서 읽기를 위한 한국형 렉사일 도서 지수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자은(1992), 「한국 중등 학습자의 모국어와 외국어 독해과정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정숙(1981), 「통사복합과 이독성과의 관계연구」, 『언어학』 제7집, 대한언어학회.
- 이혜진(2007), 「문장의 단어 수와 구조를 통한 글 형식 난도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흥수(1977), 「영어 독서에 있어서 문장과 문맥 이독성」, 『응용언어학』 제2집, 한국응용언어학회.
- 이흥수(1984), 「英語讀書에 있어서 易讀性 研究-EFL-ESL 독서의 난이성 관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흥수(1994), 「문장의 이독성에 대한 측정모형」, 『영어영문학』 제31집, 한국영어영문학회.
- 임성규(1990), 「국민학교 교과서의 문장 난이도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임성규(2007), 「교재 기술에서 글의 난이도 측정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9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정순영(1997), 「배경지식 및 독해전략이 영어독해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인문학연구』 제42집,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 정연실(2001), 「중국어 교육용 기초한자 선정기준에 관한 고찰」,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13집, 한국중국어교육학회.
- 정옥년(1974), 「읽기 지도에서 수준별 텍스트 활용」, 『독서연구』 제9집, 한국독서학회.
- 정우상·이동환 외(1975),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 자 조정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14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조석주(2012), 「Readability 공식의 개관」, 『영어영문학』 제29집, 한국영어영문학회.
- 조현재(1998), 「고등학교 생물1, 2 교과서의 이독성 측정 도구로서의 Cloze 검사의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재·김영수(2000), 「생물 교과서의 이독성(易讀性) 측정 도구로서 Cloze 검사의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 『생물교육』 제28집, 한국생물교육학회.
- 조형일(1985),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읽기에서의 어휘 시소러스(thesaurus)의 응용」, 『국어교육연구』 제41집, 국어교육학회.
- 조형일(1992), 「한국어 어휘의 교육용 시소러스 개발 방안 연구」, 『선청어문』 제3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조형일(1993), 「한국어 서술어의 교육용 시소러스 구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형일(2010), 「시소러스 기반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차배근(2003), 「國文讀易性 測定方法 開發을 위한 序說的 小考」, 『언론정보연구』 제25집,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천경록 외(1988), 「읽기 평가기준의 수준 구분 근거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9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천경록(1983), 「국어과 교사의 읽기 영역 평가 전문성 기준과 모형」, 『국어교육』 제117집, 한국어교육학회.
- 최성규(2007),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독서재 요소의 연구 - 시사 월간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집(연구보고)』 제7집, 경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 최인숙(1995), 「독서교육시스템을 위한 텍스트수준 측정 공식 구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집, 한국정보관리학회.
- 최인숙(2005a.), 「텍스트의 언어적 난이도 측정 공식 비교 연구 - 초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22집, 한국정보관리학회.
- 최정순(2005b.), 「학습이론과 이독성(易讀性)에 바탕한 읽기수업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3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허용·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 허철(2008a), 「한문교과교육에서 한문교육용한자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 허철(2008b), 「국어사전 등재 어휘를 통해 본 어휘 구성(構成) 분석(分析)과 한자(漢字)의 조어(造語) 능력 조사」,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 허철(2010a), 「現代 國語 使用 頻度 調査 1·2」를 통해 본 漢字語의 비중 및 한자 활용도 조사」,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 허철(2010b),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위한 기본 어휘기초 한자 선정의 방법 연구」, 『한자한문교육』 2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Botel and Granowsky(1972). "A Formula for Measuring Syntactic Complexity ; A Directional Effort." *Elementary English*.
-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2010).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Appendix A: Research Supporting Key Elements of the*

- Standards*. Washington, DC : CCSS &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 Dale, E. and Chall, J. S.(1948). "A Formula for Predicting Readability." *Educational Research Bulletin* 27.
- Fisher, D., Frey, N., & Lapp, D.(2012). *Text complexity: Raising rigor in reading*.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Fry, Edward B(1977). "Fry's Readability Graph ; Classifications, Validity, and Extension to Level 17." *Journal of Reading Vol. 21, No. 3*.
- Heidi Anne E. Mesmer(2008). *Tools for Matching Readers to Texts*. New York : A Division of Guilford Publications.
- Jeanne S. Chall, Glenda L. Bissex, Sue S. Conard, & Susan H. Harris-Sharples(1996). *Qualitative Assessment of Text Difficulty: A Practical Guide for Teachers and Writers*. Cambridge, Massachusetts: Brookline Books.
- R. Flesch(1948). "A New Readability Yardstic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2.
- Taylor, W. L.(1953). "Cloze Procedure ; A New Tool for Measuring Readability," *Journalism Quarterly* 30.
- W. S. Gray and B. E. Leary(1935). *What Makes a Book Readable with Special Reference to Adults of Limited Reading Ability ; An Initial Stud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ngve, V. H.(1960), "A Model and a Hypothesis for Language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04.

<부록 1> 각 기대 요인의 서술적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수준	요인 표본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품사 의 통용	대 표 음 으 로 쓰 이 지 않 은 한 자	자 의 로 의 파 악 이 불 가 한 단 어 와 전 고 가 있 는 단 어	우 리 말 어 순 과 구 조 가 동 일 한 문 장 과 단 어	지 시 대 명 사	구 절 단 의 평 개 수	문 장 단 의 평 개 수	대 우 법	반 어 법	5개 이 상 의 한 자 로 구 성 된 구 절	단 순 부 정	이 중 부 정	주 격 之	관 형 之	지 시 之	목 적 격 之	之 의 총 개 수	於/于 (~보 다)	於/于 (~에)	於/于 (~의 총 개 수)	以	所	而
1	a	177	57	23	13	18	0	32	1			6	0	5	5	0	0	3	1	0	4	0	0	0	0	0	0
	b	221	58	22	7	16	0	14	1			3	1	7	7	0	0	7	0	0	7	0	3	3	0	0	2
	c	209	54	25	16	21	0	19	2			3	0	9	8	0	0	3	0	0	3	0	1	1	0	1	4
	계	607	169	70	36	55	0	65	4			12	1	21	20	0	0	13	1	0	14	0	4	4	0	1	6
2	a	340	73	25	16	24	1	19	4			2	0	35	15	1	2	8	3	0	13	0	3	3	1	3	5
	b	371	83	25	14	36	1	20	5			4	0	34	9	0	2	4	6	0	12	0	6	6	3	1	6
	c	298	72	20	17	24	4	24	8			4	0	23	7	0	0	3	11	0	14	0	0	0	4	0	13
	계	1,009	228	70	47	84	6	63	17			10	0	92	31	1	4	15	20	0	39	0	9	9	8	4	24
3	a	426	102	22	23	35	0	16	11			2	1	35	12	1	1	5	5	0	11	0	2	2	5	1	11
	b	360	84	21	13	14	6	25	3			1	1	31	3	0	0	5	6	0	11	0	2	2	4	1	6
	c	415	92	18	16	29	4	18	6			2	0	32	7	0	1	3	12	0	16	1	1	2	9	0	3
	계	1,201	278	61	52	78	10	59	20			5	2	98	22	1	2	13	23	0	38	1	5	6	18	2	20
4	a	299	79	12	10	18	3	12	11			2	1	24	14	1	2	0	5	0	7	0	2	2	5	3	4
	b	276	65	22	13	22	2	13	1			2	1	28	11	0	5	7	3	0	15	1	0	1	6	2	6
	c	241	49	13	16	27	2	4	2			0	2	21	8	2	0	2	5	0	7	1	4	5	1	1	6
	계	816	193	47	39	67	7	29	14			4	4	73	33	3	7	9	13	0	29	2	6	8	12	6	16
5	a	793	152	43	66	101	7	43	27			4	7	86	19	1	8	28	5	0	41	1	10	11	14	6	21
	b	836	189	54	71	123	15	61	21			4	11	78	24	1	8	21	13	0	42	1	3	4	11	6	20
	c	847	190	52	35	55	20	39	22			2	12	76	39	1	0	22	13	1	36	0	8	8	10	3	16
	계	2,476	531	149	172	279	42	143	70			10	30	240	82	3	16	71	31	1	119	2	21	23	35	15	57

<부록 2> 각 기대 요인의 서술적 통계

요인 표준 수준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품사 의 통용	대표 음·으 로 쓰 이 지 않 은 한 자	자의 로 의 미 파 악 이 불 가 한 단 어 와 전 고 가 있 는 단 어	우리 말 어 순 과 구 조 가 동 일 한 문 장 과 단 어	지 시 대 명 사	구 절 단 어 의 평 균 개 수	문 장 단 어 의 평 균 개 수	대 우 법	반 어 법	5개 이 상 의 한 자 로 구 성 된 구 절	단 부 정	이 중 부 정	주 격 之	관 형 之	지 시 之	목 적 之	之 의 총 개 수	於/ 于/ 乎 (~ 보다)	於/ 于/ 乎 (~ 에)	於/ 于/ 乎 의 총 개 수	以	所	而	
1	a	177	57	23	7.3	31.6	0.0	56.1	1.8	3.1	7.7	26.1	0.0	0.2	21.7	0.0	0.0	5.3	1.8	0.0	7.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b	221	58	22	3.2	27.6	0.0	24.1	1.7	3.8	10.0	13.6	4.5	0.3	31.8	0.0	0.0	12.1	0.0	0.0	12.1	0.0	5.2	5.2	0.0	0.0	3.4	0.0	0.0	3.4	3.4
	c	209	54	25	7.7	38.9	0.0	35.2	3.7	3.9	8.4	12.0	0.0	0.4	32.0	0.0	0.0	5.6	0.0	0.0	5.6	0.0	1.9	1.9	0.0	1.9	7.4	0.0	1.9	7.4	7.4
2	a	340	73	25	4.7	32.9	4.0	26.0	5.5	4.7	13.6	8.0	0.0	1.4	60.0	4.0	2.7	11.0	4.1	0.0	17.8	0.0	4.1	4.1	1.4	4.1	6.8	1.4	4.1	6.8	6.8
	b	371	83	25	3.8	43.4	4.0	24.1	6.0	4.5	14.8	16.0	0.0	1.4	36.0	0.0	2.4	4.8	7.2	0.0	14.5	0.0	7.2	7.2	3.6	1.2	7.2	3.6	1.2	7.2	7.2
	c	298	72	20	5.7	33.3	20.0	33.3	11.1	4.1	14.9	20.0	0.0	1.2	35.0	0.0	0.0	4.2	15.3	0.0	19.4	0.0	0.0	0.0	5.6	0.0	18.1	5.6	0.0	18.1	18.1
3	a	426	102	22	5.4	34.3	0.0	15.7	10.8	4.2	19.4	9.1	4.5	1.6	54.5	4.5	1.0	4.9	4.9	0.0	10.8	0.0	2.0	2.0	4.9	1.0	10.8	4.9	1.0	10.8	10.8
	b	360	84	21	3.6	16.7	28.6	29.8	3.6	4.3	17.1	4.8	4.8	1.5	14.3	0.0	0.0	6.0	7.1	0.0	13.1	0.0	2.4	2.4	4.8	1.2	7.1	4.8	1.2	7.1	7.1
	c	415	92	18	3.9	31.5	22.2	19.6	6.5	4.5	23.1	11.1	0.0	1.8	38.9	0.0	1.1	3.3	13.0	0.0	17.4	1.1	1.1	2.2	9.8	0.0	3.3	9.8	0.0	3.3	3.3
4	a	299	79	12	3.3	22.8	25.0	15.2	13.9	3.8	24.9	16.7	8.3	2.0	116.7	8.3	2.5	0.0	6.3	0.0	8.9	0.0	2.5	2.5	6.3	3.8	5.1	6.3	3.8	5.1	5.1
	b	276	65	22	4.7	33.8	9.1	20.0	1.5	4.2	12.5	9.1	4.5	1.3	50.0	0.0	7.7	10.8	4.6	0.0	23.1	1.5	0.0	1.5	9.2	3.1	9.2	9.2	3.1	9.2	9.2
	c	241	49	13	6.6	55.1	15.4	8.2	4.1	4.9	18.5	0.0	15.4	1.6	61.5	15.4	0.0	4.1	10.2	0.0	14.3	2.0	8.2	10.2	2.0	2.0	12.2	2.0	2.0	12.2	12.2
5	a	793	152	43	8.3	66.4	16.3	28.3	17.8	5.2	18.4	9.3	16.3	2.0	44.2	2.3	5.3	18.4	3.3	0.0	27.0	0.7	6.6	7.2	9.2	3.9	13.8	9.2	3.9	13.8	13.8
	b	836	189	54	8.5	65.1	27.8	32.3	11.1	4.4	15.5	7.4	20.4	1.4	44.4	1.9	4.2	11.1	6.9	0.0	22.2	0.5	1.6	2.1	5.8	3.2	10.6	5.8	3.2	10.6	10.6
	c	847	190	52	4.1	28.9	38.5	20.5	11.6	4.5	16.3	3.8	23.1	1.5	75.0	1.9	0.0	11.6	6.8	0.5	18.9	0.0	4.2	4.2	5.3	1.6	8.4	5.3	1.6	8.4	8.4

<부록 3> 각 기대 요인의 서술적 통계(평균)

요인 수준	총 한자 수	총 구절 수	총 문장 수	품사 의 통용	대 표 음·훈 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자 의 의미 파악 이 불가 한 단어 와 전 고 가 있는 단어	우리 말 어순 과 구조 가 동일 한 문장 과 단어	지 시 대명 사	구 절 단 어 의 평균 개수	문 장 단 어 의 평균 개수	대 우 법	반 어 법	5개 이 상 의 한자 로 구성 된 구절	단 순 부 정	이 중 부 정	주 격 之	관 형 격 之	지 시 之	목적 격 之	之 의 총 개수	於/于 (~보다)	於/于 (~에)	於/于 (~의 총 개수)	以	所	而
1	5.9	32.5	0.0	38.5	2.4	3.6	8.7	17.1	1.4	0.3	28.6	0.0	0.0	7.7	0.6	0.0	8.3	0.0	2.4	2.4	0.0	0.6	3.6	0.0	0.6	3.6
2	4.7	36.8	8.6	27.6	7.5	4.4	14.4	14.3	0.0	1.3	44.3	1.4	1.8	6.6	8.8	0.0	17.1	0.0	3.9	3.9	3.5	1.8	10.5	3.5	1.8	10.5
3	4.3	28.1	16.4	21.2	7.2	4.3	19.7	8.2	3.3	1.6	36.1	1.6	0.7	4.7	8.3	0.0	13.7	0.4	1.8	2.2	6.5	0.7	7.2	6.5	0.7	7.2
4	4.8	34.7	14.9	15.0	7.3	4.2	17.4	8.5	8.5	1.6	70.2	6.4	3.6	4.7	6.7	0.0	15.0	1.0	3.1	4.1	6.2	3.1	8.3	6.2	3.1	8.3
5	6.9	52.5	28.2	26.9	13.2	4.7	16.6	6.7	20.1	1.6	55.0	2.0	3.0	13.4	5.8	0.2	22.4	0.4	4.0	4.3	6.6	2.8	10.7	6.6	2.8	10.7

<부록 4> 각 기대 요인의 분석 방법

요인		분석 방법
품사의 통용		품사가 통용된 한자의 수÷한자의 총 수×100
대표음·훈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대표 훈음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수÷구절의 수×100
자의로 의미 파악이 불가능한 단어/전고가 있는 단어		(한자 의미대로 파악되지 않는 단어 수+전고가 있는 단어 수)÷전체 문장 수×100
우리말과 어순과 구조가 동일한 문장과 단어		우리말과 어순이 동일한 문장과 단어÷구절의 수×100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수÷구절의 수×100
구절 당 한자의 평균 개수		한자의 총 수÷구절의 수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구절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구절의 수÷전체 문장 수
문장 당 한자의 평균 개수		한자의 총 수÷전체 문장 수
대우법		대우법이 사용된 문장 수÷전체 문장 수×100
반어법		반어법이 사용된 문장 수÷전체 문장 수×100
단순 부정		단순 부정문 수÷전체 문장 수×100
이중 부정		이중 부정문 수÷전체 문장 수×100
허사	주격 之	허사들의 총 수÷전체 구절 수×100
	관형격 之	
	지시 之	
	목적격 之	
	之의 총 개수	之의 총 개수÷전체 구절 수×100
	於/于/乎 (~보다)	허사들의 총 수÷전체 구절 수×100
	於/于/乎 (~에)	
	於/于/乎의 총 개수	於/于/乎의 총 수÷전체 구절 수×100
	以	허사들의 총 수÷전체 구절 수×100
	所	
	而	

<부록 5> 각 기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품사의 통용	대표 훈음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자의로 의미 파악이 불가한 단어/ 전고가 있는 단어	우리말 어순과 구조가 동일한 문장과 단어	지시대 명사	구절 당 한자의 평균 개수	문장 당 한자의 평균 개수	문장의 표현 방식(대우)	문장의 표현 방식(반어)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구절	사역	단순부 정문	이중부 정문	도치	문장 성분의 생략	之의 총합	於/于/ 乎의 총합	以	所	而
품사의 통용	1	.809	.338	.495	.394	.055	-.373	-.065	.715	-.228	-.662	.027	-.272	-.452	.233	.351	.298	-.127	.262	.055
대표 훈음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809	1	.672	.082	.802	.587	.040	-.381	.852	.286	-.414	.414	.028	.124	.680	.818	.733	.294	.647	.627
자의로 의미 파악이 불가한 단어/전고가 있는 단어	.338	.672	1	-.530	.952*	.857	.740	-.928*	.864	.827	.361	.560	.348	.229	.700	.866	.517	.882*	.627	.704
우리말 어순과 구조가 동일한 문장과 단어	.495	.082	-.530	1	-.410	-.549	-.870	.759	-.238	-.844	-.890*	-.755	-.860	-.470	-.602	-.375	-.370	-.849	-.579	-.472
지시대명사	.394	.802	.952*	-.410	1	.930*	.619	-.791	.831	.786	.159	.550	.255	.408	.766	.975**	.675	.779	.676	.855
구절 당 한자의 평균 개수	.055	.587	.857	-.549	.930*	1	.750	-.747	.577	.899*	.330	.523	.287	.681	.716	.944*	.635	.824	.595	.947*
문장 당 한자의 평균 개수	-.373	.040	.740	-.870	.619	.750	1	-.886*	.345	.951*	.862	.494	.525	.448	.464	.541	.211	.958*	.379	.569
문장의 표현 방식(대우)	-.065	-.381	-.928*	.759	-.791	-.747	-.886*	1	-.726	-.886*	-.664	-.624	-.555	-.183	-.635	-.674	-.369	-.969**	-.584	-.554
문장의 표현 방식(반어)	.715	.852	.864	-.238	.831	.577	.345	-.726	1	.478	-.004	.565	.301	-.100	.705	.745	.584	.588	.697	.485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구절	-.228	.286	.827	-.844	.786	.899*	.951*	-.886*	.478	1	.702	.639	.562	.609	.681	.754	.488	.970**	.587	.788
사역	-.662	-.414	.361	-.890*	.159	.330	.862	-.664	-.004	.702	1	.393	.622	.246	.189	.068	-.090	.741	.161	.156
단순부정문	.027	.414	.560	-.755	.550	.523	.494	-.624	.565	.639	.393	1	.916*	.399	.933*	.574	.821	.648	.959*	.588
이중부정문	-.272	.028	.348	-.860	.255	.287	.525	-.555	.301	.562	.622	.916*	1	.289	.715	.252	.548	.595	.767	.317
도치	-.452	.124	.229	-.470	.408	.681	.448	-.183	-.100	.609	.246	.399	.289	1	.500	.558	.572	.401	.397	.813
문장 성분의 생략	.233	.680	.700	-.602	.766	.716	.464	-.635	.705	.681	.189	.933*	.715	.500	1	.810	.944*	.657	.987**	.792
之의 총합	.351	.818	.866	-.375	.975**	.944*	.541	-.674	.745	.754	.068	.574	.252	.558	.810	1	.779	.699	.715	.936*
於/于/乎의 총합	.298	.733	.517	-.370	.675	.635	.211	-.369	.584	.488	-.090	.821	.548	.572	.944*	.779	1	.412	.930*	.799
以	-.127	.294	.882*	-.849	.779	.824	.958*	-.969**	.588	.970**	.741	.648	.595	.401	.657	.699	.412	1	.585	.663
所	.262	.647	.627	-.579	.676	.595	.379	-.584	.697	.587	.161	.959*	.767	.397	.987**	.715	.930*	.585	1	.684
而	.055	.627	.704	-.472	.855	.947*	.569	-.554	.485	.788	.156	.588	.317	.813	.792	.936*	.799	.663	.684	1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漢文 텍스트 易讀性 要因 分析을 통한 易讀性 公式 開發 研究」 토론문

김연수(단국대)

오늘 제가 토론을 맡은 “漢文 텍스트 易讀性 要因 分析을 통한 易讀性 公式 開發 研究”는 한문의 言語的 困難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分析을 통해 한문 易讀性 공식 개발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한문과 교육에서 한문 텍스트의 수준별 위계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한문교육학회도 2011년 1월 동계학술대회의 기획주제를 “한문과 교육에서의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로 정하고 단문, 산문, 한시 등 여러 텍스트를 대상으로 연구 발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술대회는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학술대회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고대하였으나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연구 발표가 수적으로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2011년 학술대회 때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자에게 거는 기대를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게 해준 소중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참고논문이 다섯 장인 것만 봐도 연구자 두 분이 흘렸을 땀과 고민과 열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문과 교육 연구자로서 이번 논문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두 분 연구자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론자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에서도 밝혔듯이 “텍스트의 수준은 단지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要因들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易讀性 公式 開發 研究’의 필요성과 의의, 공식 개발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이번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즉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문 텍스트 易讀性 期待 要因 중 보편적 요인을 ‘① 대표 訓音으로 쓰이지 않은 한자, ② 지시대명사 ③ 문장 당 한자의 평균 개수, ④ 구절 당 한자의 평균 개수, ⑤ 5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된 구절, ⑥ 반어법, ⑦ 대우법, ⑧ 부정문’으로 나누고 각 요인마다 한문 텍스트의 어려움을 1(아주 쉬움)부터 5(아주 어려움)까지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 문장에서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①부터 ④번까지는 수준이 1이었는데, ‘⑥ 반어법’이 사용되었고

그 수준이 5라면 그 문장은 어떤 수준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3. 텍스트에 나타나는 수량화할 수 있는 양적인 要因 위주로 연구하신 이번 연구가 양적 연구에만 집중하여 한계가 있다고 해도 그 의의는 분명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의 한계점인 ‘질적인 要因’과 ‘독자 要因’까지 분석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 간략하나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등학교 경전교수학습에 대한 일고

- 교육현장의 실제와 학습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함 영 대

중등학교 경전교수학습에 대한 일고

- 교육현장의 실제와 학습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

함영대(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1. 경전교수의 현장과 그 문제
 2. 경전교수의 소재와 학습요소
 3. 경전교수 학습의 설계와 그 난점들
 4. 남는문제
-

1. 경전교수의 현장과 그 문제

교육은 현장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현장성은 교육의 실제에서 반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한문교육의 한 영역으로 진행되는 경전교수학습 역시 학교교육이 그 현장이다.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함이 물론이다. 현장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근거리, 바로 그 현장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실습에 참여한 한문 예비교사들의 보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낯선 시각으로 한문교육의 현장을 경험한 그들은 한결같이 현장에서 경전교수 학습의 실제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고한다.¹⁾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 경전을 가지고 수업시연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전을 가지고 실제로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없다. 한문 안에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경전을 가지고 수업을 구성하려니 유

1) 이것은 2013년 1학기에 성신여대 한문교육과에 개설된 「경전교수학습지도법」을 수강한 학생 가운데 교생실습을 다녀온 후 경전교수와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의 일부이다.

난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다. 흔히들 생각하는 수업방식인 강의 교수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한문 문장의 구조나 문법, 한자는 잘 습득할 수 있겠지만 경전학습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인성 함양에까지 나아가야하기 때문에 약간은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는 강의 교수법은 비교적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 (윤아현, 「‘경전교수학습’에 대한 교육실습 보고서」, 2013)

경전의 핵심이 되는 유교사상의 전반적인 배움을 권고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선인들의 유교정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경전교육이며 한문교사의 참 역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 말도 백 번 맞는 말이고, 그런 경지에까지 학생들의 배움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교육실습을 나가서 겪은 현재 우리의 학생들은 현대사회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조차도 진저리치게 싫어한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지금 시대와는 수 천 년 동떨어진 시대의 유교사상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바라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실제로 현직에 계신 한문교사들도 전부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다. 유학사상에서 추구하는 仁義禮智 또는 공자, 맹자와 같은 인물의 사상, 경전 속에 담긴 궁극적인 가르침과 철학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고 형이상학적이며 지루하게 들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허도은, 상동)

현재 중학교 ‘한문’교과는 고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들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문장의 의미를 전달할 뿐 다른 활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교과서에 실린 문장들은 논어, 맹자 등 고전의 명문을 발췌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학생들은 글자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한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어의 일부로서가 아닌 외국어 문법에 알맞게 쓰기 위한 글자로 배우는 것이다. 타 외국어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한문의 문법을 배우다보니 중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문을 덜 중요한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귀찮게 여기기 마련이다. 나 또한 이론만 배우다가 학교라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니 이러한 점들이 문제인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학습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 서당식 교육, 읽고 쓰기를 반복하고 무조건적인 외우는 방법은 한문교육에서 특히나 경전학습을 멀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김혜진, 상동)

하나같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뼈아프다. “한문 문장의 구조나 문법, 한자는 잘 습득할 수 있겠지만 경전학습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인성 함양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은 경전교수가 가진 본질과 그 어려움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약간은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는 강의 교수법은 비교적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성찰은 합당한 것이다. “유학사상에서 추구하는 仁義禮智 또는 공자, 맹자와 같은 인물의 사상, 경전 속에 담긴 궁극적인 가르침과 철학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고 형이상학적이며 지루하게 들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은 또 어떤가? 현재사회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진저리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변적이고 고원한 내용이 흥미롭게 다다갈 수 있을 것인가? “타 외국어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한문의 문법을 배우다보니 중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문을 덜 중요한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귀찮게 여기기 마련”인 상황에서 “서당식 교육, 읽고 쓰기를 반복하고 무조건적인 외우는 방법”은 통용되지도 않고 오히려 흥미만 잃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 난점을 극복할 것인가? 교생실습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난점들에 대해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광고카피 만들기과 4단 만화작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좀 더 풍부한 수업자료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윤아현), 문법적인 설명을 지양하고, 문장에서 이끌어

어 낼 수 있는 교훈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혜진). 그러나 문제의식에 비해 그 대안은 다소 교수방법론에 지우친 감이 있다. 허도은의 지적은 경전교육과 그 지도방향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성찰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므로 경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서 속 문장에 담긴 깊은 의미와 교훈을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롭고 친근한 예가 가득한 경전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전에 대해서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는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하며, 더 나아가 학생들 개개인의 인생에서 뜻 깊은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와 동시에 교사가 ‘경전은 수 천 년 전 선인들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시대와도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굳이 어렵고 철학적인 학습과정이 없어도 “유교사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녹아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준에만 도달해도 ‘경전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담이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겪어보니 학교를 싫어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움’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무척 많고, 또 45분의 수업 중에서 모든 것을 얻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과반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여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터라, 실습을 마친 지금 ‘내가 교사가 되어 경서수업을 할 때 그 수많은 문장 중 단 한 문장이라도 아름답다고 여기고 좌우명으로 삼는 학생이 존재한다면 그 수업은 성공한 수업이다.’라고 여기게 되어버렸다. 이걸 실습을 나가서 요즘 학생들을 겪어본 모든 학우들이 공감할 얘기라고 자신할 수 있다.

또한 경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임금에 대한 충성’, ‘이익보다는 인의를 추구하는 정치’, ‘죽음을 초월한 의리와 절개’와 같은 사상은 현 시대와는 매우 동떨어져서 학생들이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 교사는 선인들의 유교사상이 무조건 옳다고 각인시키지 않고, 그러한 학생들이 품는 반감을 오히려 반감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경전에 담긴 사상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상을 재조명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문제제점과 본받을 점에 대해 토론 또는 토의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탐구적인 학습이 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경전교육의 큰 매력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허도은의 지적에서 주의깊게 볼 것은 ‘충성’이나 ‘인의정치’, ‘의리와 절개’ 등을 교수하면서 전통적인 사상과 그 사상의 현대적 대응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진지한 토론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학생들의 반감’을 줄은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지도교사에게 있다면 그 수업은 고전과 현재의 일상이 조응하는 한결 긴장감 넘치는 수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수업진행의 방법은 물론 학생들의 현실적인 반감을 포용하면서도 다시 학생들에게 고전의 참된 의미와 재미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현장의 목소리로 돌려보면 포천지역의 한 교사는 마침 두 분의 한문교사가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되면서 경전부분을 교수할 때에 풍우란의 『중국철학사』를 두 선생님이 함께 공부하면서 교수의 내용도 풍부하게 하고 교사 스스로의 흥미도 북돋았다고 한다. 수업은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게끔 경전의 문구를 광고카피 등으로 만들어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했다. 현대에 필요한 과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점이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진행하는 주체적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영상자료의 제

작과 발표라는 수업방식으로 인해 아주 열띤 것이었다고 한다.²⁾

그러나 교수자의 역량에만 수업의, 교수학습의 성패를 맡긴다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이 한문교과에서 지향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정당한 방식도 아닐 것이다. 다시 문제는 경전교수 학습에 대해 기본적인 교수의 방법과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교과서로 돌려질 수밖에 없다.

2. 경전교수의 소재와 학습요소

현행 교과서에서 경전교수의 단원은 대체로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십 단원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학교 『한문 I』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대개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³⁾ 이것은 과거 산문류 가운데서 경전부분이 차지했던 비중을 고려할 때 매우 낮아진 것이다.⁴⁾

그 가운데 한문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파편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문장의 수사법이나 문법적 요소를 제외하고 『한문 I』(2011년판)에서 경전의 사상적 측면을 제시한 학습목표를 일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한문 I>의 경전교수 학습목표와 학습요소 (부분)

출판사	저자	단원의 출전과 학습목표				비고
		大學·中庸	論語	孟子	諸子	
교학사	김인중 외		군자의 인격 특질을 이해한다. ‘仁’의 의미를 이해한다. -仁, 공자사상, 野合 소개	대장부의 인격특질을 이해한다. ‘浩然之氣’의 의미를 이해한다. -性善說, 集大成 설명	노장, 순자, 묵자의 사상을 이해한다. -성악설, 도량 설명	‘이해와 감상’으로 내용 심화
대학서림	신표섭 외		인간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공자, 『논어』 소개, 仁 설명	맹자의 왕도정치를 현대에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맹자, 性善說·王道政治論·易姓革命 소개	자연을 대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노자, 노자와 그 현대적 의미 설명	전통과상식에 “사서삼경” 소개
다락	송재소		공자와 맹자의 사상		노자·장 손자·묵	제자백가에

2) 이 내용은 현재 송우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구수연 선생님이 포천고등학교 한문교사로 재직할 당시의 경험을 인터뷰한 것이다.

3) 11대단원에 총 29소단원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대학서림본 『한문』(2011년)의 경우 경전 교수는 7대단원의 “관계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16과에서 18과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 『논어』와 『맹자』, 『노자』에 나오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다른 교과서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김병주(2009),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 『논어』의 수록 양상에 대한 연구」, 『한문고전연구』 1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참고, 아울러 기존 한문 경전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는 함영대(2011), 「경전교육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문교육연구』, 한문교육학회 참고.

원	외		이해 - 『논어』, 『맹자』		자 사상의 이해 - 『노자 도덕경』, 『장자』 소개	자 사상의 이해 - 『손자』, 『묵자』 소개	대한 설명 부록
더 텍스트	김용재 외		경문과 주석을 구분하여 안다. - 『논어고금주』 소개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성선설, 성악설 소개	한비자의 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 - 『한비자』, ‘역린’ 교사 소개		“문화읽기”에 학문의 길, 논변체 산문, 도덕주의와 법치주의 비교
두산 동아	박성규 외	문장의 수사법, 품사의 특징과 허사의 쓰임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 공자 소개, 『논어』 설명	한문 산문 풀이 품사의 종류와 특성 - 맹자, 『맹자』 설명	한문 산문 풀이 한문 산문의 문체와 특징 - 노자, 장자 소개, 교과서 『윤리』에서 해당 관련 내용 소개		

위 표를 분석해 보면 경전교수 부분은 대부분 『논어』와 『맹자』를 비롯한 유가 경전과 諸子書에서 발췌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전은 유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佛家와 기독교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의 경전 역시 그 교수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색채가 반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실제로 불가와 기독교의 경전 내용이 한문으로 작성되어 폭넓게 읽히고 활용된 사례가 풍부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가의 경전으로 경전교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교과서는 이미 그런 현실적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인 개괄에서 좀 더 진행하여 학생의 입장에서 개별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경우 각각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서를 비교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교과서를 선택하여 배우게 되므로 그 학생이 각 교과서를 선택하게 될 경우 획득하는 경전교수의 학습내용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한문 I>의 경전교수 부분 학습목표와 학습요소 검토

교과서	저자	단원	단원의 학습내용
교학사	김언중 외	32. 군자의 도: 공자 33. 대장부의 기상: 맹자 34. 삶에 대한 통찰: 제자	성현의 가르침으로 공자, 맹자, 노자와 장자, 순자, 묵자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군자와 대장부의 인격적 특징, 仁人 浩然之氣의 뜻을 알고, ‘上善若水’, ‘物化’, ‘禮’, ‘兼愛’등의 간략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공자가 꿈꾼 대동세상과 맹자의 인격적 면모 및 성선설의 내용, 제자백가의 사상과 성악설의 내용을 알 수 있다. 集大成, 大丈夫, 度量 등의 어휘를 알 수 있다.

대학 서립	신표섭 외	16.인간과 인간의 관계 : 공자 17.인간과 사회의 관계 : 맹자 18.인간과 자연의 관계 : 노자	공자의 인과 인간관계의 모습, 인간다운 삶의 사회적 조건, 노자의 무위자연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해 본다. 공자와 『논어』, 맹자, 노자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듣게 된다. 仁의 뜻, 性善說, 왕도정치론, 역성혁명, 노자의 생각과 현대적 의미를 알 수 있다. 四書五經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받는다.
다락원	송재소 외	24.공자 맹자 : 공자왈 맹자왈 25.노자 장자: 무위자연의 삶 26. 손자 묵자: 사상가의 생각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손자와 묵자의 언급과 그들에 저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받는다. 인성과 개성을 강조한 공자교육의 특징, 나비가 된 장주, 墨悲絲染의 의미를 이해한다. 제자백가의 내용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더 텍스트	김용재 외	33. 공자 34. 맹자 순자 35. 한비자	경문과 주석을 구분하여 알고, 성현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 건전한 가치관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경문과 주석의 구분점을 알고, 『논어집주』와 『논어고금주』의 개략을 학습한다. 맹자의 성선설과 성악설, 『한비자』와 ‘餘桃之罪’, ‘逆鱗’을 학습한다. 학문의 길과 논변체산문, 도덕주의와 법치주의를 토론한다.
두산 동아	박성규 외	23. 대학과 중용 25. 맹자 26. 노자와 장자	한문고전의 학습으로 전통적 가치관 문화이해, 인문적 소양 증진 『대학』, 『중용』, 공자, 『논어』, 맹자, 『맹자』, 노자, 장자를 소개받는다. 사서삼경, 성균관, 오행과 오상, 제자백가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듣는다. 유가사상과 도가사상의 차이에 설명한 “윤리”교과서의 내용을 읽는다.

우선 학습 요소가 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해당 단원을 학습하게 되었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대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편재되는 과정에서는 내용의 풍부함과 소략함, 전체 학습내용의 배치에 있어서의 짜임새는 천차만별이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각 학습 요소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학습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텍스트로 진입하여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의 내용과 그 학습요소가 놓인 맥락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각 교재에서 학습에서의 경전교수의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측면을 확인하게 된다. 그 득실을 살펴보는 것은 이 경전교육의 학습요소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된다.

<교학사>의 책으로 경전을 학습하게 될 경우,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단원은 동양의 전통 사상가들의 생각을 음미하고, 그 음미를 통해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MBTI의

성격검사 결과 성격유형이 ISFP(군자형)으로 나왔을 경우 자신의 성격을 군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비추어 확인해 볼 수 있고, 南怡 장군의 시를 통해 대장부의 기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네 칸 만화에 흐르는 물을 보고 나누는 노자와 제자의 대화를 상상력을 동원해 채울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성격 또는 기상과 관련된 것으로 개별 단원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북돋을 수 있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군자상과 그와 관련한 내용을 수록한 『논어』에 대한 학습, 『맹자』의 대장부와 그와 관련한 호연지기 장의 내용소개, ‘上善若水’와 ‘胡蝶夢’, ‘禮’와 ‘兼愛’가 나오는 핵심 개념어가 반영된 본문의 발췌는 교과서의 저자가 핵심개념어 위주로 본문을 발췌하는데 상당히 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가와 제자백가의 사상을 요령있게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내용알기’와 ‘이해와 감상’, ‘생각더하기’에서 본문을 더욱 요약하고, 추가적으로 부연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습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충실한 본문의 학습과 부가활동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학습의 양이 많은 편이다. 한 시간에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보다 더 아쉬운 점은 이 경전 단원이 전체 34단원 가운데 마지막 32단원에서 34단원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전체 교재의 내용 가운데 평균 60% 정도의 단원만이 실제 수업으로 소화된다고 할 때, 選讀을 통해 굳이 이 단원을 가르치려는 열의에 찬 교사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이 경전교수 단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좋은 학습 내용도 실제 수업에서 교수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경전의 교수에 대해 가장 충실하고 짜임새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쉬움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대학서림>의 책은 이 경전교수의 단원을 ‘관계의 철학’으로 정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공자와 맹자, 노자의 내용들이 단원 기획 의도를 중심으로 발췌되어 있는데, 『논어』에서는 인간관계 정립에 대한 짧은 잠언을 다루면서 仁의 개념을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맹자』에서는 恒産과 恒心이 관계에 대한 하나의 긴 문장을 소개하고, 성선설과 왕도정치, 역성혁명을 소개하며 논의를 확장했다. 그러나 그 추가 내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노자의 무위자연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본문을 소개하고, 노자의 생각이나 노자의 현대적 의미를 소개하고 있으나 이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인지는 역시 명쾌하게 설명하고 않고 있다. 이를테면

“... 노자는 인간의 인위적인 가치 판단으로 인해 편견을 만들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사물의 본질이나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을 指摘한다. 그러므로 그는 기준이 상식이나 고정 관념을 깨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노자와의 대화’, 159면)

라는 지적은 노자의 성격으로 크게 우리가 없는 설명이지만 그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까지 생각하기에는 다소 비약이 느껴진다. 본문에서 뽑은 “小國寡民”의 이상 역시 자연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문명 의식과 더 가까운 것이다. 이는 학습요소로 조직된 내용들이 전체 단원 주제와 호응하면서 좀 더 사려깊게 서술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발췌된 본문의 내용 역시 노자에 대한 기본 인상을 바탕으로 어

는 정도 유관한 구절을 발췌하여 학습 소재로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정한 유의미한 주제에 대한 소재의 집중력 또는 섬세한 서술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몇가지 점들이 아니라면 대체로 적당한 학습 분량과 참신한 현대적 의미로 접근한 주제의식, 16~18단원에 배치하여 실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교재는 경전교수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서오경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통해 경전교수의 외연을 확장하는 학습자료로 보충해 주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다락원>은 “고전의 가르침”이라는 단원에서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손자와 묵가의 가르침을 담으면서 “고전에는 그 시대의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선인들의 생각과 주장을 통해 과거를 재조명하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런데 들어가기에서 거듭 문제제기한 “공자 등의 선현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까?”에 대해 본문의 발췌는 다소 연관성이 약하다. 본문의 이해 역시 『논어』에서 유학에서 말하는 仁, 禮, 道를 알 수 있다거나, 『노자』에서 기계를 부정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삶을 설명하고, 兼愛 등을 해설하는 것이 문제제기와 긴밀하게 조응한 서술로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전체적으로 맥락의 통일성과 주제의식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고심할 문제로 보인다.

아울러 공자와 『논어』 등을 비롯하여 각 성현과 그 저술을 소개하고 있지만 맹자의 경우 “孟子,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이름은 가(軻), 자는 자여(子輿)이다. 맹자(孟子) : 맹자(孟子)의 언행을 기록한 사서(四書)의 하나”등으로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나치게 간결하다. 이 교재는 ‘한문知識人’이라는 공간을 두고 있는데, 경전교수 부분에서는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선인들의 字와 號’, ‘제자백가(諸子百家)’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경전의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지만 ‘제자백가’를 제외하고는 다소 연관성이 약한 편이다. 단원의 전체적인 학습목표 역시 ‘동양고전의 중요한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는 목표 외에는 ‘품사의 종류와 허사의 쓰임, 어휘의 유형, 문장의 수사법, 한문 산문의 특수한 표현방식,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 등을 제시하여 경전교수 외의 사항을 학습목표로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경전교수의 주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 교과서 제작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려는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경전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지 않게 아쉬운 대목이다.

<더 텍스트>의 경전교수 단원은 대상과 내용이 명료하다. 공자와 맹자·순자, 한비자를 내용으로 이 단원에서 배울 것이 “진부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성현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 사색이 외연을 넓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사회”라고 규정하고, 『논어』를 통해서는 경문과 주석의 의미와 해석상의 차이를, 『맹자』와 『순자』를 통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상적 차이를, 제자백가에서는 『한비자』를 통해 고전에 담긴 사상의 깊이를 학습하겠다고 제시했다. 四書에서는 각 저술과 저자에 대해, 제자백가에서는 『묵자』, 『장자』, 『순자』, 『한비자』의 저술과 저자에 대해 간단한 사전 학습을 하도록 배치했다. 그 결과 『논어』의 학습에는 논어 경문과 『논어집주』, 『논어고금주』가 부가 설명되었는데 이는 경전의 원문과 그 다양한 주석이라는 ‘經學’의 체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여타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한 것이다. 『맹자』와 『순자』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의 해당 본문을 소개하여 인성의 비교라는 최초 문제의식을 소화했고, 『한비자』에서는 저작과 ‘餘桃之罪’

와 ‘逆鱗’ 고사를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여타 제자서들의 소개에 비해 흥미를 일으켰다. ‘문화읽기’ 코너에서는 ‘학문의 길’, ‘논변체 산문’, ‘도덕주의와 법치주의’를 소개했는데 해당 본문과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간결 분명하면서 분량도 적당하다. 경전교수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좋은 교재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교재 역시 전체 35단원 가운데 33~35단원에 배치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두산동아>는 『대학』과 『중용』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4단원에 걸쳐 경전교수부분을 다루었다. “유학사상과 도가사상의 기본경전은 동양 전통문화의 사상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전통문화에 기초한 가치관을 돌아보게 해주어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는데 기여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학습 목표에서는 문법적 요소와 한문 산문으로서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대부분의 주안이 주어지고, 인성교육적 요소는 마지막에 한번 강조되는데서 그쳐 원래 취지와 학습요소의 구성에 적지 않은 괴리를 보였다. 각 본문의 원 출전에 대해서는 간결한 소개가 되어 있으며, ‘문화산책’란에는 사서삼경, 성균관, 五行과 五常, 諸子百家를, ‘본문관련 자료읽기’에서는 『논어』와 맹자, 유학사상과 도가사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사서삼경에 대한 해설에서 『맹자』의 경우, “맹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 따위를 기술한 것으로,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에 그쳐 지나치게 짧은 백과사전식 지식을 나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더 진전된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논어』에 대한 설명 뒤에 성균관을 소개하고, 『맹자』 학습의 뒤에 오행과 오상을 덧붙이는 것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자백가에 대해 “중국 춘추 전국시대(B.C. 8세기~B.C.3세기)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의 총칭이다. 諸子란 여러 학자들이라는 뜻이고, 百家란 수많은 학파를 의미한다. 곧 수많은 학파와 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펼쳤던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여 건조한 사전식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 역시 집필자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적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교재는 전체적으로 본문과 함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문지식’과 ‘한자 어휘’를 다루어 충실한 학습을 하도록 인도하는 강점이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풍부하게 제시된 내용이 경전교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전교수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소 흐리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경전교수 단원에 대해 그 주제와 사상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한문학습의 요소를 단원별로 나누어 편재하면서 경전교수 단원 역시 하나의 소재로서 파악하고 활용하려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국 다양한 학습요소가 뚜렷한 경전의 교수학습이라는 뚜렷한 주제의식에 껴지 못하고 나열되어 소개되는 아쉬움을 낳았다.

3. 경전교수 학습의 설계와 그 난점들

앞 절에서 경전교수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행 교과서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교수학습을 설계할 경우 발생하는 난점들과 그 이유를 살펴본다.

경전교수의 학습은 그 단원의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본 취지가 동양 고전 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생활에 자양분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점

에서는 대체로 동일하다. 교과서에서는 이를 인격체로서의 인간형과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는 고전의 핵심적인 사상을 학습함으로써 현대 생활에 활용하려고 한다. 다양한 생각을 이해한다거나 인성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잠언의 학습을 통해 인성교육의 자료로 삼으려고도 한다. 그런데 그 마저도 사상적 측면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나 토론보다는 고전사상과 개념에 대한 지식적 설명을 통해 이 내용을 학습하려는 경향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찰적인 내용이기 보다는 차라리 고전의 지식 학습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경전의 내용이 암기하고 알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학습목표로 나열된 다양한 문법적 요소와 산문적 지식에 대한 학습의 지도는 그것이 마치 이 단원의 학습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비중 면에서 압도적이다.

<두산동아>의 경우 “단원의 마무리”가 경전교수의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품사의 활용”과 “문장의 구조”, “문장이 수사법”으로 마무리되고, 단원평가 역시 한자와 한자의 어휘 학습으로 그치고 만다. 이는 한문교과목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한자와 한문에 대한 지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현장에서 호응을 얻는 것은 경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해석에 대한 차이보다 “현대적 의미”에 대한 토론이다. 학생들은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 반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결국 본문은 경전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일 뿐이다. 완결된 전체가 아니므로 그 발췌된 부분에서 전체 의미를 찾으려는 학술적 강의보다는 시사점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교수학습의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⁵⁾ 그런 까닭에 핵심 사상에 대해 학습한다는 명목으로 핵심개념을 나열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문교과서의 집필에 있어서 교재 집필자들은 다양한 한문교과의 주제에 대해 전문적 연구자들이 아니고, 교과서의 지면은 제한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나 사전적 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좋은 소재를 가지고 교과서에 반영하려고 해도, 교과구성의 지침과 1,800자라는 본문 구성자의 기준에 구애되어 기존에 사용한 본문을 반복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변화되어 심화된 지식에 대한 전달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공부, 즉 학생들이 직접 학습자료를 조작하여 수업내용을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교육방법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경전교수와 같은 전문분야의 심화된 내용을 지도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⁶⁾

그런 점에서 중학교에서 실제로 경전을 교수하는 수업을 참관하고, 그 성찰을 보고한 다음의 내용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나는 유교경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했지만 정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를 수공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 내 경험과 지지난주 노일중학교 참관수업을 하면서 보았던 교과서의 텍스트들, 학생들을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본 것은 경전의 내용이 지금 학생들이 부딪치고 있는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

5) 이 점은 현재 수원 영생고교에 한문교사로 재직 중이며, 한문교과의 수업혁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용훈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6) 이 점은 현재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교과서의 집필에도 참여한 장현곤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서술했다.

으로 수업이 된다면 경전 수업에 대해 재미를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노일중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3이라고 해도 학생들에게 경전 텍스트를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하셨다. 이것을 쉬운 예로 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장 하나하나를 씹어주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라고 하셨다. 잘못하면 내가 중학생 때 겪었던 <한문>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텍스트들이 학생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라면 적어도 그들의 집중과 관심을 끌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수업에 배웠던 문장 중 하나는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였다. 학생들에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학습'일 것이다.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는 옆 친구들과의 성적싸움 일 것이다. 자괴감도 들 수 있고, 자신감이 떨어진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 문장은 적어도 한번 귀를 쫑긋 서게 하며 집중력을 끌어내고, 스스로를 반성해 보고, 현재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았을까? 실제로 수업에서 선생님의 줄넘기 예시를 들으면 더 이해가 빨랐고, 학생들도 대답을 잘 하고 집중력도 높은 모습을 보였다.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경전을 가르칠 때 교과서에 있는 많은 문장들 중 최대한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콕콕 찌러주는 문장들을 선별할 것이다. 만약 내가 수업하는 교과서에 이 기준에 부합한 내용들이 적다면 다른 교과서들을 참고하여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적어도 학생들이 자신이 이 수업시간에 뭘 얻었는지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나의 수업 시연이었다. 내 앞의 학생들이 다들 대부분이 아는 논어, 맹자의 문장들을 가지고 시연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쉽고, 많이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보다 생소한 내용들을 뽑아야지, 정말 한문 시간 이외에는 들어보지 못하는 텍스트를 뽑자.' 하며 『대학』의 문장을 선택해 시연을 했었다. 물론 내가 전달력이 많이 부족하고, 수업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수업을 들었던 언니들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만들었던 그 텍스트가 문제였다. 전공자들에게도 쉬운 텍스트는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기다 내용이 교수자의 설명 없이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다. 직역을 해도, 그 전의 사전 지식을 갖지 않는 이상 완벽히 전체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걸 아무리 고등학생들이라도 중학교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 이 경험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한번 더 느꼈다.

우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학생들의 수업시연의 공통점은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예시를 잘 들고, 학생과의 호흡을 잘 맞춰주는 것, 훌륭한 전달력은 그들의 수업에서 빠지지 않았다.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적어도 <한문>과목이 자신의 학창시절에 있어서 '배웠던 것이 있었지' 하며 말할 수 있길 바란다. 내가 학창시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한문>을 배워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상태, 재미없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 그리고 내가 학습했던 모든 경전수업 시간에만 해당) 내가 앞으로 가르칠 학생들에게는 나와 같은 경험이 없도록 하고 싶다. (김정임, 「노일중학교 중3 한문수업 참관보고서」, 2013)⁷⁾

자신이 만일 선생님이 된다면 “최대한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콕콕 찌러주는 문장들을 선별할 것”이라는 지적은 경전교수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상황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학습 내용이 추억되는 “배웠던 것이 있는” 수업을 하려는 시도는 교수자로서 응당 그래야

7) 이 수업은 노일중학교 옛 한문을 지도하는 신지연 선생님의 호의로 실제 현장 수업을 참관한 것이다. 2013년 성신여대 한문교육과에서 교생실습을 가지 않은 경전교수지도법 수강생 3명이 수업에 참관했는데 그 참관보고서는 상당히 날카롭고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학습자의 기준에서 경전의 문장을 발굴하고, 그들의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학습요소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교재를 만들고 계발할 때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가? 그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 교재는 집필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며, 집필자는 교육과정해설의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하게 된다. 다시 어느 과정에나 제시되는 교재편찬치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운용과 한문교과에 대한 기성의 시각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10대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를 40대 이상의 교사와 교수들이 만드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30년의 괴리가 발생한다.

원윤숙은 일찍이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사서 경문의 내용을 다시 시대의 변화상⁸⁾, 성장단계⁹⁾, 교과서 및 지도서의 지도상의 쟁점¹⁰⁾으로 나누어 분석한 뒤 경전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다음의 가치 기준에 의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¹¹⁾

- ① 인간 생활에 관심을 갖는 일용 평상의 가치
- ②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가치
- ③ 인간 존중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치
- ④ 수기치인을 바탕으로 민주적 사회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가치
- ⑤ 유학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현실의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치
- ⑥ 한자 문화권의 기본사상을 이해하고 교류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모두 합당한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학생들의 지극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들의 관심보다는 좀 더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한편 김성중은 좀 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경전교수의 학습요소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¹²⁾

- ① 『논어』의 ‘仁’이나 『맹자』의 ‘仁義’와 같이 핵심사상이 포함된 문장
- ② ‘己所不欲勿施於人’과 같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장
- ③ ‘不患人之不己知’ 같은 문법 설명으로 전형적인 예가 되는 문장
- ④ ‘守株待兔’와 같이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사성어

8)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로서의 恕와 克己復禮,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으로서의 利와 義, 아름다움의 仁, 조화정신의 中和, 인간다움으로서의 禮, 왕도정치와 복지사회, 공부로서의 修己治人 등이 이 주제의 하위 덕목이다.

9) 도덕덕목으로서의 孝悌, 자아정체성, 바람직한 삶의 가치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 등이 이 분류의 하위 덕목이다.

10) 여기에서는 한문 교과목의 목표에 비추어 유학의 비중이 부족한 것, 단원명과 학습목표의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본문의 내용 구성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 학습단계를 고려한 단원설정의 미흡한 것, 교과서와 지도서에 본문 이해를 위한 자료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11) 원윤숙(2004),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四書經文의 수용과 효율적 지도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2) 김성중(2011), 「한문교과서에서 儒經·諸子書의 제재 선정 수준과 범위」, 『한문교육연구』 3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참조.

⑤ 인성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 학습의 소재가 되는 문장

사실 김성중의 연구는 2011년에 검인정된 교과서의 내용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전교수의 영역에서 핵심사상이 포함된 문장과 가치관에 대한 교육, 흥미를 일으키는 고사와 인성에 대한 토론 주제 등이 고루 다양한 교과서에 편재되어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전히 경전교수의 학습요소에 대한 유기적인 결합과 그 핵심 교수 학습의 내용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될 필요가 있다.

4. 남은문제

최근 중국에서는 “유교 경전”을 학교 교육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교수 능력의 문제도 있고, 입시에도 포함되지 않아 순조롭게 확장되지는 못하지만 그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국영 출판사인 中華書局에서 2013년 2학기를 시작하면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사서(四書)의 핵심 내용을 담은 『중화문화기초교재』를 발간했는데 이는 대만에서 1956년부터 중·고교생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는 『중화문화기본교재』를 토대로 집필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문화대혁명(1966~1976년) 이후 사실상 맥이 끊긴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유교 경전 교육을 되살린 것이다.¹³⁾

한문교과에서의 경전교수는 “유교 경전의 학습”이라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의식에 대한 역사적 공감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동시대의 기본교양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적지 않다. 한문교육의 효용성 가운데서도 가장 첨단에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사회의 교류와 그 공동의 필요에 대한 대응은 고전에 대한 퇴영적인 후퇴가 아니라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진정한 진전의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문교과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논쟁과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문교육의 효용을 다방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당연한 필요가 아니라 소리쳐 그 필요를 외쳐야 하는 교과목으로 그 사회적 입지가 축소되어 있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고전으로서의 확고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¹⁴⁾현재적 일상과 생활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의미로서의 한문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양고전에 대한 중국에서의 관심제고는 우리 한문교육에도 특히 경전교수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연합뉴스> 2013년 10월 3일 보도기사

14) 송병렬(2009), 「한국의 한문과 교육과정 문제와 해결의 방향」, 『새로운 한문교육의 지평』(개정증보판), 문자향, 2006.

「중등학교 경전교수학습에 대한 일고」 토론문

김용재(성신여대)

하계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정재철 회장님과 실무이사님들께 敬意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하 인사말씀 除煩하옵고, 본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소견을 제기하며, 향후 함박사님의 연구진행 과정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의 提言을 添記하는 형식으로 토론문을 작성합니다. 惠諒 바랍니다.

“교육(효과)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는 더 중요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글은 현장학교에서 한문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사, 실제 학교교육에 임하였거나 참관했었던 교육(예비)실습생들의 경험과 보고를 통하여, 열악하고 어려운 경서교육을 생동감있는 진술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漢文科에서의 ‘경서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방법론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고심해야함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自省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도전조차 하지 않는 나약함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로 자책해가며, 漢文科 중등교육에서 경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과 교수방법론에 대해 함박사님과 함께 고민하며, 감히 제언해 봅니다.¹⁵⁾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漢文科에서의 ‘경서교육’은 더 이상 ‘영덩이나 토닥여주며 착하게 살아가라는 勸善懲惡’이나, 혹은 ‘선현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도덕성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고전이 정말 ‘클래식’으로서의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어야만 하며, 남녀 노소의 다양한 독자층을 초월할 수 있어야만 하며, 동서고금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때만이 고전은 비로소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즉 “배우고 본받은 것을 시시때때로 익혀야 한다(學而時習之)” 라고 생각하기보다, “배운 것이 그 시

15)

『경서교육』은 『한문교육』의 한 분야로서, 『한문교육』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에 맞게[時] 적용[翫]되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줄 때, 비로소 경서는 ‘있어왔던’ 고전에서 ‘있어야 할’ 聖典의 위상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고전이 갖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개인적 인지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인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팝송, K-pop, 힙합, 레게 등 제아무리 다양한 대중음악이 쏟아져 나와도, 이들 모두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창작해낸 클래식 화음계를 벗어나서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장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클래식은 각 학문 영역에서의 본질이며, 다양한 상상의 날개짓을 펼 수 있게 해주는 에네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나긴 여정을 하며, 저마다의 감정과 세계관으로 자신의 역사를 구축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1인 ... 10인 ... 100인 ...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곧, 문학~역사~철학의 인문학이며, 이때 완성된 글을 우리는 고전이라 하고 동양에서는 경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경서라는 고전은 분명 우리에게 ‘體人知’이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경서는 ‘Change’ 되어야 할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경서는 ‘정체성[體]’과 ‘관계성[人]’, 그리고 ‘창조적 지식[知]’을 잉태하고 있는 무한가치의 동력자원인 동시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문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경서교육이 최소한의 자리를 점유하고자 한다면 ‘Change’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현재적 시의성에 맞추어 경서를 재해석해야 하며, 한자한문이라면 손사래부터 내젓는 청소년들에게 눈높이의 고전교육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이제 漢文科에서의 경서교육은 스스로 ‘DNA’를 찾아내어 그 생명력을 보증 받아야 합니다. 즉, ‘경서교육’은 기존 교육과의 차별화와 특성화[Difference]를 외쳐야 하고, 국제화내지는 융복합화[Network]를 추구해야 하며, 실사구시의 체화된 실용지학의 지식[Action-Learning]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함박사의 발표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경서교육의 방법론에는 왕도가 있을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학습자의 관심과 호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서와 현재적 이슈를 접목시켜줌으로써, 한문학습에 환기를 넣어줌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서교육에서 ‘例話’나 ‘例示’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역사의 라이벌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호형호제하며 우애를 자랑하던 정도전과 정몽주의 sad-ending, 20세기를 지배해왔던 미국에서도 절친의 수준까지 가까웠던 존 F. 케네디와 닉슨의 갈림길, 세계의 富豪라 할 수 있는 빌 게이츠와 한국의 이건희 등,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리더십’과 ‘우정’이라는 이슈를 경서의 문장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표문을 보면 “현재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조차도 진저리치게 싫어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환언하면, 이는 학습자로서의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일 터인데 말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to be]”, “무엇을 해야 하는지[to do]”, “무엇을 갖고 있는지[나의 재능은 무엇인지:to have]” 조차를 모르는 형국입니다. 그저 점수만 득하면 된다는 암기식 공부환경에서는 절대독서량 또한 극히 미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독서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다양한 인물의 전기를

(간접)경험할 수 없다는 傍證입니다. 경서 - 諸子書를 비롯한 사상서 - 안에는 다양한 인물의 삶이 존재합니다. 논어와 사기 화식열전에 등장하는 ‘자공’은 스승 공자조차도 경이를 표했던 당대 최고의 商術家이자 경영자[CEO]였으며, 절의와 존경심을 최고로 알았던 ‘자로’는 요즘 시대의 화두인 義理의 표상이었고, 역사에 단 7년만의 인생이 등장되었던(24세~31세) ‘항우’는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一覽輒記로 알려진 허균과 박학다식의 정약옹은 우리의 경서교육에 귀감이 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인물로 다가가 학생들의 간접경험을 자극시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명문(물론 斷章取義일 가능성도 있음)을, 생동감 있는古今의 이슈와 접목시켜줌으로써 ‘경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것도 경서교육에서 하나의 팁이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의 중요성-

또한 본 발표문에서는 현재 출간된 한문교과서 내에서의 경서 부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다른 교과에 비하여 ‘한문’은 교과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原典(원문)의 수록 양상·성향·출전(韓/中) 등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수학습자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漢文科에서 교과서는 그야말로 가장 교과서‘的’이어야만 합니다. 교과서‘的’이란 교육과정에 準據하여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교수학습 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교육내용의 매개체 역할을 제대로 제공해야 함을 뜻합니다. ‘교과서’가 다른 교과목에서는 일종의 ‘텍스트’ 정도로 간주될 수 있겠지만, ‘漢文科’에서 교과서는 거의 ‘바이블’ 수준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교과서에 수록된 원문의 글감과 句讀(또는 懸吐) 하나에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문 교과에서 ‘교과서’란 ‘교육내용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균형있게 담고있는 공식화 된 교수-학습자료’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漢文科에서 교과서는 텍스트 차원을 넘어선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자 공구서이며 매개체의 역할을 담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한문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서’ 영역은 그 틀과 짜임새가 매우 탄탄하게 엮어져 있어야 하며, 소위 구두와 현토 및 띄어쓰기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의 부주의는 곧 ‘경서교육’에서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출간된 중고등 한문교과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발표자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문제의식을 던져봅니다.

첫째, 교과서별 ‘경서’ 출전 빈도가 매우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 중학교 한문교과서(8종)內 경문 출현의 빈도

	A	B	C	D	E	F	G	H	합
논어	5	3	9	7	3	6	5	4	42
맹자	1	3	7	5	3	4	3	3	29
대학	0	0	2	2	2	0	3	0	9
중용	2	0	1	2	1	1	0	0	7
시경	1	0	0	0	2	0	0	0	3
서경	0	0	0	0	0	0	0	0	0
역경	0	0	0	0	0	0	1	0	1
예기	1	1	1	1	0	0	3	0	7
춘추	1	0	0	0	0	0	0	0	1
계	11	7	20	17	11	11	15	7	99

□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5종)內 경문 출현의 빈도

	㉠	㉡	㉢	㉣	㉤	합
논어	6	5	6	2	4	23
맹자	4	3	1	2	1	11
대학	0	0	0	1	1	2
중용	1	0	0	0	1	2
시경	1	0	0	0	0	1
서경	0	0	0	0	1	1
역경	1	1	0	0	0	2
예기	0	1	0	0	0	1
춘추	0	0	1	0	0	1
계	13	10	8	5	8	44

둘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똑같은 경문임에도 저자별 ‘현토’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토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치는 정하는 것이 경서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 관토본 율곡사서언해)

같은 경문이라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현토가 있는 교과서가 있는가하면, 반면에 현토를 아예 붙이지 않은 교과서도 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저자들 모두 경문에 현토를 붙여 놓긴 하였으나, 현토가 각양각색입니다.

人一能之어든 己百之하고 人十能之어든 己千之하라.	㉠-①
人一己百이라.	㉢-①
人一能之어든 己百之하며 人十能之어든 己千之니라.	㉤-②

人一能之어든 己百之하며 人十能之어든 己千之니라.	㉠: II 단원-4과
----------------------------	-------------

②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樂之者 (『論語』)

知之者가 不如好之者요 好之者가 不如樂之者라.	㉢-①
--------------------------	-----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라.	㉠: II 단원-4과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	㉤: IX 단원-24과

③ 見危致命見得思義 (『論語』)

士見危致命하며 見得思義니라.	A-②
士는 見危致命하며 見得思義니라.	D-②
見利思義하고 見危致命하라.	H-①

④ 知者樂水仁者樂山 (『論語』)

知者は 樂水하고 仁者は 樂山이라.	C-①
知者は 樂水하고 仁者は 樂山하나니 知者は 動하고 仁者は 靜하며 知者は 樂하고 仁者は 壽이니라.	D-②
知者樂水, 仁者樂山.	F-①
知者樂水, 仁者樂山.	H-①

⑤ 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 (『論語』)

夫仁者は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니라.(『용야』)	㉔:XI단원-32과
己欲立而立人하고 己欲達而達人하라.(『용야』)	㉔:VII단원-16과

⑥ 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 (『맹자』)

以五十步, 笑百步, 則何如?	B-①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잇고?	C-②
(孟子對曰: “以五十步, 笑百步, 則何如?” 曰: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F-①

⑦ “師與商也孰賢

子貢이 問: “師與商也孰賢고?” 子曰: “師也는 過하고 商也는 不及이니라.” 曰: “然則師愈與잇가?” 子曰: “過猶不及이니라.”	中-㉓-2
子貢이 問 “師與商也孰賢이니잇고?” 子曰 “師也는 過하고 商也는 不及이니라.” 曰 “然則師愈與잇가?” 子曰 “過猶不及이니라.”	高-㉔:IV-11과

셋째, 標點・符號의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수록된 교과서 경문에서는 현토뿐만 아니라, 표점부호에서도 다름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콜론(:)’·‘겹낫표’와 같은 것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고교 한문교과서 본문에는 글감의 출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전을 나타내는 標點・符號도 제각각 다릅니다. 필자는 가급적 한국식 표점・부호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儒經編纂事業’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경서 관련 분야의 도서에 중국식 고유의 부호 사용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먼 훗날 같은 경서 관련 도서라도 韓國儒經과 中國儒經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儒經編纂事業에서는 가급적 우리 식의 ‘현토’나 ‘표점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名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난이도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경문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공부하거나 혹은 한국경학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관점이 표출되는 ‘경문’과 ‘주’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경서를 서지학에 준하여 살펴보아도, ‘경문’과 ‘주’는 지금 아래한글에서의 내어쓰기 양식과도 같습니다. 경서를 다룬다면 고서적이 내뿜는 향취에 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학’ 영역은 ‘한문학’이나 ‘한문교육’에서 ‘철학’이나 ‘중문학’ 등에 더부살이 하는 형국을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서교육’ 역시 애매모호한 성향을 그려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문학·한문교육학에서 다루는 경학은 철학이나 중문학에서 다루는 분야와 정의가 다르고 차원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개발함이 경학 연구자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올바른 경서교육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에서의 경서교육에 관한 분석·보고의 논제를 세심하게 이끌어 주신 함영대 박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益齋 李齊賢의 歷史意識과 詠史·懷古詩

단국대학교

김 용 창

益齋 李齊賢의 歷史意識과 詠史·懷古詩

김용창(단국대)

-
1. 머리말
 2. 「論」과 「史贊」에서 드러난 歷史意識-天命과 道理
 1. 「論」
 2. 「史贊」
 3. 이제현의 詠史·懷古詩 분석
 1. 詠史詩-是非褒貶
 2. 懷古詩-稽古省今
 4.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 현재 사용하는 漢字와 과거에 사용했던 漢文이라는 언어체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겨레가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고유의 감성과 인식 체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수많은 문언문으로서의 한문도, 결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 내에서 국제적 공용어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물에 가깝다. ‘우리들’과는 남다른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우수한 부분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들’만의 자부심도 지니게 되었고, 교전과 화친을 반복하며 사대와 자주외교적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유지되어 온 漢族 중심의 ‘그들’은 때로는 제3자라고 여겨지는 이민족인 ‘저들’이 되기도 하였으니, 바로 元나라와 淸나라이다. 朝鮮은 그토록 의지하던 明나라가 淸나라로 교체되는 것을 지켜봐야했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지니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고뇌하기도 하였다. 淸나라가 조선에게 공고한 朝貢 관계를 강요하였다면, ‘원’은 반복되는 혼인을 통해 고려와의 혈연적 결속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강력

한 내정 간섭을 시도했다. 이에 고려 내부에서 형성된 상당수의 附元勢力이 원나라와 내통하여 고려의 군주를 교체하고자 한 사건도 있었다. 고려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지식인들에 비해 원나라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¹⁾이었고, 益齋 李齊賢(1287~1367)도 그러한 지식인들 중 한 명이다.

이제현은 원나라의 내정 간섭 아래 놓인 고려의 多難한 시기에 ‘원’과 고려를 분주히 오가며 두드러진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한국한문학사 내에서도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제현은 산문, 시, 長短句[詞] 등 다양한 문학적 재능을 뽐냈고, 원나라의 간섭에 맞서 고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려 내부 정치의 쇄신을 시도하며 정치적 활동을 펼쳤으며, 그간의 고려 역사 기록에 대한 감수와 편찬에도 크게 힘을 보태었다. 이러한 이제현의 역량은 이제현이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 편집하고 기술한 『櫟翁稗說』에 가장 잘 드러난다.

『역옹패설』은 이제현의 높은 식견과 감식안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前集」에서는 주로 經史의 기록에 대해 논하고 「後集」에서는 주로 문인 작가와 문학 작품에 얹힌 평가와 일화를 수록하는 등 타인의 사건이나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논평 하는 내용에 대다수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역옹패설』은 비록 개별 사건이나 인물, 작품들을 느슨하고 영성하게 이은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와 제도, 역사 기록, 문학 등 다방면의 폭넓은 주제와 중국의 고대 周나라로부터 자신이 살던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든다. 그 중에서도 문학적 담론이 주를 이루는 「後集」은 사실상 ‘詩話集’이라고 해도 될 만큼 대부분 시와 관련된 기록들로, 이를 통해 이제현이 평소에 經史의 학문에 힘쓰고 동시에 詩作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문학에서 ‘詩’라는 갈래는 가장 아름다우며 효율적인 자기 의사와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어 왔고, 이제현도 旅程에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시로 읊고 정리하여 『西征錄』, 『行錄』 등의 기록물로 남긴 바 있다.²⁾ 『역옹패설』에서 이제현은 특정 사건에 대한 淵源과 眞僞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실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문학은 이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美를 추구하는 분야이다. 이제현은 詩作에서 ‘言外意’를 강조하며 세련되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주는 시를 지향점으로 삼았으며, 정형화된 시구 밖에 펼쳐진 작가의 의도와 情景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록 이제현 스스로가 생전에 자신이 지은 詩文을 말소해버려 남아있는 분량이 극히 적지만,³⁾ 그 중에서도 『익재난고』에 수록된 詠史·懷古詩 50여 수가 주목할 만하다. 영사·회고시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장소를 소재로 두고 읊은 시로서, 지은이의 문학적 능력과 역사 인식 태도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시의 갈래이다. 이제현은 在元시절 峨眉山과 普陀山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 古蹟을 직접 둘러보고 그곳에서 느낀 감회를 시로 남겼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1) 이는 조선-‘명’, 고려-‘宋’의 외교 관계와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 ‘송’은 ‘遼’나 ‘金’을 견제하기 위한 우방으로서 고려가 필요하였고, 고려 또한 ‘송’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명’은 豐臣秀吉의 지시 아래 진행된 대대적인 조선 침공에 맞서 대규모의 파병을 통해 조선을 도와준 바가 있다.

2) 1316년 奉命使臣의 자격으로서 峨眉山을 다녀온 여정에서 지은 시는 『西征錄』이라는 책으로 엮였고, 1319년 江南의 普陀山에 降香하는 忠宣왕을 扈從하고 돌아오면서 지은 시는 『行錄』으로 엮었는데, 둘 다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익재난고』의 권1에 수록된 시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李穡, <益齋先生亂藁序>, “先生著述甚多。嘗曰。先東菴尙未有文集行於世。況少子乎。故於詩文。旋作旋棄。而人輒藏之。”

하여 시로 읊은 바 있다. 이외에도 평소에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을 자유자재로 전고로 활용하였다. 이제현이 남긴 영사·회고시는 그가 축적해온 역사적 지식과 견해를 바탕으로 숙련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한 문학 작품으로서, 이제현이라는 인물을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제현이 남긴 글 속에서 확인되는 역사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써낸 영사·회고시를 분석함으로써, 역사의식-문학작품-정치활동을 상호 분석하여 변란의 시대를 살다간 고려 후기 지식인 이제현의 진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

2. 「論」과 「史贊」에서 드러난 歷史意識-天命과 道理

德陵(충선왕)께서는 원의 수도에 들어가셔서 이름난 선비들을 불러들이고 고금의 일을 강론함에 종일 지루한 줄 모르셨으니, 3대(夏·殷·周)로부터 5대(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에 이르기까지 군신의 잘잘못과 국가의 치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말씀하셨다. …… 항상 곁에서 보좌하는 신하로 하여금 『宋史』를 읽게 하고 단정히 앉아 듣다가, 李沆, 王旦, 富弼, 韓琦, 范仲淹, 歐陽脩, 司馬光 등 여러 名臣들의 傳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경모하는 마음을 다하였으며, 丁謂, 蔡京, 章惇 등 奸臣들의 傳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팔뚝을 움켜쥐며 이를 갈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어진 이를 좋아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그분의 타고난 성품이라 하겠다.⁴⁾

이제현은 만 27세의 나이로 충선왕의 각별한 부름을 받고 원의 대도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⁵⁾ 충선왕은 보타산에 降香을 하러가는 여정에 이제현을 지명하여 동반하고 시를 짓게 할 만큼 이제현을 아꼈고,⁶⁾ 이제현은 충선왕이 모함을 받아 머나먼 투르판으로 유배를 가자 충선왕의 복귀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여 결실을 거둔 적이 있다. 상당히 끈끈한 유대로 이어져있는 君臣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로 미루어보아, 이제현이 이와같은 文才를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본래 타고난 자질도 뛰어났겠지만, 역시 자신이 모시던 好學의 군주 충선왕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늘 역사서를 가까이하고 학문을 좋아했던 군주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이제현으로서는,古今의 역사를 훤히 알아 군주의 자문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⁷⁾ 이는 충선왕을 모시던 시기뿐만이 아니라 晩年에 이르러 손님을 맞아 술을 차려놓고 고금을 헤아려 따져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니,⁸⁾ 이제현 자신도 평소부터

4) 『櫟翁稗說』, 「前集」, “德陵入侍天庭。招致名士。講論今古。竟日忘倦。自三代至于五季。君臣得失。國家理亂。言之如昨日事。……常史僚佐讀宋史。端坐而聽。至而李沆王旦富弼韓琦歐陽司馬諸名臣傳。必舉首加額。以致景慕之思。至丁謂蔡京章惇等奸臣傳。未嘗不扼腕切齒。其好賢嫉惡。蓋天性云。”

5) 『高麗史』, 「列傳」, 〈李齊賢〉, “忠宣佐仁宗。定內亂。迎立武宗。寵遇無對。遂請傳國于忠肅。以大尉。留燕邸。構萬卷堂。書史自娛。因曰。京師文學之士。皆天下之善。吾府中。未有其人。吾羞也。召齊賢。”

6) 『高麗史』, 「列傳」, 〈李齊賢〉, “忠宣之降香江南也。齊賢與權漢功從之。王每遇樓臺佳致。寄興遺懷。曰。此間。不可無李生也。”

7) 충선왕이 이제현에게 ‘태조가 거란이 보낸 낙타를 굶어 죽인 일에 대한 이유’나 ‘과거에 비해 최근 고려의 선비들 중 경서에 밝고 덕행을 닦는 이가 적은 이유’를 묻자 이제현이 상세하게 대답한 바가 『櫟翁稗說』 「前集」에 수록되어 있다.

8) 『高麗史』, 「列傳」, 〈李齊賢〉, “晩年閑居。對客置酒。商榷古今。亶亶不倦。”

고금의 역사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며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1. 「論」

누군가 물었다. “漢나라는 3傑(蕭何, 張良, 韓信)을 기용하였고 楚나라는 范增을 기용하지 않아 망했다. 그렇다면 범증과 삼걸 중 누가 더 나은가?” 나는 말했다. “범증을 陳平에게 비교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만하는데, 하물며 삼걸에게 비하겠는가? 高祖(劉邦)의 너그럽고 인자한 성격과 項羽의 흉악스럽고 사나운 성격은 범증이 아는 바였다. 약속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한 不信이 없는데 항우가 관중에 들어가면 왕으로 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한 不仁이 없는데 항우가 이미 항복한 병사들을 생매장해버렸고, 임금을 시해하는 것보다 더한 不義가 없는데 항우가 懷王을 죽였으니, 그들이 5년이나 뒤에야 망한 것도 요행이다. 고조의 경우에는 관중에 처음 들어설 때 다섯별이 ‘井宿’에 모였으니 하늘이 준 것이요, 그가 한중에서 왕이 될 때 초나라의 자제와 제후들 중에 그를 흠모하여 따르는 이가 수만 명이었는데 항우의 重臣들도 漢에 귀의한 자가 많았으니 사람이 준 것이다. 王陵의 어머니는 기꺼이 자살하여 아들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함께 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였다. 고조가 틀림없이 왕이 되고, 항우가 틀림없이 망하게 되리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도 흔히 아는 바였는데, 범증은 틀림없이 망할 사람을 따르고 틀림없이 왕이 될 주인을 따르지 못했으니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일찍이 항우로 하여금 범증의 계책을 쓰게 하였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됨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⁹⁾

君臣은 인륜의 큰 근본이며 忠孝는 신하와 자식의 큰 절의인데, 吳員은 둘 다 잃었다. 초나라 왕이 吳奢를 잡아 가두고 오원을 부르면서 ‘네가 오면 아버지를 면죄해주겠다.’ 하였으나, 오원은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임금에게 죄를 얻게 되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아가 군주가 감동하여 깨우치길 바라는 법인데, 하물며 그 아버지의 죄를 면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름에 있어서야 말할 것도 없다. 비록 그 진심이 아님을 알았더라도, 말에 명에 매어지길 기다리지도 않고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본디의 人情이다. 오인은 나중에 복수를 하겠다는 것을 핑계로 끝내 가지 않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한 것이다. 군자는 나라를 떠날 때 원수의 나라로 가지 않고, 大夫와 士는 나라를 떠날 때 남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 법인데, 오원은 뱀과 돼지같은 오나라를 피어 宗國을 짓밟고 陵墓를 파헤쳐서 그 임금의 시신에 매질을 하였으니, 不孝와 不忠이 막심하다.¹⁰⁾

羽父가 桓公을 죽일 것을 청하여 장차 太宰가 되고자 하였는데, 隱公이 허락하지 않고 또한 그를 꾸짖지도 않았다가 끝내 蔣氏의 禍를 초래하였다. 王規가 왕의 두 아우를 참소한 것도 또한 우보의 뜻과 같았는데, 惠王은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곁에 두었으니, 소매에 칼을 품고 자객을 보내는 모략을 면한 것은 요행이라 할만하다. 이때는 太祖가 세상을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不義한 왕규가 세력을 얻는 것이 어찌 漢의 曹丕나 魏의 司馬懿와 같이 할 수 있었으랴? 그가 귀양보내지거나 죽임을 당함이 있지 않은 것은 어찌서

9) 『益齋亂藁』 9卷 下, 「論」, 〈范增論〉, “或問漢用三傑而王。楚不用范增而亡。然則增孰與三傑賢。曰。增方之陳平。猶謂不足。況於三傑乎。高祖之寬仁。項羽之禍賊。增所知也。莫不信於背約。而羽背入關之約。莫不仁於殺無罪。而羽坑已降之卒。莫不義於弑君。而羽殺懷王。其至五年而後亡。亦幸也。高祖則初入關也。五星聚于東井。天與之也。其王漢中也。楚子諸侯人之慕從者數萬人。而項氏爪牙之臣亦多歸漢。人與之也。王陵之母甘自殺。而不忍其子之背漢與楚。高祖之必王。項羽之必亡。匹婦之所明知也。增從必亡之人。不能從必王之主。其爲不智明矣。向使羽用增之策。終亦未免於亡矣。”

10) 『益齋亂藁』 9卷 下, 「論」, 〈伍員·蘇不韋論〉, “君父。人倫之大本。忠孝。人臣之大節。員兩失之。初。楚王執伍奢而召員曰。來免而父。而員不來。夫父得罪於君。猶將自至。庶一感悟其君。況以免其父召之。雖知其不誠。不俟駕而行。固人情也。員托以後報而竟不來。是促父之死也。君子違不適讎國。大夫士去不說人以無罪。而員誘蛇豕之吳。蹈宗國發掘陵墓。鞭其君屍。不孝與不忠莫甚焉。”

인가? 아! 소인을 멀리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¹¹⁾

句踐은 쓸개를 맛보았기 때문에 會稽山의 치욕을 씻었고, 小白은 莒에서의 苦難을 잊었기 때문에 齊나라에 우환을 끼쳤다. 군주가 천명이 있음을 믿고 제멋대로 욕심을 좇아 법도를 무너뜨리면, 비록 나라를 얻었을지라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상이 다스려질 때에도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생각하고,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이 있게 될 것을 생각하여, 마무리하기를 처음처럼 삼가 하늘의 아름다운 도리에 보답하니, 顯王으로 말하자면 이른 바 ‘내가 흠잡을 것이 없는’ 자이다.¹²⁾

禹임금이 아들에게 왕위를 전한 것은 후세를 염려하였기 때문이고, 遺腹子를 세우고 先君이 입던 옷을 모셔 놓고 조화하여도 천자가 요동하지 않은 것은 분수가 본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顯王의 세 아이 아우에게 왕위를 서로 전하여 順王에 이르렀는데, 순왕은 喪中에 있으면서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요절하여 後嗣가 없어서 왕위가 宣王에게 전해졌고, 선왕이 승하하며 太子가 그 왕위를 이었으니, 이가 바로 獻王이다. 나라 사람들이 들이 그간 보고 들은 것에 익숙하여 선왕이 다섯 아우가 있었는데도 어린 아들을 세웠다 하여 이를 잘못되었다고 탓하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이리 심한가? 다만 진족들 중 周公 같은 인물이나 신하들 중 博望侯 같은 인물에게 임무를 맡기고 국정을 돕게 하지 못한다면 닥쳐올 危亂을 까치발을 하고서 기다리게 될 것이다. 후세에 불행히도 襁褓 속에 있는 자식에게 벅차고 어려운 왕위를 물려주게 된 이는 이것으로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이다.¹³⁾

漢高祖의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지혜로도 매번 惠帝가 유약하고 趙王 如意가 자신을 닮았다 하여 여러 번 태자를 바꾸려 하였으나, 代王이 결국 太平天子가 될 줄을 모르고 그를 변방지역에 봉하였다. 그러나 대왕이 呂氏의 화를 모면한 것은 고조의 총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唐太宗의 현명함으로도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바보를 세웠다가 흉악한 암탐으로 하여금 그 자손을 쫓아 거의 다 없어지게 만들었으니, 매우 탄식스러운 일이다. 兩漢 4백 년 동안 천자가 된 자는 모두 孝文帝의 후예요, 唐의 3백 년 동안 中宗睿宗으로부터 昭宗 哀宗에 이르기까지 역시 태종의 후손이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하늘의 뜻이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우리 文王은 아들이 열아홉이었는데도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어린 나이의 肅王에게 기대하였는데, 숙왕이 변방에 봉해진 侯로서 大統을 이어 지혜로써 난을 평정하고 어짊으로써 태평성세를 이루었으며, 자손들은 명철하고 선하여 대대로 이어 지금의 4백여 년에 이르렀으니, 이것이야말로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렇다곤 하나 옛글에 ‘아들을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만한 이가 없다.’ 하였는데, 그것은 문왕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¹⁴⁾

11) 『益齋亂藁』 9卷 下, 「史贊」〈惠王〉, “羽父請弑桓公。將以求大宰。隱公不聽。亦不討之。終致焉氏之禍。王規之譖兩兄弟。亦羽父之意也。惠王不致之罪。顧使居左右。其免於袖刃壁人之謀。可謂幸也。時去太祖棄代甫耳。規之不義而得衆。已能如漢魏之曹馬耶。其未有以竄殛之。何也。嗚呼。小人之難遠也如此哉。可不誠哉。”

12) 『益齋亂藁』 9卷 下, 「史贊」, 〈顯王〉, “句踐嘗膽。雪恥會稽。小白忘莒。遺患於齊。人君恃有天命。縱欲敗度。雖得之。必失之。是故。君子理思亂。安思危。慎終如始。以對天休。如顯王。所謂吾無間然者乎。”

13) 『益齋亂藁』 9卷 下, 「史贊」, 〈獻王〉, “禹之傳子。爲慮後世。植遺腹朝委裘而天下不動者。分素定也。顯之三子。中弟相傳。以及於順。順以居喪過哀。夭折無嗣。而傳於宣。宣薨而太子嗣。是爲獻王。國人習熟見聞。乃謂宣有五弟而立孺子。以是歸非。何不思之甚也。唯不得周公於親。博陸於臣。委任而輔政。其危且亂。可翹足而待也。後世有不幸而遺大投艱於襁褓之中者。可以此爲誠哉。”

14) 『益齋亂藁』 9卷 下, 「史贊」, 〈肅王〉, “以漢高祖知人之明。每謂惠帝柔仁。而趙王如意似我。屢欲易太子。而不知代王之終爲太平天子。封之邊郡。然代王免呂氏之禍。以無寵也。唐太宗之賢。而不克定嗣。卒用昏童。乃使凶牝。啄其孫殆盡。尤可歎矣。兩漢四百年。臨天下者皆孝文之裔也。唐三百年。自中睿訖昭哀。亦大帝之後也。用此觀之。天也非人也。我文考十九子。而以再興宗國。期肅王於齠齔之年。而肅王由藩侯紹大統。智以定亂。仁以底平。有子若孫。克明克類。繼繼承承。以至於今四百餘年。斯豈非天乎。雖然。傳曰。知子莫若父者。其文考之謂乎。”

3. 이제현의 詠史·懷古詩

이제현은 『역옹패설』에서 ‘옛사람의 시 중 역사에 대하여 읊은 것이 많은데, 만약 쉽게 이해되고 쉽게 질린다면 그 사건에 대해 그대로 서술하여 새로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라고 하며 자신이 아끼는 詠史詩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영사시’라는 용어가 ‘懷古詩’라는 용어와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굳이 분류하자면 ‘詠史’는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하여 詩歌를 적음. 또는 그 시가.’이고 ‘懷古’는 ‘옛 자취를 돌이켜 생각함’라는 의미로, ‘영사’는 소재, ‘회고’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정의한 것이다.¹⁶⁾ 비교적 이른 시기의 選集인 『文選』에서는 ‘詠史’를 시의 한 갈래로 규정하여 분류하였으나 唐나라부터는 ‘懷古’를 시의 한 갈래로 규정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⁷⁾ 본고에서는 이제현이 이른바 ‘영사’의 개념으로 소개한 杜牧의 <赤壁>·<烏江亭>·<雲夢澤>·<桃花夫人廟>, 唐彦謙의 <仲山>, 張安道の <歌風臺>, 劉攽의 <塞上>, 王安石의 <張良>·<韓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赤壁>

折戟沈沙半未銷
試將磨洗認前朝
東風不借周郎便
銅雀春深鎖二喬

부러진 창이 모래 속에 깊이 박혀 아직 절반도 삭지 않았기에,
한번 가져다 갈고 닦아보니 이전 왕조의 것임을 알았네.
東風이 周瑜의 편에 힘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깊은 봄의 銅雀臺에 二喬가 붙들려 있었으리.

<烏江亭>

勝敗兵家事未期
包羞忍恥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
捲土重來未可知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 기약하지 못하는 일이니,
수치를 참고 견디는 것이 진짜 사나이라네.
江東의 子弟 중에는 재주 있는 준걸들 많으니,
흩먼지 일으키며 다시 돌아왔다면 어찌될지 몰랐을 것을.

<雲夢澤>

日旗龍旆想悠揚
一索功高縛楚王
直使飄然五湖去
未如終始郭汾陽

日旗와 龍旆 아득히 펄럭이듯,
포승줄로 吳王 결박하는 드높은 공 세웠네.
곧장 오히려 훌쩍 떠났으니,
그 처음과 끝은 郭子儀와는 달랐다네.

<桃花夫人廟>

15) 『櫟翁稗說』, 「後集」, “古人多有詠史之作。若易曉而易厭。則直述其事而無新意者也。”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그런데 ‘영사시’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제재로 한 시.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주관적인 懷古로 그리기도 한다.’라고 풀이되어 있고 ‘회고시’는 ‘옛 자취를 돌이켜 생각하고 짓거나 읊는 시.’라고 풀이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영사시’와 ‘회고시’의 의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자 김영숙(2008)은 ‘회고’를 ‘영사’의 하위개념으로 보았고, 류혜영(2007)은 당송 시기에 활발하게 창작된 ‘회고시’가 육조시대에 발생한 ‘영사시’의 발전한 형태로 보기도 하였다.

17) 류혜영(2007), 「‘회고’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소고」, 중국문학이론 제9집, 19-20면.

細腰宮裏露桃新
脈脈無言度幾春
畢竟息亡緣底事
可憐金谷墮樓人

細腰宮 이슬 머금은 복사꽃 다시 피어나,
하염없이 말 못한 채 몇 번의 봄을 보냈던가.
식 나라 결국 멸망당함은 무엇 때문이던가?
金谷園 누대에서 뛰어내린 여인만 가련하구나.

<仲山>

千古孤墳寄薛蘿
沛中鄉里漢山河
長陵亦是閑丘壟
此日誰知與仲多

오랜 세월 홀로 남은 무덤들에 쭉 덩불 자랐으나,
沛의 고을이요 漢나라의 산하라네.
長陵도 한적한 언덕이 되어버렸으니,
지금에야 누가 仲兄보다 나았음을 알랴?

<歌風臺>

落魄劉郎作帝歸
樽前慷慨大風詩
韓彭蒯蕭何繁
更欲多求猛士爲

곤궁했던 劉邦이 황제가 되어 돌아와서
술잔 앞에 두고 강개하게 大風歌를 읊었네.
韓信과 彭越을 짓갈로 담그고 蕭何 옥에 가두고도
다시 많은 용사들 구하려 하였네.

<塞上>

自古邊功緣底事
多因驍倖欲封侯
不如直與黃金印
惜取沙場萬觸體

예로부터 변방에서 공 세움은 무엇 때문이었나?
아끼는 신하를 제후로 많이 봉해주려고 해서였지.
그냥 黃金印을 주어 봉해주고,
사막에 수없이 널린 안타까운 해골들이나 거두는 게 낫겠네.

<張良>

漢業存亡俯仰中
留侯於此每從容
固陵始議韓彭地
複道方圖雍齒封

漢나라 王業의 존망이 幕廬안에서 결정 났으니,
留侯는 이럴 때마다 침착하였네.
固陵에서 韓信과 彭越에게 땅을 떼어주는 모의를 시작하였고,
복도에서 雍齒를 먼저 봉해주는 방법을 내어 놓았다네.

<韓信>

貧賤侵陵富貴驕
功名無復在蒹葭
將軍北面師降虜
此事人間久寂寥

빈천하면 업신여겨지다가 부귀하면 교만해지고,
功名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 천한 백성이 된다네.
장군이 북쪽으로 갔다가 오랑캐에게 항복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경우 오랫동안 없었다네.¹⁸⁾

<赤壁>은 남동풍이 불어주지 않았더라면 吳나라의 도독이었던 周瑜가 魏나라의 曹操에게 패하여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했던 그의 부인 小喬와 처형인 大喬가 조조에게 사로잡혀 동작대에 머물게 되었으리라는 말을 통해 적벽전투에서의 승리는 주유라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時運과 天命에 의해 결정났음을 강조한 시이고, <烏江亭>은 項羽가 垓下에서 대패하고서도 치욕을 감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재기하여 돌아

18) 이상의 9수는 『櫟翁稗說』, 『後集』에서 인용.

왔다면 승패의 향방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예측함으로써 切齒하며 嘗膽하지 못한 항우를 비판한 시이고, <雲夢澤>은 적국의 왕을 사로잡는 공로를 세우고도 홀연히 떠나버린 范蠡와 평생 부귀공명을 누린 郭子儀를 비교한 시이며, <桃花夫人廟>은 楚王이 息嬀를 차지하기 위해 息나라를 멸망시켰으나 살아 남은 息嬀와 자신으로 인해 낭군이 위기에 처하자 기꺼이 목숨을 버린 石崇의 애첩 綠珠를 비교한 시이다. <仲山>은 漢高祖가 仲兄보다 출세하여 천하를 호령하게 됨에 자부심을 느꼈으나 그러한 위세도 세월의 흐름에 잊히기 마련임을 읊은 시이고, <歌風臺>는 王業을 이룬 한고조가 여태까지 자신을 도와준 준걸을 해치고도 다시 인재를 구하려함을 비판한 시이며, <塞上>은 封爵해주기 위한 구실로 변방에 나가 신하들에게 공적을 쌓도록 만들지 말고 그냥 봉작을 해주고 부질없이 죽어간 이들을 위로해주라는 비판의식을 담은 시이다. <張良>은 위기의 한나라를 묘책으로 구해낸 장량의 기지를 찬탄한 시이고, <韓信>은 살기위해 구차히 匈奴에게 항복했던 한신을 비판하는 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사시’들은 모두 그가 말한 대로 역사 속의 사건과 인물을 그대로 소재로 삼아 미려하게 읊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시의 상황과 인물의 행동을 때로는 준엄하게 때로는 넉넉히 작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제현이 말한 ‘新意’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색다른 의견이 아니라, 기존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재해석’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비록 그 의견이 타인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나, 제한된 자구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읊은 시들이 반드시 평가만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것이다.

<金谷園>

繁華事散逐香塵
流水無情草自春
日暮東風怨啼鳥
落花猶似墜樓人

화려한 지난날의 일들은 분내음 따라 사라져버렸고,
강물은 무정하게 흐르고 풀들은 봄을 맞아 자라나네.
저물녘 동풍에 새들은 슬피 울고,
떨어지는 꽃잎은 누대에서 뛰어내린 여인 같아라.¹⁹⁾

이 시는 두목이 지은 <金谷園>이라는 시로, 앞서 <桃花夫人廟>에 등장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 시는 과거에 화려했던 금곡원에 사람도 없이 쓸쓸히 방치된 모습을 바라보며 애상을 느끼는 화자의 심경을 읊은 것으로 의론적인 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같은 역사 속의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취하더라도 이를 읊은 방식이 상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영사시’를 당시 상황과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主知的 성향의 시로 정의하고, ‘회고시’를 과거의 사건과 인물을 떠올리고 詩意를 작가가 활동하는 當今까지 확장하여 그 생각과 감정을 술회하는 主情的 성향의 시로 정의하여 ‘영사시’와 ‘회고시’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제현이 과거를 바라보는 눈과 지금(당시)을 바라보는 눈을 아울러 파악하여 역사의 존재 가치를 높이면서도 이제현의 사유와 의식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詠史詩-是非褒貶

19)

<項羽>

書劍應難敵萬人	책과 검은 만 명을 대적하기 어려우니,
須知大勇在安民	큰 용기란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하리.
韓生奪得東歸志	한생이 항우가 동쪽으로 돌아갈 뜻을 앗았더라도,
天意寧終假一秦	하늘이 또 하나의 진나라를 어찌 남겨두었으랴. ²⁰⁾

이제현이 『역옹패설』의 「후집」에서 소개한 영사시들 중에 楚·漢전쟁을 소재로 한 시가 9수 중 5수였고 그 자신도 이 시기를 소재로 많은 시를 남긴 것으로 보아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다툰 내용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에서 이제현은 앞장에서 살펴본 <范增論>에서의 관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1~2구의 ‘大勇’이란 맹자가 말한 큰 용기로,²¹⁾ 항우의 용맹함을 匹夫之勇으로 평가한 것이고, 3~4구의 내용은 항우가 가령 관중에 머물러 천하를 도모하려 하였더라도, 잔악한 성품의 항우는 끝내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으리라는 냉엄한 비판을 한 시로, 이를 통해 人德과 天命이 아울러 갖추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淮陰漂母墓>

重土憐窮義自深	선비를 중시하고 곤궁함을 불쌍히 여기는 의로운 마음 깊었으니,
豈將一飯望千金	어찌 한 그릇 밥 가지고 천금을 바랬을까?
歸來却責南昌長	돌아와서 南昌亭長을 꾸짖었으니,
未必王孫識母心	王孫이 아낙의 마음 알아차리지 못한 게 틀림없네.

婦人猶解識英雄	부녀자도 오히려 영웅을 알아보고,
一見慇懃慰困窮	보자마자 은근한 정으로 곤궁함을 위로해주었는데,
自棄爪牙資敵國	용맹한 장수를 스스로 버려 적국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니,
項王無賴目重瞳	項羽의 눈 겹눈동자여도 쓸모가 없네. ²²⁾

이 시는 韓信에 대해 읊은 시이나 평가하는 대상은 각각 다르다. 첫 번째 수에서는 곤궁한 이를 보살필 줄 알았던 의로운 아낙만 못한 한신의 도량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 수에서는 인재를 알아보고 도왔던 아낙을 언급하며 舜임금처럼 겹눈동자였던 항우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우를 범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 시에서는 불세출의 영웅들의 행실이 오히려 빨래터의 아낙만 못하다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시의 본문에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현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들의 敗亡은 이미 이러한 부덕함에서 비롯되었던 것임을 넉넉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 『益齋亂藁』 卷 4, <項羽>

21) 『孟子』, 「梁惠王 下」, “王曰。大哉。言矣。寡人有疾。寡人好勇。對曰。王請無好小勇。夫撫劍疾視曰。彼惡敢當我哉。此匹夫之勇。敵一人者也。王請大之。詩云。王赫斯怒。爰整其旅。以遏徂莒。以篤周祜。以對于天下。此文王之勇也。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

22) 『益齋亂藁』 卷 1, <淮陰漂母墓>

<王陵>

當時王呂議難勝
他日安劉力可能
慈母一言今在耳
不因存沒負長陵

당시에 여씨를 왕으로 세자는 논의는 건디기 힘들었으나,
훗날에 유씨를 편안케 할 만한 힘은 있었다네.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데,
생사를 따져가며 한고조를 저버릴 순 없지.²³⁾

왕릉은 상대적으로 한고조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으나,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한고조를 배반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기에 끝까지 한나라를 위해 분투했고, 이후 한고조가 생전에 한 백마의 맹약을 지키고자 呂后의 권유를 물리친 사내였다. 이제현은 왕릉이 여후에게 권유를 받던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아 이에 동조하지 않고 한고조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이유를 설명하며 그의 절의에 호의를 표하였다.

<嶧陵行>

牛鳴絳樞師期報
鄙鄭功虧乘韋犒
嶧陵山高鼓角悲
萬騎東來如電掃
墨衰禦敵責有歸
素服迎軍義彌邵
追懷元老謝前非
不棄累臣收後效
龍驤千艘作飛灰
鼠竄一境無橫草
秦強知在好賢心
百二山河非我寶

絳 땅에서 널을 읊기는데 소가 울었으니 군대는 반격을 당하게 되어있었고,
鄭나라 변방을 치려는 공은 가죽을 바치고 소 잡아 먹여줄 때 무너졌다네.
높은 효산에서 북과 나팔소리 구슬피 울리며,
수많은 기병들 동쪽으로 나와 번개처럼 소탕해버렸네.
상복입은 이들을 상대로 맞서 싸운 책임 그에게 있으나,
소복입고 군대를 맞이한 의리 더욱 높아라.
元老들을 그리워하며 지난 잘못에 사과하고,
사로잡혔던 신하 버리지 않고 나중에 功을 거둬들였네.
용처럼 진군하던 천여 척의 배를 흘날리는 재로 만들어버리고,
취처럼 달아나고 남은 온 사방에는 풀 한포기 자라지 못했네.
진나라의 강성함은 어진 이 좋아하는 마음에 있음을 알겠으니,
견고하고 험난한 산하를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네.²⁴⁾

이는 이제현이 嶧山을 지나며 秦나라와 晉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소재로 읊은 시이다. 秦나라 穆公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미천한 신분이었던 백리해를 발탁하여 재상의 자리에 앉힐 정도로 卓見이 있는 인물이었으나, 영토 욕심에 눈이 멀어 百里奚나 蹇叔과 같은 어진 이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晉나라에게 참패를 당하고, 이를 거울삼아 自戒하여 설욕하였다. 비록 진목공이 喪中이었던 晉나라를 공격한 건 명백한 과실이었고, 晉나라 입장에서는 철저히 응징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진목공은 승패를 떠나 자신의 과오를 용감하게 인정하고 자신으로 인해 패배한 장수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도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제현은 크게 인정하고, 이러한 진목공이 있었기에 진나라가 패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후하게 평가하였다.²⁵⁾

23) 『益齋亂藁』 卷 4, <項羽>

24) 『益齋亂藁』 卷 2, <嶧陵行>

25) 『益齋亂藁』 卷 2, <嶧陵行> 自註, “古所謂捨己從人。立賢無方者。穆公有焉。秦之能服山東。無敵於天下。蓋好賢之餘力。向使商君。不變法趣利。亦足爲有道之國。以克永世矣。”

<古風>

蘇秦學鬼谷
適取勞其生
起來佩相印
足使妻嫂驚
胡爲任寸舌
抵死談縱橫
便有二頃田
知渠不躬耕

소진은 귀곡 선생에게 배워,
자신의 삶만 고달프게 만들었네.
몸을 일으켜 승상의 인을 차고 돌아왔으니,
아내와 형수를 놀래게 할만 했네.
어찌하여 한 치 혀가 가는 대로
죽을 때까지 縱橫만을 얘기했던가.
아마 두 이랑의 밭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몸소 밭 갈지 않았으리라.²⁶⁾

이 시는 <古風>이란 제목으로 쓰인 7수의 시 중 5번째 시이다. 이 시의 소재로 등장한 것은 전국시대 여섯 나라의 재상을 겸한 적이 있는 蘇秦이다. 소진은 오직 화려한 언술만으로 6개국의 군주를 차례차례 설득하여 ‘合縱’의 거대한 6국연맹조직을 구성해 낸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현은 이러한 소진의 업적보다는 소진이라는 개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결국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천하를 떠돌며 여러 군주들의 눈치를 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이제현은 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진의 성품을 낮게 평가하였다.

2. 懷古詩-稽古省今

<過中山府。感倉唐事>

倉唐何爲者
魏國一陪臣
敦詩又說禮
幽語皆中倫
一言悟人主
遠子復相親
古今竹帛上
誰其君與隣
至誠說狄相
純孝稱封人
願令四海民
共祠此三仁
一見一感發
天理不胥淪

倉唐이 어떠한 사람이던가?
魏나라의 家臣이었지.
詩書を 깊이 알고 禮樂을 좋아하여,
사려 깊은 말은 모두 도리에 알맞았네.
한마디 말로 군주를 깨우쳐,
멀어졌던 자식이 다시 가까워졌네.
古今의 역사 속에
누가 그대와 같을까?
지극한 진심으로는 狄仁傑을 거론하고,
순수한 효심으로는 穎考叔을 칭찬한다네.
바라노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진 세 분을 함께 사당에 모시게 한다면,
볼 때 마다 감동 일으켜,
하늘의 바른 도리를 서로 어김이 없으리라.²⁷⁾

<過中山府。感倉唐事>은 이제현이 中山 지역을 지나다가 중산에 봉해진 위문후의 아들 擊이 효도하게 한 倉唐의 일을 거론하며,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을 회복하도록 했던 唐나라의 狄仁傑과 춘추

26) 『益齋亂藁』 卷 1, <古風>

27) 『益齋亂藁』 卷 1, <過中山府。感倉唐事>

시대 鄭나라의 穎考叔를 통해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이 서로 화합하기를 소망한 시이다. 古來로 父子는 하늘이 정해준 소중한 인연이지만, 부자간의 불화가 없을 순 없다. 그러나 부자간의 불화를 슬기롭게 극복한 인물들을 본보기로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올바른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의 요지이다.

<諸葛孔明祠堂>

群雄蜂起事紛拏	못 영웅 벌떼처럼 일어나 복잡한데,
獨把經綸臥草廬	홀로 經綸을 품고서 초가집에 누웠네.
許國義高三顧後	나라를 위해 몸 바칠 의리는 三顧한 뒤에 높아졌고,
出師謀遠七擒餘	出師할 계획은 七擒하고 나서 심원해졌네.
木牛流馬誰能了	木牛와 流馬를 누가 생각할 수 있었으랴?
羽扇輪巾我自如	羽扇과 輪巾은 변함없이 사용했네.
千載忠誠懸日月	그의 충성은 천년토록 해와 달처럼 드리워졌는데,
回頭魏晉但丘墟	돌아보니 魏晉은 다만 남아 있다네. ²⁸⁾

이는 이제현이 아미산 여정에서 제갈량의 사당을 지나며 지은 시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제갈량의 충성을 찬탄하였다. 제갈량은 劉備의 간곡한 부름을 받아 평생을 유비와 그의 아들을 위해 분골쇄신한 충신의 전형이다. 적벽의 전투 이후 천하가 크게 魏·蜀·吳 세 나라로 三分되었고, 제갈량은 세 나라 중 가장 약소한 촉의 승상으로서 강성한 위나라와 오나라에게 맞섰다. 유비의 사후에 그의 아들 劉禪을 보필하면서도 남만을 정벌하고 5차례의 북벌을 감행하여 위나라에게 타격을 입히고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정해진 거점 없이 떠돌던 유비를 도와 漢中王에 오르게 한 제갈량의 역량도 찬사를 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군주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 일평생을 바친 제갈량의 한결같은 마음이야 말로 후세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르는 점일 것이다. 이제현은 後漢을 무너뜨린 위나라와 그 위나라를 찬탈한 진나라가 그토록 기세등등했으나 지금은 세월 속에 모두 사라지고 빈터만 남았음을 언급하며 해와 달처럼 만고에 빛날 제갈량의 충의를 더욱 강조하였다.

<比干墓>

周王封墓禮殷臣	周나라 임금인 殷 나라 신하의 무덤 만들어 준 이유는
爲惜忠言見殺身	忠言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안타까워해서라네.
何事華陽歸馬後	어째서 華山 남쪽으로 말들을 돌려보낸 후에
蒲輪不謝採薇人	蒲輪 보내어 고사리 캐어 먹던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았을까?
從來忿欲蔽良知	이제까지의 노여움과 욕심이 바른 지혜를 가리어
日暮令人有逆施	늘그막에는 그릇되게 행동하게 만들었네.
嗇矣親祠比干墓	비간의 무덤에 직접 제사를 지내는 건 좋았는데,
胡然却仆魏徵碑	魏徵의 비석은 왜 넘어뜨렸나? ²⁹⁾

28) 『益齋亂藁』 卷 1, <諸葛孔明祠堂>

29) 『益齋亂藁』 卷 1, <比干墓>

<比干墓>는 두 군주를 비판하고 있다. 한 명은 聖君으로 일컫는 武王이고, 다른 한 명은 唐나라의 태평성세를 이끌었던 太宗이다. 比干은 폭정을 일삼는 殷나라의 紂王에게 숙부로서 충언을 했다가 심장에 일곱 구멍이 도려져 죽었다고 알려진 賢人이다. 이제현은 무왕과 당태종이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한 비간을 높이 존중하면서, 자신들에게 충언을 한 인물에 대해선 야박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무왕은 말고삐를 붙잡고 출정을 만류한 伯夷와 叔齊를 뿌리치고 천하를 얻은 후 다시 그들에게 예우하지 않았고, 당태종은 자신을 해치려던 위징을 자신의 신하로 삼아 ‘貞觀의 治’를 이룩하였으나 결국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 위징을 의심했다는 것이다. 이제현은 『春秋』에서 현자에게 완벽을 바란다는 뜻³⁰⁾을 담아 이 시를 썼다고 하였다.³⁰⁾ 비록 후대에 성군으로 추앙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그의 행동에 흠결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역사에 대한 확고한 자기 주관이 이제현에게 없었다면 이러한 시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4. 맺음말

科擧제도를 마련하여 인재를 뽑은 일로 말하자면, 光王의 마음에 文으로써 풍속을 교화하려는 뜻이 있었고 雙冀도 그 뜻을 받들어 그 훌륭한 성과를 이뤘음을 볼 수 있으니, 보탬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다만 浮華한 문장을 유행시켜 후대에 그 폐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때문에 宋나라 사신 徐兢이 『高麗圖經』을 엮으며, ‘인재를 뽑을 때 詩, 賦, 論의 3과목을 보고, 당시 정사에 대한 策問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보니, 당대 唐나라 때의 餘弊와 비슷하다.’고 하였다.³¹⁾

이제현은 과거제도에 ‘策問’과목이 빠진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결국 자신이 주관하는 과거시험에 ‘책문’을 하나의 과목으로 편입시켰다.

문노라.

『論語』를 읽을 때는 언제나 여러 제자들이 묻는 것을 자신이 직접 묻는 것처럼 하고, 孔夫子의 말씀을 오늘날 귀로 듣는 것처럼 해야 한다. 또 역사서를 읽을 때는, 또한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상황에 대해, 몸소 처한 듯이 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를 생각해본 뒤에야 얻음이 있을 것이다. 先儒가 이러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樊遲는 농사와 밭일 배우기를 청했고, 子張은 벼슬하는 일 배우고자 하였고, 季路는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물었고, 顏淵은 나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각자 그 뜻을 말한 것일 뿐이다. 諸生이 만약 孔夫子의 문도가 된다면, 물어서 배우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管仲은 小白을 섬기고 狐偃은 重耳를 섬겼는데, 비록 그들이 무력을 쓰고 겉으로 仁을 내세우며 음험한 모략으로 승리를 취하였으나 모두 夷狄을 물리치고 王室을 드높였다. 그러나 끝내 관중은 功이 보잘것없다는 기롱을 들었고, 호언은 하여 속임수를 쓰고 不正하다는 비방을 들었으니, 이것도 잘한 것이 아니다. 叔孫通이 高祖

30) 『益齋亂藁』 卷 1, <比干墓> 自註, “因作此詩。亦春秋責備賢者之義也。”

31) 『益齋亂藁』 卷 9 下, 「史贊」, <光王>, “若其設科取士。有以見光王之雅。有用文化俗之意。而冀亦將順以成其美。不可謂無補也。惟其倡以浮華之文。後世不勝其弊。故宋徐奉使兢撰圖經。言取士用詩賦論三題。不策問時政。視其文章。髣髴唐之餘弊云。”

를 위하여 禮儀를 제정하지 않았다면,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칼로 기둥을 치는 행패가 반란에 이르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先王의 예의를 잃은 것은 숙손통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鼂錯가 景帝를 위하여 諸侯의 땅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예의와 법도를 넘어서려는 행동들이 어찌 반란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만, 7國의 군대가 일어난 것은 조조가 재촉한 것이다. 諸生이 만약에 관중과 호언의 임무를 맡는다면 그만한 공은 세우되 그러한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숙손통과 조조의 시대를 만난다면 그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그러한 책망은 면할 수 있겠는가? 과장도 겸손도 하지 말고, 진실하게 서술하길 바라노라.³²⁾

이 책문을 통해 이제현이 經史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익혔는지 알 수 있다. 경전과 역사서에 담긴 주옥같은 말들도 결국 오늘날을 살아가는 내가 체득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현은 당시의 ‘참된 학문을 버려두고 문장을 다듬는 일에 힘쓰는 자’³³⁾가 관리로 배출되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책문’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현은 ‘天命’과 ‘道理’라는 잣대를 마음속에 품고 역사 기록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현재를 바라보는 창으로서 마주하였다. 이제현이 살았던 시대는 원이라는 초거대한 국가가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가운데, 고려는 내부 분열을 겪으며 끊임없이 흔들리고 적응해나가는 과도기였다. 당시 이제현만큼 원나라의 내부사정에 밝고 큰 대륙의 힘을 몸소 체험한 이는 드물었을 것이고, 이제현은 현실적으로 원나라의 지배 질서 안에서 고려가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온건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³⁴⁾ 이렇게 요동치는 국내외 정치판도 속에서도 이제현이 큰 실수 없이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울로 삼고 지남철로 삼아 늘 자기를 堅持한 덕분이다.

32) 『益齋亂藁』卷 9 下, 「策問」, <入孔門則願學者何事而代仲偃通錯則何以處之>, “問. 讀論語. 每以諸弟子所問作己問. 而以夫子之言. 作今日耳聞. 其讀史. 亦於君臣之際. 事機之會. 以身處之. 知何而可. 如何而不可. 然後方有所益. 先儒蓋有此論矣. 且如樊遲請學爲農圃. 子張學干祿. 季路則問事鬼神. 顏淵則問爲邦. 亦各言其志也已矣. 諸生若及夫子之門. 其所問而願學者何事. 管仲事小白. 狐偃事重耳. 雖其以力假仁. 陰謀取勝. 皆所以攘夷狄尊王室也. 仲也致功烈其卑之議. 偃也貽譎而不正之誚. 斯亦未爲得也. 叔孫通不爲高祖制禮儀. 則醉號擊柱. 孰謂其不至於叛. 而先王之禮之喪. 通使之也. 朝錯不爲景帝削諸侯. 則僭禮踰制. 幾何其不至於亂. 而七國之兵之起. 錯促之也. 諸生若當仲. 偃之任. 能樹其功而無其過歟. 遇通. 錯之時. 能救其弊而免其責乎. 勿夸勿詘. 請以實陳.”

33) 『樸翁稗說』, 「前集」, “今展下誠能廣學校謹庠序. 尊六藝明五教. 以闡先王之道. 孰有背真儒而從釋子. 捨實學而習章句者哉. 將見雕蟲篆刻之徒. 盡爲經明行修之士矣.”

34) 김인호(2007), 「이제현의 정치활동과 역사인식」, 실학사상연구 19·20, 120-124면.

참고문헌

『孟子』

『益齋亂藁』

『櫟翁稗說』

김성기(2004), 「이제현의 역사인식과 시적 형상화」, 개신어문연구 제22집

김영숙(2008), 「한국 한시의 특징과 전개 ; 영사시의 개념과 작품의 실상」, 동방한문학 제37집

김인호(2007), 「이제현의 정치활동과 역사인식」, 실학사상연구 19·20

류혜영(2007), 「회고의 세 가지 개념에 관한 소고」, 중국문학이론 제9집

손정인(2002), 「이제현의 영사시론과 영사시」, 대동한문학 제16집

장영희(2008), 「『역옹패설』의 인물기록과 그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제50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益齋 李齊賢의 歷史意識과 詠史・懷古詩」 토론문

이재숙(충남대)

선생님께서서는 근래에 “익재 이제현의 한시 연구”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바, 선생님의 논문에는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익재 이제현의 “言外意”의 詩論을 실제로 다루었고, 익재 시에 비중 있게 드러나는 詩語를 면밀히 살펴 그 의미를 논하고 아울러 自意識을 반영한 인물 등을 들어 익재 이제현의 한시를 다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연구논제를 찾고 이제현의 역사 의식과 정치활동 등을 살펴 이제현의 진면모를 구체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학 연구 분야까지 포함하여 현재까지 80여편 이상의 연구논문이 축적된 익재 이제현에 대한 연구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그것과 별개의 심도 있는 성과를 낸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자인 저도 선생님의 연구 관점과 기존 연구사의 쟁점을 구별하는 데,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논의하고자 하신 내용에 의문이 드는 점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1. 2장의 “「論」과 「史贊」에서 드러난 역사 의식”에는 “天命과 道理”라고 부제가 달려있을 뿐, 6개의 원문 인용문을 제외하고 선생님의 논지를 짐작할 수 있는 서술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부제를 대신건지 보충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2장의 내용에 인용하신 이제현의 「范增論」과 「伍員·蘇不韋論」, 史贊 중의 <惠王>, <顯王>, <獻王> 등은 이제현의 역사 의식을 다루는데 있어 기왕의 연구논문에서 많이 거론된 부분입니다. 이와 차별되게 선생님께서 접근하는 핵심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요?

3. 詠史·懷古詩를 선생님께서는 영사시를 “主知的 성향” 회고시를 “主情的 성향”이라고 구분하였습니까. 과연 꼭 그러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선생님께서는 익재의 시를 영사시는 “是非褒貶”, 회고시를 “稽古省今”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여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용 시들은 다소 같은 의미로 섞여서 읽혀집니다. 또 선생님께서 다른 부제에 맞추어 서술되기 보다는, 시에 드러나는 인물 성향 비판과 天命 의식, 節義, 충성과 충의 등에 대한 보편적

인 설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부제를 다신 근거와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익재의 시 분석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인 한자시험

YBM 商務漢檢
실용한자 평가시험

商務'라는 말은 '商業上的 用務' 즉 '비즈니스(Business)'의 漢字語입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한 YBM 商務漢檢은 단순히 '한자의 음과 뜻'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漢字와 漢字語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漢字를 정확히 구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實用 漢字能力評價 試驗 입니다.

주관

YBM

후원

한국한문교육학회

문제 유형			문항 수		시간	총점
생활 한 자 어	신문 헤드라인 한자어	객관식	10	70 問	70 분	1000 점
	생활한자어 이해		10			
	한자어 변환		10			
	상대어		10			
	동자이음(同字異音)		5			
	약자(略字)		5			
	한자성어(漢字成語)		10			
	그림 한자성어		5			
	한자퍼즐	주관식	5			
실 무 한 자 어	한자어 이해	객관식	10	80 問		
	한자어 완성		10			
	한자어 찾기		10			
	한자어 전환		10			
	한자어 바로 쓰기	주관식	15			
	문장 독해	객관식	15			
	간체자		10			
합계			150 問			

▶ YBM 商務漢檢 특징 및 장점

- 정확한 실력 측정이 가능한 1000 점 만점의 점수 별 급수 부여 방식 (1 급 ~ 5 급)
- 자격증 및 영역별 성적분석표 제공 (국가공인 급수: 1 급 ~ 3 급, 교육급수: 4 급 ~ 5 급)
- 생활 및 실무한자 위주 실용적인 문제 출제
- 문장 및 문서로 제시되는 다양한 출제 (간체자 문제 출제)

YBM 商務漢檢 시험 안내

- ▶ 정기시험: 일반인 대상 年 5 회 정기일정 시험 (응시료 ₩25,000)
- ▶ 특별시험: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 단체시험으로, 사전 협의(시간, 장소, 인원)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입니다.
 - 신청인원: 최소 20 명 이상 / 시험일자 기준 15 일 전 신청

2014年度 韓國漢文教育學會
夏季學術大會 發表集

- 발행일 _ 2014년 7월 5일~6일
- 발행처 _ 한국한문교육학회
- 후 원 _ 충남대학교, (재)국제교류진흥회
- 주 소 _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정재철교수 연구실
- 전 화 _ 031-8005-3796
- FAX _ 031-8021-7227
- E-mail _ l0012@hanmail.net
- Homepage _ <http://www.hanmunedu.or.kr>